朝鮮日報
夕刊 三日(金)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鎔進
發行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青少年과 그들의 三大敵

一

나는 가난하기때문에 아모일도 할수 업다。혹은 나는 도와주는 사람을 가지지 못햇기때문에 아모 일도 할수가 업다。라는 사람이 잇다하면 그것은 이 世上에서 싸우지 안코 스사로 敗하려는者의 悲鳴的口實以外의 아모 物件도 아니다。自己의 價値를 自己가 卑下함이 이에서 더 甚함이 업스며、自己의 人格을 自己가 無視함이 이에서 더 甚함이 업다。이른바 自暴가 卽、이것이며 이른바 自棄가 卽、이것이다。萬若 米國의、아브라함·링컨으로하여금 이런 心志를 가지게하엿드라면 그가 엇지 一國大統領이 될수가 잇섯슬것이며、英國의 디스레리로하여금 이런 心志를 가지게 하엿드라면 그가 엇지 一國首相이 될수가 잇섯슬것이냐? 故로 天下有爲敢能의 靑少年은 몬저 그心內로부터 斯種의 心敵을 驅逐해야된다。

二

사람은 누구나 一生을 通하야 세가지 큰 敵을 가지는法이다。그一은 心敵이오、그二는 環境이오、그三은 外敵이다。自他가 共認할만한 偉大한 個人이 되고 안되는것은 오직 天運에 달린것이오、人力의 敢及할바 아니라고 할지라도、自己의 價値를 自力으로 高하며、自己의 人格을 自力으로 完成하려는者는 누구나 이 三大敵을 逐次로 打勝하기에 必死의 努力을 다하지아니면、안되는것이다。故로 有爲敢能의 靑少年諸君의 가질바憂慮는 오직 어떠케하면 이心敵을克服할까? 이環境을 打開할까? 이外敵을 擊退할까를 생각하고 힘쓰는데 잇슬것이오、꿈에라도 懦弱을 粉飾함으로서 自暴自棄에 빠지는 悲鳴的口實을 心慮하는데 잇서서는 안된다。

三

人生은 무엇이냐? 이곳鬪爭이다。그는 自己自身에 微弱한듯하면서도 이기기 어려운 强敵을 가지엇고、그處한바 環境에 打開하기 어려운 여러가지困難을 가지엇고、그는 그의同類가온데 無數의 敵을 가진것이다。보라、첫재 自己心內에 나의 人格完成과 偉大를 妨害하는 强敵이 얼마나 만흔가? 술을 보고 끌리우는마음、色을 보고 끌니우는 마음、金을 보고 애끼는 마음、義를보고 겨으른 마음、일을 보고 꺼리는 마음等은 다 우리의 偉大를 妨害하는 心內의 强敵이다。人心은 惟危하고 道心은 惟微라함도 이를 니름이며、山中之賊은 易勝이나 心中之賊은 難勝이라는것도 이를 니름이다。故로 滿天下有爲敢能의 靑少年諸君의 憂慮할바는 몬저 여기 잇다는것이다。

四

다음은 環境이니、勿論、나면서부터 훌륭한 環境을 가지고 나는 사람이 업다는것이 아니나、그런 사람은 世界十八億을 通드러 보아도 曉天의 星의 數에도 차지 못하고、그餘 絶大多數는 다 物質的環境이 極薄한 環境에 태여난 사람들이다。그러나 極少數의 例外를 除하고 말한다면 暖衣飽食의 結果는 安樂이오、安樂의 結果는 自滅인 反面에 飢食寒飮의 結果는 勞苦요、勞苦의 結果는 偉大化라는 一語에 歸着한다면 貧寒窮困、內憂外患의 環境에 태여난것은 이에 天惠요、斷코 不幸이 아니다。하늘이 將次、大任을 이 사람한테 마끼려 할때에는 반드시 몬저 그 心志를 苦케하며、그筋骨을 勞케하며、그體膚를 餓케하며、그몸을 窮乏케 한다는말은 萬古에 亘하야 不變할 眞理니、靑少年諸君은 이것을 大게잇고 물재로 이것을 근심해야된다。

五

心敵을 이기며、環境을 打開하야 事業의 基礎를닥거가지고 自己의 偉大事業에 具現하기를 始作한때에 逢着하는 難關은 同類가온데서 이러나는 外敵의 妨害다。猜忌誹謗도 그들가온데서 이러나고、猜疑謀略도 그들가온데서 이러날것이다。그러나 大志를품고、隣人社會를 爲하야 크게 하엿이 잇스려는者는 苟且한 小人輩의 毁譽褒貶等은 그의 眼中에 두어서는 안된다。그의게는 오직 自己의 所信을 向하야 一意邁進한다는 堅强한心志와 拔山의 勇氣가 잇슬뿐이다。故로 생재로 이것이 諸君의 憂慮할 바이다。그러므로 有爲敢能의 士의 憂慮할바는 오직 三敵克服에 잇고、環境에 對한 悲鳴的不平에 잇지안타는것이다。

一九三六年의 北中情勢打診

宋氏中心北中政權 日本期待에離反

停戰區域의自治政權은一年後쯤은獨立

內蒙獨立도年內實現

【北平二日發電通】波瀾重疊을 極히한 一九三五年後半의 北中時局은 十二月下旬冀察政務委員會의 成立으로 一段落을告하엿는데 一九三六年을 마지하야 果然如何한 新局面을 展開할는지 華北方面의情勢를 綜合觀察하면 大體로 左와如한 見解를가질수잇다

宋哲元氏를 中心으로한 冀察政務委員會는 그成立使命에反함이 만코 日本의期待에 背馳되는일이 자못만흠으로 宋哲元一派가 곳自己의處地를 照顧하야 南京政府와의 裏面內通을 禁絶하고 自治政權의本質發揮에 邁進하지 안는限 畢竟自治政府도 一場春夢으로 化할險虛가잇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宋哲元氏의 自覺反省과 實行如何에잇스나 何如튼 一九三六年前半期에잇서 宿題인것은 明瞭하다。

◇

停戰區域의 自治政權은 絶對不可侵의 環境과 殷汝耕氏等의 熱意와에 依하야 一層 强化充實되며 或은 成立一週年前後에는 東亞最初의 自治獨立小國家의 出現을 볼는지도 알수업다 一方 德王、雲王氏等의 蒙古獨立運動도 漸次 具體化하야 北中政局의 再組織問題와 前後하야 蒙古獨立問題의 解決을 볼러로 冀東滿立政權의 確立과 蒙古獨立이 一九三六年의 二大産物이 될것이다

以上과 如히 停戰區域과 蒙古의 自治獨立完成은 明瞭하나 宋哲元政權問題는 今後淸算될 懸案으로 依然 그解決을 將來에 남겨잇고 따라 北中經濟提携의 懸案產業開發問題와 如한것은 滿鐵의 景氣에 依하야 多少 進展될뿐으로 北中政權再組織問題完了後까지 遷延되리라고 觀測된다

日本全權團의 新年祝賀式 駐英大使官邸에서擧行

【倫敦一日發電通】日本全權團을 中心으로한 新年祝賀式은 一日午前十時부터 駐英大使官邸에서 永野大將以下 全權團員 大使館員 在留民有力者 百餘名이 參集하야 盛大히擧行하엿다 式은 御眞影奉拜를 行한後 屠蘇雜煮의 供膳이잇고 一同은 正月氣分에 넘치어 最後로 藤井代理大使의 發聲으로 天皇陛下萬歲를 三唱하고 式을終了하엿다 그리고 永野大將以下의 陸海軍人은 正午부터 日本人會에서 擧行한 海軍關係者의 新年會에 出席하엿다

米議會三日開會

主要議題는農村問題

【華盛頓二日發電通】北米合衆國第七十四議會 第二會議는 三日正午(日本時間 四日午前二時)에 開會될터인데 本會議의 主要議題는 前會議에 繼續하야 國防問題 農村問題 外交問題等에 集注되엿다 特히 農村의 問題는 今秋에 擧行할 大統領選擧에 影響될바가 甚大하므로 政府側 反對派側이 모도 이러나 農村振興에 關한 各種法案을 提出하리라고 豫想되는바 昨會議에잇서 未決대로 너머온 農村金融法案 赤字補塡法案은 모도 當然 今會議에서 再審議될터이다 그리고 國防에 關하여는 補助海軍을 構成할 商船隊가 世界第七位의 劣勢에 잇는데 鑑하야 此를 充實히하려는것이 海軍當局의 切實한 希望으로 前會議에도 商船建造補助金交付案을 提出하야 下院은 通過하엿스나 上院에서는 審議未了로 되엿슴으로 今會議에서 審議될 豫定이다 그리고 伊에紛爭에 際하야 效果를 發揮한 中立法은 今年 二月 二十九日로서 失效케 되엿슴으로 今議會初期週에 同法의效力을 延長乃至擴張을 目的하는 同主旨의 法案이 提出되리라고 豫想된다

八面錄

◇「하우스」氏의 領土再分割에서 擬田의 資源再分割에。

◇一九三六年은 分割劇의 先幹으로 幕이 열리는모양。

◇合則必分 分則必合은 形式論理學의 第一메지。

◇여기서 新平和機構의 再建을 바람은 辨證法的發展論的 態度라고나 說明할가。

◇平和를 渴求함은 萬人萬國의 共通하는 慾望。

◇그러면서도 싸울準備를거듭 아니함이 人類社會의 矛盾。

◇人面獸心은 過한文句라 하리나 獅身人面의「스핑스」는 久遠한 矛盾의 象徵이든가。

察哈爾省張白縣에 內蒙自治政府成立

省內大部分內蒙古軍이占據

【北平二日發電通】一月一日로서 察哈爾省張白에 內蒙自治政府가 事實上成立되며 豊鎭、康上其他 四縣及 廣汎한 蒙古地帶를 그 管轄下에 두고 치오르파치프氏가 政權을 掌握하고 李守信氏가 內蒙第一軍司令官에 推擧되엿다

【北平二日發電通】察哈爾省東北部國境을 蒙古保安隊가 完全接收한結果 察哈爾省의 大部分은 蒙古軍의 손에 도라가게되여 察哈爾省政府의 管轄區域은 從前의 約十分之一로 縮少되엿다 더욱그最大縣인 張白縣은 張家口를 隔하기 겨우 十數里에 不過하고 城壁一겹으로서 이와 接觸하여 잇는바 産業上 及 交通上 張家口의 咽喉를 扼함으로 滿洲國外廊地帶의 勢力關係에 一大變化를 招來하게되엿다

太平洋要地에

陸軍根據地를 設置擴充하라

今日에안하면將來形勢不利 다 下院議員意見公表

【華盛頓三十日發電通】米國下院議員 조-氏는 太平洋防備强化의 必要를 力說하야 三十日左와如한意見을 公開하엿다

하와이及 알라스카等 太平洋上의 諸要所에 米國은 速히 强力한 陸海軍根據地를 擴充할것이다 萬若 此를 今日에 하지안으면 將來의 形勢는 顯著히 不利하게되며 太平洋防備를 疎忽히한것을 後悔할날을 맛게될것이다

米大統領候補로 『보라』氏出馬 오하이오州에서

【華盛頓三十日發電通】오하이오州 共和黨首腦部는 三十日 同州出身 上院議員 월리암·보라氏와 次期大統領 選擧戰에 關한 重要協議를 遂하엿는데 보라氏는 萬若 黨에서 推薦하던 大統領候補로 出馬할 意向을 表明한 模樣이다 共和黨代議者 로즈코-막카로지氏는 左와 如히 言明하엿나 보라氏는 一切를 그友人들에게 一任하엿나 萬若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右오하이오州의 豫選에 나올것이다

金剛山의鐵買收 議會에提出?

【東京電話通】拓務省으로부터 議會에 提出될 本省과 朝鮮關係의 法律案은 如左히 決定되엿나

一、朝鮮私鐵(아마 金剛山電氣鐵道)買收를 爲한 公債發行에 關한 法律案

人事·集會

▲李敦漢氏(名古屋商業通信社長)二日午後三時二十分入京、同東호텔에投宿

▲金東進氏(本社東京支局長)記務를帶하고 二日歸社、同東호텔에 投宿

▲金光洙氏(本社大阪支局長)同上

今日本紙附錄 合二十面

國際石油戰

大戰危機解消前 石油問題解決은無望

(下) 金炯元

◇各國의自給政策◇

前示數字에 依하야 石油에對한 各國의 實力이 얼마나均衡을 일흔것을 알수가잇는同時에 一朝有事한境遇에는 國防上產業上 밋치는影響이 얼마나 클것을 우리는 짐작할수가잇다。그리하야 지금 世界各國은 政治經濟上 不安에依한 第二次世界大戰의 幻影下에서서 軍備充實을 圖하는 第一階段으로 石油의 自給政策을 確立하기에汲汲하고잇다。自國內에 石油資源이 豊富한國家는 勿論이어니와 그러치못한 國家에서는 적어도 石油의 精製品加工能力의 充實과 平時保有量의 增加를 圖하는同時에 石油工業의 國家的獨占 乃至 獨占的統制를 急히하고잇스니 그例로는 瑞西、西班牙、佛蘭西、勃牙利等에서 우리가 이미보앗고、最近에는 康德元年十一月에 滿洲國의 石油專賣制實施와 第六十五議會를 通過하야 昭和九年七月부터 實施된 石油業法에依하야 더욱認識을 새롭게 하는바가 잇다할것이다。

◇石油業法의內容◇

石油業法은 두말할것도 업시 軍需를爲한 特別產業統制法의 하나이다。全文十七個條로되엿인데 骨子를말하면 如左하다

(一)石油精製業又는 輸入業을 許可制로한것、따라서設備의休止、會社의消滅도同樣(二)右에關한業者는 每年二月末까지 事業計畫書를 政府에提出하야 認可를受하고 이를變更할때도亦同(三)石油精製業又는輸入業者는 常時六個月分에相當한石油의貯油義務를負한다(四)原油又는精油의 輸入數量配定을 政府가管理한다(五)石油類의販賣價格、供給量의確保 其他에關하야不當타고 認定한時에는 그變更을命하는 所謂變更命令權을主務大臣이 留保한것(六)政府가 强制購入權을 가진것(七)免許許可에對한 罰則規定。

以上을살펴보건 石油의國家管理體制이 얼마나强化되얏는가를 一目瞭然한바가잇다。더욱이六個月間의 貯油義務强行은 世界產額의千分之一밧게못되는 日本의石油로서 非常時에對한準備를爲한것임은 다시말할餘地도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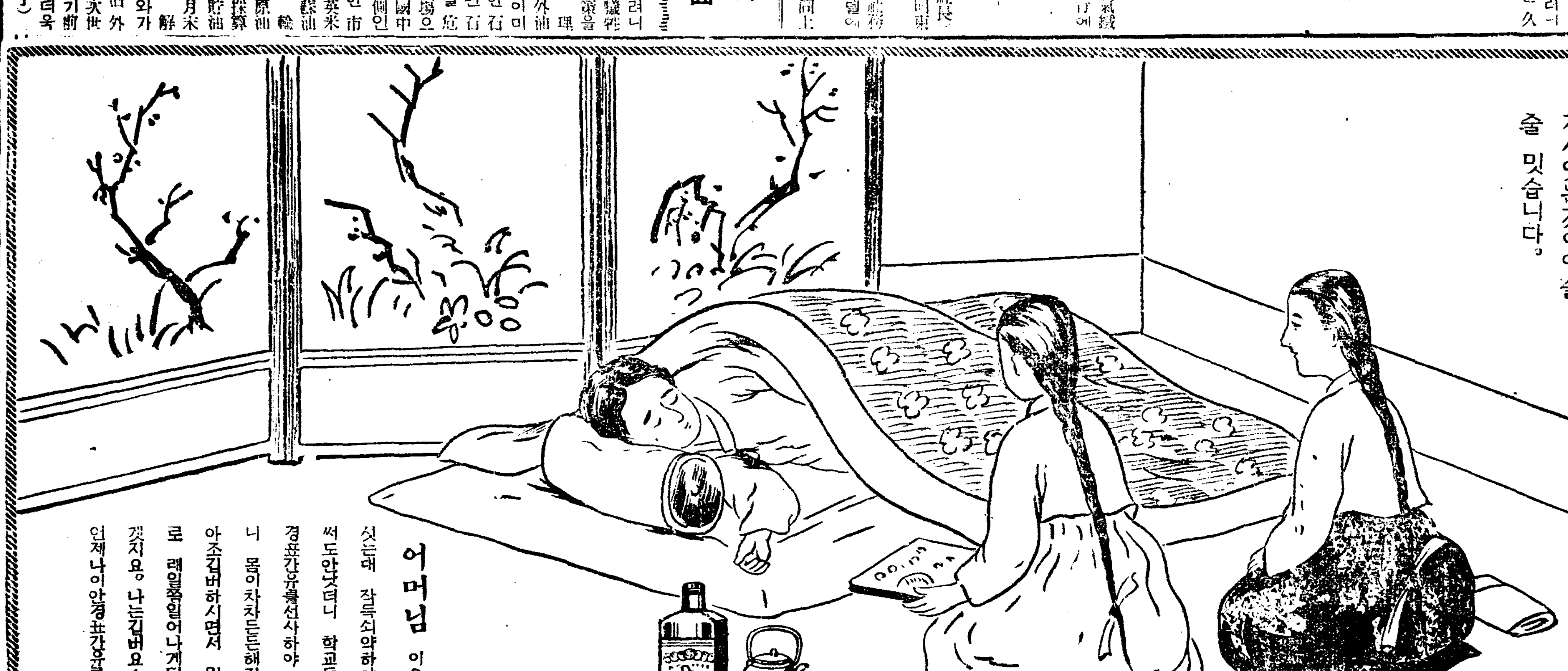
◇日本의石油消費◇

그러면 日本은 平時에잇서서 石油를얼마나消費하고 또國內生產力은얼마나되며 輸入量은얼마나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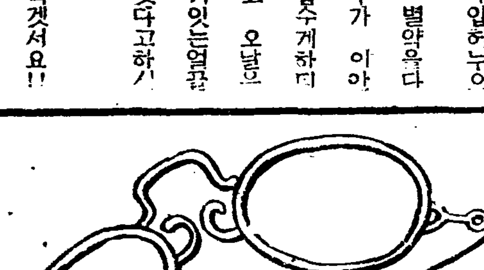
昭和六年度日本의全石油供給量은五千五百萬圓(一圓九·五까론約二斗)으로서 日本產原油의精製品은 그一割五分即八百六十二萬圓이엇고、七年에는 六千五百二十三萬圓에對하야 九分九厘即六百四十九萬圓이오 八年에는 六千六百七十七萬圓에對하야 겨우七分九厘即五百三十一萬圓이든것이 九年부터는 日本產油의生產量가 늘기시작하야 總供給量七千八百四十九萬圓에對하야 八分三厘即六百五十九萬圓에達하엿고 十年度에 至하여서도 日本產油는 六百萬圓에 不過할것이라고 豫想되엇다。그러나 全供給의 需要量의 一割以下인 日本產石油만 가자고는 軍事上 產業上 安全感을 갓기는 萬不足한 事情임을 알수 잇다。

◇解結의曙光杳然◇

그리하야 平時에 半年間消費量을 强制貯藏하자는것이 日本石油業法의 眼目이니 國內會社는 어쨋든 이에 服從하려니와 外國會社까지 多大한 犧牲을 하여가면서 日本의 國策을 爲하야 貯油義務를 甘受할 理는 없는것이다。여기에서 外油會社의 撤去(滿洲에서는 이미 撤去하엿다)即 日本에 對한 石油의 보이코트、다시 말하면 石油封鎖라는 狀態가 釀成될 危機가 잇다。그러나 石油市場으로 볼때에 日本은 世界各國中에서 가장低價이므로 輸出側인 英米會社로 본다하면 이만한 市場을 엇기가 어렵고、또 英米石油가 杜絶된다할지라도 蘇聯油나 루-마니아油를 日本에 輸入할 方途가 업음이 아니나 原價格이 高位에잇는關係로 採算上 困難한 點이 잇다。結局 貯油義務實行猶豫期限인 今年 六月末까지에는 무슨 方法으로든지 解決을보리라고 推測되나、이와가리石油가 列强의 軍事·政治·外交政策의目標가된以上 第二次世界大戰의危機가 아조解消되기前에는 石油問題도 압흐로 더욱 重大性을 加하여갈것이다(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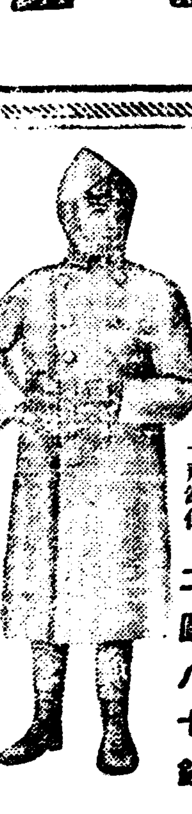
여러분댁에 유독여위고파리하고 약한애들은 업습닛가? 학교갓다오면 고되다고하야 밥도잘안먹고 공부나 운동도 잘못하는애들은 업습닛까? 또병들어서 몸이극도로 쇠약하야 병에둘아가신것보다 말라서 돌아가실지경이 된분은 안게십닛가? 여위고 약하는데 영양과 기름끼를 주워야 하고 병에 욕보신분은 몸에저항력을 주워야합니다 그리하야 영양분도 되고 약도되는 이두가지 성질을 한께가신것은 오직 안경표 간유(眼鏡印肝油)뿐이니이것을 먹여보십시요 간유를만히 써보신이는 아실것이오나 이외에더 자신잇는것이 업슬줄 밋습니다。



事實的最古의歷史가證明하는·이商標

眼(안)鏡(경)印(표)肝(간)油(유)

中古洋服類大安賣


● 陸軍拂下品 黑厚ラシヤ防寒外套 並品 一着卸値 二圓三十錢

● 陸軍拂下品 茶毛布製防寒外套 上品 一着卸値 二圓八十錢

● 陸軍拂下品 茶厚ラシヤ防寒外套 並品 一着卸値 二圓十錢

● 陸軍拂下品 黑ラシヤ防寒外套 並品 (マント帽子付) 一枚ニ付 二圓二十錢

● 鐵道省拂下品 紺厚ラシヤ 純毛 綿裏付 兩前外套(一等品) 一枚ニ付卸値 六圓五十錢

● 氣象局拂下品 黑厚ラシヤ純毛兩前外套(一等品)一枚ニ付卸値 三圓八十錢

● 鐵道省拂下品 紺厚ラシヤ 純毛 綿裏付 片前外套(一等品) 一枚ニ付卸値 四圓二十錢

● 遞信省拂下品 黑厚ラシヤ純毛片前外套(一等品) 一枚ニ付 三圓十錢

● 海軍省拂下品 防水防寒外套 (一等品) 一枚卸値 二圓九十錢
本品은海軍省拂下中古品으로重厚한防水布製
(着用當人形)

● 鐵道省拂下品 防水布外套(一等品)一枚卸値 一圓八十錢

● 鐵道省拂下品 紺ラシヤ詰襟服上下組(一等品) 一着卸値 三圓五十錢
本品은鐵道省拂下中

● 鐵道省拂下品 冬小倉服 上下組 紺色ネル裏付(一等品) 一着卸値 二圓十錢
官品으로純色純毛總裏付加工修理한堅牢品實用品

● 新品將校ラシヤ乘馬ズボン 上品 一枚卸値 二圓八十錢

將校ラシヤ乘馬ズボン

● 新品 純毛 將校ラシヤ乘馬ズボン 特品 一枚卸値 三圓八十錢

● 新品 紺 ラシヤ水兵型セーラーズボン (一等品) 一枚卸値 二圓二十錢

● 新品 黑紺 厚ラシヤ水兵型セーラーズボン(一等品) 一枚卸値 二圓五十錢

葉書로注文하시면 一件이라도小包代引으로急送함

名古屋市東區清水町局前
卸問屋 松山合名會社
電話東六二一九番·振替名古屋一一五一二

新年、外事警察擴大
在外朝鮮人取締强化
一方엔外國人의 團束도 嚴重히
內外各地諜報網擴充

총독부의 고등경찰정책은 새해부터 외사경찰즉 조선에와잇는 외국인의 취체와 또는 조선을 래왕하는 외국인의 감시와 단속을 엄중히하는동시에 만주와 중국에 다수산재한재외 조선인의 취체에 그중심을 두게되엿다한다 외국인 취체 즉국제스파이 취체에대하야는 지난년말에 척무성(拓務省)의 주최로 내외지의 외사경찰당국과 헌병대의련합 협의가 잇섯다 또 재외조선인 취체에 대하야는 경무국보안과 룡정(龍井) 사무관이작년 가을의 대련합 경계당시에상해(上海) 남경(南京) 북중지방을 시찰하엿고 다시지난년말에는 상내(上內)보안과장이만주국과 관동군및 관동국(關東局)과 경찰사무련락에관한 협의를하러만주에 출장하엿슬때에남북만으로를 열하(熱河)와 북평(北平)천진(天津)지방을 자세히 시찰하고 재외조선인의 생활상태 사상경향등에관한것을 직접 조사한바잇섯다 그리하야 경무국에서는 만주국내의 치외법권(治外法權)철폐를 전후하야 점차경무국의 파견원을 증파하는동시에첩보(諜報)기관을 확장하야 외사경찰을강화할 준비를 거듭하고잇다한다 이것은 고등경찰정책에잇서 조선내의치안이 비교적 완전히 유지되어가고 잇다하나 만주또는 중국방면에잇는 조선인의 모종운동자의 활동이 직접조선안에 련락을갓게되야 중대사건을 일으키는경우가 만타하여 금후는 고등경찰의 중심을 재외조선인취체지도에 두어가지고 사상경찰과 정치경찰을 극히강화하려는 의도로보인다

車에오르다負傷

이일오전여덟시반 시외 하왕십리(下往十里)구백삼십칠번지 압길에서 경성으로 향하야 달려오든 경전 제일백일호차에 청년한사람이 뛰여오르다가 발을 헛딛고 넘어저례ㅣ루위에 넘어저 인사불성이되여 즉시부민병원에 데려다 응급치료를 하고 잇다는데 그는 하왕십리사는 신한진(申漢鎭)(二〇)으로 생명에는 별지장이업다한다

龍川郡廳員等 公金三千圓橫領
市內에潛伏한痕跡잇서 各警察에서嚴探中

신의주로송정(新義州老松町) 사번지 함영식(咸永植)(二九)은 지난 사월초순에 룡천(龍川)군청에 근무중인 림인준(林仁俊)과 공모하고 공금삼천오백원을 횡령하여가지고 상해(上海)방면으로다러난혐의가잇서그간신의주경찰서에서 사상범인으로 그의행방을 찾든중 근일에경성모방면에 잠복하여잇다는 말이잇다하야 시내각경찰서로 조회가 와슴으로 시내각서에서는 그의숨어잇는곳을 엄탐중이라한다

全州白羊寺 布敎堂擴張
幼稚園도計劃

【전주】 전남백양사전주포교당(白羊寺全州布敎堂)에잇는 포교사 곽금성(郭金城)씨는 이십여년동안 불교에적용두고 만흔신도를 교양하여오든중 방금 가지고잇는 교당이 너무협착한 관계로 그동안 교당신축준비에 분망중이든바 최근에이르러 완산정(完山町)에잇는 상업은행 구코트자리를 이천여원에 매수하고 근근공사에착수하리라는데 교당이신축만되면하면곳 유치원까지 경영하기로 되엿다하며 씨의 백입기도 도 오는삼월중으로만요필될으로 늣저도 이때쯤이면공사를 시작하리라하며 일반교도중에서는 씨에대한 장거에칭찬이 자자하다

浦項에火災 三戶燒失
三日새벽에

【포항지국특전】 삼일오전 령시 포항(浦項)읍내 중정(仲町)바래순상점에서 불이나서 상점창고와 사무소를 전소하고 소방조의 필사적 노력도 효과업시근처리전한 삼천려관외 삼호오동이 연소되고 동삼시에 진화하엿나 손해는 약일만원가량인데 전긔 박래순은 일주간전에 큰아들을 일코 심단중에 또 이번화재를 당하야 동리사람들은 그의 정상에 모다동정하고잇다

漢城圖書勤續者表彰

시내 견지동(堅志洞)에잇는 한성도서회사(漢城圖書會社)에서는 지난 삼일 오후 다섯시 그사에서 십년동안 속근한 사원직공등 여덟명에대한 표창식을 거행하엿는데 이 한성도서회사는 기미(己未)직후에 창설되어 도서의 출판과 인쇄가튼것으로 적지안흔공헌을 하여온 회사인데 이래 이번 표창받든 사람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金顯濟(支配人)▲張太植(文選課長)▲金殷植(社長)▲張太洙(文選課長)▲金鎭龍(製本課長)▲李承林(植字課長)▲鄭有昌(職工)▲李元鍾(同)

天氣豫報

高氣壓은 中國內陸에 七七〇미리를 表示하고잇서 氣壓은 점차東邊으로 向하야나저지잇고 日本本州方面의 低氣壓에는 弱한低氣壓이잇다 滿洲와朝鮮은 맑으며 湖南地方은 小雪이잇고 東岸은흐리다 日本本州는흐리며 低氣壓에小雨雪이잇다

豫報 今夜京城地方은흐리고 一時흐리며따뜻하다 京畿道全區도흐리고 一時흐리며 따뜻하다 同日도今夜와갓다

昨日 最高 零下一九度九 / 最低 零下一五度六
今朝 正午 零下五度一 / 零下一度八

異次頓의 死 【73】
李光洙 作 / 金奎澤 畫

「이차돈아!」

하고 늙은 중이 부르는 말에 이차돈은 깜작 놀랏다。도모지 사람의 지혜로는 상상할수 업는일이엇다。그래서、

「대사는 이몸이 이차돈이줄을 어떠케 아시오?」

하고 무릎을 꿀엇다。

「오 네가 내 제자여든 모를리가 잇느냐」

하고 늙은 중은 빙그레 웃는다。

이차돈은 이 말에 더욱 놀라서、

「이몸이 대사께 무엇을 배운줄을 모르거든。」

「응 알 날이 잇을것이다。」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을 알게 되오리까。」

「응。오늘도 알수 잇고 내일도 알수잇고、그것은 네 공부에 달렷거니와 그것이 알아긴때까지 너는 내 겻헤잇서서 밥짓고 불 때고 내수종을 들어라。네가 활과 칼을 쓸 날은 인제 다 지낫스니 이로부터 중생을 제도할 큰 일을할 때가 되엇다。」

「그러하오나 이몸은 마음에 먹은 것이 잇서서 곳 신라로가야하겟사온데。」

「오、네 뜻도 안다。너는 신라스조정에 간신의 무리를 물리치고 나라를 바로잡으랴고하는것이지마는 너의 나라스사람이 모도다 마음이 썩엇거든 한두 사람을 업시한다고 나라가 바로잡힐줄아느냐。그 놈 또그 놈이고 그 놈이지。」

「그러키로 당장에 나라가 망하는것을 그냥 보고잇슬수는업지아니하오? 이몸이 힘잇슨해보고」

「오 그것은 조흔 마음이지。그러치만 한 나라문어지는것을 한 몸이 버틸수는 업는 것이야。」

「그러키로 보고 가만 잇슬수야 잇소?」

「나라라는것은 중생이—여러 사람이 모여서 되는것이야。중생의 업의 힘이라는것이지。선한 중생이 사는 곳에 선한나라가 일러지고 악한중생이 사는 곳에 악한 나라가 일러진다는 말이다。그러매로 네가신라라는 나라를 조케 하랴거든 신라의 중생—신라스나라 백성말이지—신라의 중생을 조케하여야 되고 신라의 중생을 조케하랴면 신라의 중생의 마음을 조케하여야 한단 말이다。신라스중생의 마음이 조케되지 아니하고 신라스나라가 조케 될수는 업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서 중생의 업력이라는것이오 알아듯느냐」

「예、대사의 말슴이 그럴듯하오。마는。그러면 신라스사람의 마음이 조아지게 하는 법이 어떠하오?」

하고 이차돈은 엄숙하게 물엇다。

늙은 중은 이차돈이 뭇는 말을 가상하게 여기는드시 또 한번 빙그레 웃으며、

「오、그것은 도다。」

「도?」

「응 도。길이란 말이다。별에는 별의 길이 잇고 나무에는 나무의 길이 잇고 중생들에게는 각각중생의 길이 잇드시 사람에게는 사람의 길이 잇단 말이다。사람마다 제 길을 바로 것기만 하면 저도 평안하고 집도 평안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온 세상이 다 평안하련마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일코 잘못된 길에 들어서 헤매기때문에 집도 괴롭고 나라도 괴롭고 세상도 괴롭단말이다。그러니까 네가 신라를 사랑하거든 신라스사람에게 도를주어서 그 마음을 조케하란말이다。」

「그러면 그 도란 무엇이오?」

「그것은 네가 알아내일것이다 네가 전생에는 알앗던것이니 세상스생각을 끈코 얼마를 생각하면 저절로 알아질것이다。그때까지 너는 여기 잇서서 나무하고 물을 깃고—」

「그러키로」

하고 이차돈은 의아한드시、

「그러기로 언제 그 만흔 백성을 가르처서」

하고 늙은 중을 보앗다。

늙은 중은 또 한 번 웃으며、

「중생은 끗이 업다。끗업는 중생에 비저서는 십번 이십번! 말고 천번 만번도 한번 눈깜짝할동안。그러치마는 길 일흔 중생은 영겁에 괴로운 길을 걸을것이다。신라스나라에서 이차돈 하나가 길을 차즌 사람이 될때에 신라스백성은 제도되는것이다。네 이 말을 알아듯느냐」

하고 늙은중은 이차돈을 물끄럼히 본다。

一月三日(金曜)
◇午後六時 童話劇 설하라버지 全二景 京城어린이放送會 作 金洛? 效果 李順? 指揮 金虎甲
◇同六時二五分 總督府事務官 新年의展望(一) 金大羽
◇七時三〇分 라듸오ㅣ스켓취 申不出
◇同八時 俗曲
◇同八時二五分 洋琴 笑琴 細笛 農夫歌外 崔 高 李 ...
◇同八時五五分 管絃樂 바이올린、빠이올린、바이올린 指揮 (東)빠이올린協奏曲 諧謔曲 新交響樂 알레그리·모데라토 키스산기

一月四日(土曜)
◇午後〇時五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雲淡風景 二、唱劇 赤壁歌 朴貞姬 鼓手 姜太弘
◇同三時一五分 趣味講演 쥐이야기 趙福成
◇同六時 童話 사자의동무 全尙鎭
◇同六時二五分 講演 各國의新年마지 崔晃
◇同七時三〇分 講演 新年의展望(二) 韓相龍
◇同八時 流行歌 一、나루의哀傷曲 二、沙漠의情歌 三、浮世草 四、자장가 五、南洋의아가씨 六、달도지니다 伴奏 DK管絃團
◇同八時三〇分 古談 金鎭九

延、普籠球對陣決定

【東京電話電通】日本籠球協會主催의 第十六回全日本綜合男子選手權大會及第六回全日本女子選手權大會는 四日부터八日까지(五日間) 明治神宮外苑코ㅣ트에서 男子十二、女子十一團體가 參加한가운데 열릴터인데 全延專軍은 五日第一回戰에서 神奈川代表關東學院과 對戰케되엿스며 全普專軍은 第一回戰에 不戰一勝하야 六日第二回戰에서 千葉醫大對立敎大勝者와 對戰케되엿다

▲第一回戰(五日)
C組全延專軍對關東學院(神奈川代表)
▲二回戰(六日)
E組全普成專門對A組의勝者
【備考】A組는千葉醫大(千葉代表)對立敎大學(東京代表)

京城商業럭비敗退

【甲子園電話電通】第十八回全日本中等學校럭비大會 第一日은三日甲子園球場에서 擧行한바 朝鮮代表 京城商業對 兵庫縣代表神戶一中戰은 同日午後一時二十分부터 開始되여 結局十七對十一로 京商軍惜敗하엿다

神戶一中 17 (7─5 10─6) 11 京城商業

全日本學生氷上 十一日로延期續行

【日光細尾電話電通】全日本學生氷上競技聯盟에서는 二日午後三時부터 日光小西旅館에서 代表者及主將『마네저』會議를 열고 氣溫上昇으로『컨디슌』이不良하야『스피ㅣ드』競技續行에 關하야 協議한結果 三日도氣溫關係로 着望업고 六日은 東京에서『아이스하키』及『피규어』競技를 開催케되여 남은四種目을 完了할수 업게됨으로 來十一、二兩日로延期하야 東京大會終了後 擧行하기로決定하엿다한다

曆
一月四日(土) 十二月建己丑(小)初十日
乙酉·水·柳·收
●祭祀에宜함
●小寒六日(舊十二日)
●大寒二十一日(舊二十七日)

運動競技
올림픽代表 金、李、張君片信
哈爾濱에서

李聖德 發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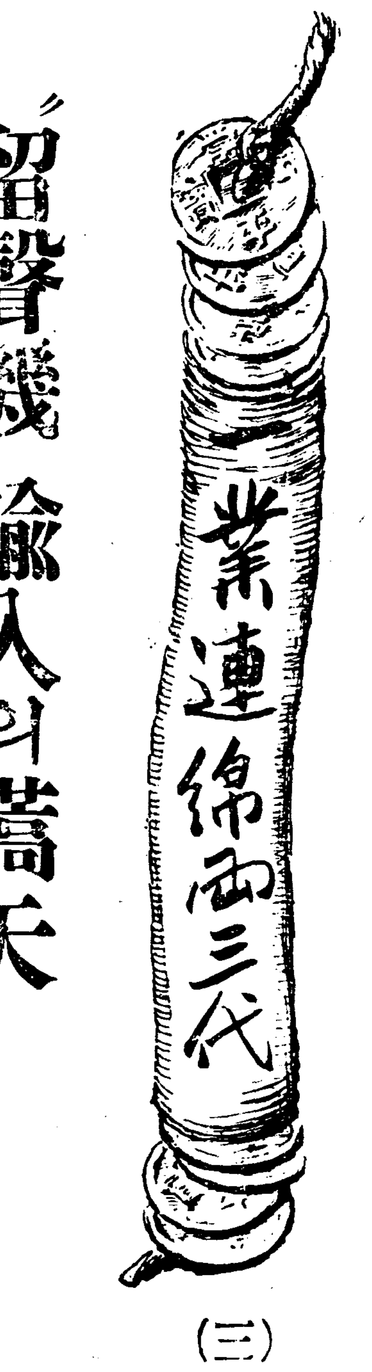
前略……우리一行은 三十一日午前六時二十分 哈爾賓驛에다엇습니다 驛頭에는 朝鮮人同胞들의 熱誠잇는 歡迎을바덧습니다 이날 午前九時三十五分滿洲里行國際列車에 몸을실고 一路歐洲로 向할려이오며 이곳은 只今氣溫이 零下三十餘度입니다 그러나 이가튼치위쯤이야! 北歐의 强豪들과싸울우리들의 意氣는 알프스山脈『가르미슈』에가 잇는듯感이잇습니다 우리는 西行國際列車속에서 一九三五年을 보낼려이오며 새해첫행발을興安嶺에서부칠것입니다

金正淵 發信

前略……奉天에서의不成績을 貴하엿슬것입니다 高見은 奉天링크에서 滑走하야본 經驗이잇스니 見만은 우리의苦衷을 아르실것입니다 처음當하는 치우인지라 적지안흔苦痛을바덧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世界舞臺로進出하는直前의 조흔經驗이라고밋고 더욱奮發하려니다 우리는 조금도落心하지안습니다 마음만으로벌서『리제르』湖永盤을想像하며 저들洋人도사람인以上 가튼永盤에서맛대어 長短을재어볼때 여기서勝利의榮冠을 우리머리에잡어쓰고도라올꿈을꾸며 滿洲里行列車속에서 이밤을보내고잇습니다 우리는希望에가득찬 一九三六年을 西伯利亞의雪原에서 마지할것입니다(此項未完)

漆板지우개를 衛生的으로改良
분필가루가안이나도록
公州金英培氏發明

충남공주본정(公州本町)출생으로 만주국 봉천서탑(奉天西塔)에가서사는 김영배(金英培)씨는 최근에 보건칠판지우개 (保健漆板刷子)를 새로 고안하야 특허국에신안등록(新案登錄)이 되엿는데 이는 종래의 칠판지우개가 불완전하야 분필가루가 날라서 공중가와 아동의 보건상 조치못한 일이 만햇스나 이것은 그것을 완전히방지하야 절대로 가루가남지안코 또영구히 사용할수잇게되엿다 이쇄자는원료를『고무』로하야 가루에대한 흡수성(吸收性)이잇도록 한것으로 가루가만히흡수되면 다시물에 빨아서얼마든지쓸수잇도록되얏든데이와동시에 씨는 전구보존금강전구(電球保存金剛電球)라는 것을신안고안하야 방금신안특허출원중인데 이는 보통전구보다 오배가량의 광력을 가젓다고한다 (사진은 김영배씨)



三業連綿三代 (三)

〃留聲機〃輸入의 嚆矢
宣傳費累計卅萬圓
大禮服裝束으로街路서〃八寶丹〃宣傳
賣藥商元祖和平堂藥房

〃완고(頑固)조선〃이 구해를벗지못하고 캄캄한속에서 기피잠들엇든 거금반백년전에 류성기(留聲機)의 맨처음 수입과함께 체중약으로 지극히인단(仁丹)의카올만치나 한때성가가놉든팔보단(八寶丹) 제조본포로 유명햇든『화평당약방』(和平堂藥房)이 지금은 종로대광교(鍾路大廣橋) 개울엽헤 버젓하게모ㅣ던화장을하고 이층양옥으로 서잇지만 맨처음 창설될때는 인천내리(仁川內里)즉 지금종현(鍾峴)엿젓다 쓸어저가는 초가비다섯간에 명색업시 서잇섯든것이다。

생각만해도 깜아득한 사십이년옛날인 개국(開國)오백사년에 고(故)일세주인 리응선(李應善)씨가 당시 한참햇든 약업게(藥業界)를보고 느낀바잇서서 외국과교통의 첫관문이되고 경해서물회수출입에 가장편리한 제물포(濟物浦)항구에다가『화평당약방』이라는것을 버렷스니 이것이조선서는 소위양약국으로 호시엿든것이다。

이때 인천엔 화평당약방과 한대에 뒤니어 생겨난 약국들이잇섯스니 고리경홍(李庚鳳)씨의『제생대약방』(濟生堂藥房)이며신정호태랑(新井虎太郞)씨의『신정약방』『新井藥房』들이 즉그것이다。

이러틋 인천에서 세양약국이창립이되여가지고 화평당에서는『팔보단』으로『제생당』에서는『청심보명단』(淸心保命丹)으로 신정약방에서는 또무엇으로 서로들 겻고들면서 새약선전에 맹렬한 경쟁을하다가 제생당과 신정약방은 그해로 서울로이사를해왓고 화평당만이 꾸준히 그곳서 만여년해동안 계속햇다한다。

그리하다가 자기의 경쟁상대자들이 모다 조선의 한복판인 서울로 이사를 해가지고 핑장하게들 제약에 선전을해서 그들의발전상이 팔목할만하게되자『화평당낸들 웨시골서안저 뒤지겟느냐?』는듯이 곳 서울로 뚤어올라왓다한다。

그래가지고 신정약방은 진고개지금 본정(本町)서、제생당은 대한문(大漢門) 엽헤서 그리고 화평당은 지금 종로일정목(鍾路一丁目)파출소바로엽헤서 서로 삼각형을 이루고안저『우리누가넘처유명해지나 해보자!』는듯이서로들 으르렁대며 자리를잡고안젓든것이다。

그후일한합방이 되자 화평당에서는긔회가 조하라고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에다가 때를 노치지안코『팔보단』을 서제일호로 매약인가를 어더가지고는뒤니어『태양조경환』(胎養調經丸)、『자양환』(滋陽丸)이며『편단이회』(開片斷引丸)가튼 남들이 당시채생각못한 진기한 약품들을 자꾸맨들어내다한다。이때 조선서는 처음시험인 제약사로 토정(도정)이란 사람을 고빙해왓는데 월급이 그때돈으로도 일백이십원식。이러니저러니해도『화평당약방』하면 일세주인 리응선씨가 이러나 상되는것이『팔보단』이엿스니 그 전하려고 어찌나애를썻든지『인단』광고에서보이는것가튼 례장(禮裝)을차린씨자신이류성기와 큰 약가방을 걸머메이고기차에올라 서는 승객들에게 한바탕 설명을 해단다음『팔보단』한봉식을 그저 논하주면서 그효력이 위대하다는것을 선전햇다한다。이리하기를 일년이나하자 여기서 인기를 독점한『팔보단』아니리 응선씨 그보담 화평당약방은차차 경향간에 일홈이 퍼지기시작해서『화평당약국엘가면 아동주졸도『응!저ㅣ후로근든입극팔보단』그냥주려다니는 이집말이군』하고 몰느사람이 업시되엿다한다。오늘까지의 광고비가삼십만원이라니 조선사람으로는어려운일인듯시 그마큼선전에애썻든것이다。

이러틋『팔보단』내지 화평당약방이 경향간에 알리우게 되자『팔보단』의주문은 프푸해서 하로에 오백원으로 천원어치까지 팔렷다니 이야말로 요새류행되는 문자대로 폭풍우처럼 팔린것이아닌가?그래서 일약 수십만원의 치부를하게되자 리응선씨는 그것으로 만족치 안코 다시 조선매약주식회사(朝鮮賣藥株式會社)를 르만금에 인계해가지고 화평당과 아울러 자매(姊妹)회사까지 가지게 되엿다。이때가 한참세월조흔대정(大正)팔년도 여기에 한가지 특기할것은 씨가 그만치부를하는동안 무엇이고 공익사업을 안홀수업다해서 전동(典洞)그전 수송유치원(壽松幼稚園)자리에다가 대정삼년에『조선병원』(朝鮮病院)이라는것을 설립해 가지고 한의로 유명햇든 리주규(李駿圭)、현재 리왕직 전시(李王職典侍) 홍재기(洪在?)씨며 양의로는 리령구(李寧九) 유재선(兪在先) 장긔무(張基茂)씨들을 초빙해다가 지금『민중의원』(民衆醫院)가튼제도알에서 일반 환자와 빈민들에게 가장싼료금 혹은 무료로 치료를해주어서 병고의 구렁에서 허덕이는 수만의 환자를 건저다는것이다。이리하기를 대정구년까지 일곱해동안에 매삭 칠팔백원식 도합륙칠만원을 희생햇다하니 씨의 공익심의한면을 넉넉히 엿볼수잇는것이다。

그리하다가 소화(昭和)삼년에 우연히 병을어더 마흔아홉살이라는 창창한여생을 압두고 요절(夭折)을하고말자 씨의맛아들 석순(石淳)군은 아직 약관(弱冠)인관계로 령계(令季)되는 동선(東善)씨와 령서(令婿)조준국씨가 후견인이되여 지금 선대리응선씨가 남긴일체사업을 그대로 이여나가는데 옛날에 일홈을 사해에떨치든『팔보단』의면목은 그후물밀듯 쏘다저 드러온 광고의힘에 눌려서 서울가튼도회처에선 고만옛날번영 한든그날의 그림자를 감추고말엇고지금은 유명한 시골전방、케케묵은 진열장 속에서 세도하든량반들의말년과가치 초최한 자태를 서글프게보이고 잇슬뿐이라한다 (사진은 고 리응선씨)

中央館
四日特別封切(四日間) 新春第二週特別提供(晝夜二回) 諸彦待望の映畵遂に中央館封切!
東日、大每 新春ニュース班 PCL·漫畵·解說吹込 エチオピア 特別ニュース 全二卷
新興キネマ特別提供 千惠プロ超越級時代劇 原作 長谷川伸 監督 ?? 股旅新八景 三ッ角平 主演 片岡千惠藏 大倉千代子、瀨川路三郞、香川良介、林誠之助、外千惠プロ、新興京都オールスター出演
コロムビア短篇超特作漫畫 原作 シッドセーカス氏 音樂 ジョウドナット氏 スクラッピーの主題歌
コロムビア短篇超特作漫畫 原作 ベン、ハリソン氏 音樂 ジョウドナット氏
PCL超特作提供第一回名篇 原作 サトウハチロウ 監督 木村莊十二 空中圓舞曲 三色旗ビルディング 宇留木浩、德川夢聲、神田千鶴子、加賀見二、大平平八郞、藤原釜足、伊達里子、細川ちか子、大競演

優美館
一月三日부터萬人待望의映畵大封切! 와니네쇼넬社超大作解級全發聲日本版 G·멘 … 暗黑街 재ㅡ무스가그니ㅡ氏主演 로바ㅡ드암스트롱氏助演
無軌道西部의卷 최리무래 조ㅡ지시도니 主演
朝鮮語全發聲 아리랑고개 錄音中川堯史 撮影李明雨 監督洪開明 主演盧??

東洋劇場
크리스치나女王
나는참大王
幽靈行列
祕密

朝鮮劇場
殺人鬼와光線 全七卷
라일탈봇
후라후라拳鬪家 二卷
지·멘(G·MEN)全十卷
아리랑고개 全九卷

冬はお肌を潑刺と！
レートクレーム
美を
若さを
魅力を
目指して
多幸のスタート！
全國レートデー
目下二重景品附の大賣出し中
お買求めの絶好チャンスです
詳細は御近所の賣店で御問合せを
お正月の嬉しい晴化粧に！
レート白粉
レート頰紅・レート口紅・レート眉墨
レート化粧料本舗・東京・平尾贊平商店

教育施設篇

歷史기픈嶠南學校 閉門의危機에直面

순전이우리손으로된이긔관을 大邱人士여！살리자

【大邱】 大邱의、私立嶠南學校는 우리의唯一한、中等教育機關이다。創立以來로十五個年이라는 긴歷史를、가진 嶠南學校 本是基本財產이 넉넉지못하야 오날까지 維持하여 오는동안에만은 波瀾曲折을 겪거가면서도 꾸준이 我教育界에 貢獻하야 無慮千餘名의 卒業生을 우리社會에 내엇스며 현재의 이백여명의 생도를 收容하고잇다 이嶠南學校가 某日本內地人에게 累濟된 校舍敷地의 地代를 督促한남어지 確定判決로써 今月以內에 校舍를 撤去치 아니하면안될 비절참절한 悲運에 빠저不得已 財政難으로 因하야 校門을 閉鎖하고 危機를 免치못하리라傳한다。

學校가 閉鎖됨에 따라 現在배우려하는 二百健兒와 一路洋洋한 理想을 一時에 中斷케함은 朝鮮教育問題에 關心한 우리로써 한업시 憂慮하는 問題인만큼 木行이 안인이상 엇지 他山之石으로 이暗憺한 事態를默過할바이랴？

大邱의 人口는 逐年增加하는 過程에잇서 此에 正比例하야就學兒童도 增加하며 이를 收容하는 公私學校로 爲始하야 各種中等學校 初等學校等이 比較的 完備되어잇다。然이나 就學志願者數는 年年 收容員數에 超過하야 初等學校에서도 考查制로되여 그競爭率이 各校平均 四對一 中等學校에 잇서서는平均八對一로써 試驗地獄을 演出하고잇다。以上은 官公立方面이며 이곳에서 不合格된者의 去就할바는 어듸인가？

이收容치못한 五分之三四以上의 多數者의 去就가 가장 重大視할큰問題이다。

現在大邱에 잇서 이重且大한 一大問題를 緩和하야줄 몃몃私立學校가 잇다 然이나 學當가 宗教團體의 事業機關의 系統의 그것이 안인가？ 嶠南學校는단하나 我朝鮮人社會를 背景으로하야 出生한 中等 教育機關이 안이엿든가？ 廢校의 悲運에陷하고잇는 母校를 救出하고저 嶠南學校 卒業生으로써 組織한校友會에서 百方으로 活動한 結果 二千圓의 義捐金을 自發的으로 捐出하는 한便 一般社會에 呼訴하야 輿論을 喚起하는동시에 校友를 目標로하야 當局에 寄附金 許可願을 申請한바 不當타는 理由條件으로 却下를 當하고마럿다한다。

母校愛에서 一大活躍을 開始하려는 純真한 校友들은 元氣를喪失하고 束手無策인故로 九曲肝腸만 불태우면서 姑息狀態에빠저잇다。이에大邱社會의 當面問題가되어 當地有志者 百二十餘名이 總網羅되여 後援會를 組織하엿다한다。要心한 我教育界 아니 歷史깁흔 嶠南學校를 爲하야 그 얼마나 慶事스러운 消息일가？ 吾等은全鮮을 두고 보드래도 朝鮮人으로써 富裕豪強한 生活을 營爲하는者가 만키로는 當地에 比肩할만한곳도 그다지만치는 안으리라思惟한다。이大邱에잇서 上記한 歷史와 現階段에선 嶠南學校가財政難으로 因하야 廢校하는것을 엇지 默過되다하랴？

更次絕叫하노니 有志有力者여！ 吾等은 이嶠南學校의 存亡左右의열쇠를 後援會諸君앞에敢然히 내걸고저한다。願컨대 이제 곳自己들이 배우는校門을뒤세우고 秋風落葉과가티 離散하야갈 우리二百健兒의 將來를想像熟慮하야 그쓰러지는 主棟을 바로 붓들어 誠과力을 다하야 盤援維持하기를 새해를 마지하야 再次絕叫하는바이다。

(大邱支局 一記者)

師範學校設置에 府民의力量集中

달리는말에채질하는格으로 府民의最後奮發要望

【全州】 丙子年을마지함에 當하야 過去全州社會가 要望中 아직도解決의 曙光이보이지아니한 幾個의重要問題를들추워 본다면 公會堂建築과 師範學校 設置等等으로 數年間 全州府民의 前記事業成就에 努力이란 實로 莫大하엿다 其中에도 四萬府民의 異口同音으로 웨치는소리는 公會堂新築도 目前에 노여잇는 急先務인 不可缺한問題이요 도저히 等閑視하지못할것은 勿論이려니와 어느때에든지 時日問題는 잇슬지언정 新築의 實現은 明若觀火한 事實이며 他地方과의 競爭的으로 早解決하여야겟다는點은 업스나 師範學校設置 이一問題만은 隣接他道의設置에對한 位置競爭도 업지아니하며 또는 長久한 時日을 두고 持久的運動을 繼續할바도 못된다 卽今年度豫算期內로 其設置決定態度를 學務當局으로부터 밧지아니치못할 切實한急務이다

全州의 都市的價值로서나 全州今後發展上으로보드래도 師範學校는 全州에 設立치아니치못할 教育機關인만큼 實로 其設置如否에따라 飛躍的 大全州建設의 運命을 左右할것이다 그리하야 昨秋以來 全州府民은 全府師範學校設置에 對하야만 沒頭하는중 一萬餘坪의 實習地買收問題와 六十餘萬圓의 工費로 校舍 及寄宿舍、新築準備로 機敏的 活躍을 하여왓다 勿論湖南線을 中心으로 師範學校設置後補地에 對하야는 爲政當局者의 大局的見地에서 불지라도 其位置만은 全州를 除하다면 갈곳이업스며 方今 府民中 印昌桓氏는 去年 十二月十四日附로서 氏의 方今經營中인曙町에잇는 果樹園 六千八百餘坪 時價 一萬餘圓의 巨大한金額의 土地를 師範學校 實習地로서 無償提供하엿스며 其他 府民中에도 師範學校 設置에對한 物質的後援도 豫想以上의 好成績을 보리라고 推測 하는바이나 한거름더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地方的으로 絕大必要타고 할만한 機關을 設置運動할때에는 우리가 버저取할바 卽 物質과 精神에 對하야 熱과 誠을 完全히 結晶식힌후 其要望을 當局에提出한다하면 其達成効果가 엇지水泡에歸할가보냐？ 全州府民諸氏여！覺醒할지어다

今番 本師範學校가 全州에設立되게되다하면 全北教育界를 爲하야 퍽으나 慶賀를 마지아니할과 同時에 끗끗으로 바래나니 同校가 實現 될때까지는 現在師範學校設立委員外 全州府民은一致協力하야 最善의 努力을앗기지말지어다 （全州支局一記者）

悲運에빠진 幼稚園復活促成

【楚山】 兒童의 保育機關인 幼稚園의 存在가 必要함은筆者로서 贅言할餘地가업다 楚山地方은 鴨綠江沿岸에서 第三位를占領한 五千餘名의 人口를 抱擁한 都市로서一個所의 幼稚園을支持치못한다는것은地方으로서의 큰恥辱이라고 안할수업다 昭和七年春期에靑年某氏의 熱烈한 活動과努力으로 楚山幼稚園設置期成會를 組織하고 半個星霜間 不斷의 誠力과耶蘇教의協力을바더 同年九月分에 開園式을보게될때 一般의企待는 非常히컷든것이다 그러나 基礎가貧弱한관계로 園舍하나도 完築치못하고 僅僅히耶蘇教禮拜堂을 使用하면서 六十餘名의 園兒를保育하여오든바 昨年冬期休園以後耶蘇教禮拜堂을 新築키로 決定되자 園舍가업다는 口實下에서 廢園의悲運에빠진其後 有耶無耶로楚山幼稚園의 그림자는 사러지고저한다

十名內外의 就學兒童만잇다면 學校를 無難히設置하고 第二國民養成에 沒頭하는 남의것에서 이만한 保養機關一個所를 維持치못한다는것은 最高로 大羞恥인同時에 人士의健在를 疑心치아니할수업다고 筆者는 明言하기를 꺼리지안는바이다

아무리 貧弱한 地方이라할지라도 熱誠만잇다면 엇지 幼稚園一個所쯤이야 維持못하리요？ 完全한 園舍를 가자고 꾸준히나아 간다면 入園兒童은 적어도 百餘名은 不下할것이다이 百餘名 園兒에게서 나는 收入을 除하고나면 不足經費라고는 不過百內某酒場에서 一個年의 消費로 納入한 稅金의 半額인 五千圓假量의 基本資産만 잇다면 넉넉할것이다 이미 楚山幼稚園을 經營하시든 幹部諸氏는 勿論 社會有志人士여！ 楚山幼稚園促成을 絕叫하여마지아니하나이다。（楚山支局一記者）

雪松崔圭祥氏試毫

總力量을集中하야 中等校設立務急

統一的運動을이르키자

【木浦】 木浦地方 朝鮮人社會에 가로노인 中等學校 設立案은 이해나저해나하고 끌고온지가 벌서十數年이 지내섯다 이懸案의 解決의열쇠는 엇던一個人의 힘에서만 求할것이아니라 우리는 엇던統制잇는 統一的 運動機關을 結成하야써 우리의 적은힘이라도한곳에 뭉처가지고 目的 達成에 邁進하여야한다면 中學校 一校의設立쯤은 벌서 그實現을 보아슬지도몰을것이다

最近木浦地方은 무슨會 무슨俱樂部等이 이미發會式을 告한것도잇고 或은準備工作中에 잇다는 消息은반가운 消息이라고 안이할수업다 좀더大局的으로各階各級의 人物을 網羅하야 總力量을 集中할機關잇는 團體를 組織하야 힘차게 朝鮮人利益과 向上을 爲하야 奮鬪를하는一方 中等教育機關設立에 立脚하야基礎工作에 進行한다하면 民衆의 信任이 集中되여 四面에應援은 勿論이오 엇던篤志家도 업지아니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地方의 緊急問題인 中等校設立問題의 解決도 그리 어렵지 아니할것이라고 밋는다 木浦人士여！우리는 分散에서集團으로 적은힘을 모아가지고우리의 目的達成에 邁進하기를新年을 마지하면서 一言코저한다 （木浦支局一記者）

唯一한女子中學 保聖女校昇格促進

宜川人士의奮奮를促

【宜川】 朝鮮어느地方을 勿論하고 女子教育이 理解及必要가 逐年其度를 加함에따라 漸次 女高普設置의 必要를 切實히 느끼게되는 이때 더욱 우리 平北地方에 잇서서는 尙今 一個의 女高普도업스므로 멀니 平壤이나 京城으로 留學를 가게되며 또한 留學을가게되는데 보낸 學父兄들은 여러가지로 安心치못하게되는것은 貴한 딸子息을둔 學父兄들이 共通한 느낄것이며 그나마 貧弱한 經濟로 말미아마 外地留學을 꿈도못꾸게하는 그들의 向學熱을 愛惜히도 抑制시키는 悲劇도 또한얼마나 만흔가？그러므로서 多年間이를 問題삼아 平北各處에서는 女高普設置期成會를 組織하여 猛烈한活動을 하여오든中 其結果을 終始道廳 所在地라는 利點으로 新義州에歸結되고 말엇다 女高普가 新義州에 設置케됨을 따라 다시금 一次 生覺하여 보건대 平北에 아무리、女高普를 設置할、財源가 업다고 할지라도 京義線의 最終點이요 滿鮮의 都市라는 明名을 듯고잇는 國境地方인 新義州에 하필朝鮮의 善良한 딸들을 기루려함은 어떠한 理由이뇨！ 조곰이라도 生覺이잇고、判斷力이 잇는사람이라면 누구를 勿論하고 自己의딸을 사랑스러운 따님을 繁華의 都市요 國境地方인 新義州에 보내고십지는 안흐리라고 生覺된다 따라 우리地方에서도 女高普設置期成會까지 잇섯거든 엇지 이러한 事實을 默過하고 잇섯는지 一次反問하고십다！

그러나 過去之事는 過去之事로 밀우고 이제우리의 當面한 問題는 아무리보와도 平北의中央地帶요 交通의中心地인 宜川더욱이 新興文化都市요 거룩한 聖地라고、別名까지 듯고잇는、우리宜川에 天眞爛漫하고貴한 우리네딸들이 뛰놀기에 얼마나 適合한곳이냐？그러면 우리宜川에 잇서서、過去에 긴歷史를가지고 잇스며數만흔 우리의 어머니를 길너준 保聖女學校를 한번 復興시키여 完全한 中等女學校로 만드러봄이어떠하냐 過去에 잇서서는 完全한 中等學校의 程度를 가지고잇든 保聖女學校는新教育令에依하야 비록 高等科、二年制로 되엿스나 只今 學校當局者의 熱誠과 地方有志諸氏의 힘과 情誠으로 今年四月부터 三年制로 延長까지되엿스며 머지안은 將來에 完全한 中等女學校實現에 促進키爲하야 現下努力中에 잇슴은 벌서부터地方有志諸氏가 다아는 事實이다 그러면 우리의 거룩한 聖地인 宜川에 우리의 딸들을 우리의 손과우리의힘으로 기르며 가라치기爲하야 우리는 힘과 熱誠을다하며 우리네딸들을 外地로 遊學을 하지말고 우리宜川에 理想的 女中學校를 實現키爲하야宜川의 資產家、有志들은關合하야努力과 熱誠을 다하며 힘과 物質을 한데 合하야一九三六年을 마지하는 새해부터 큰소래를 지르며 實現促進에 旗幟를 날니기바란다

初等教育問題에 좀더努力必要

【江西】 우리 江西는 北朝鮮의 唯一한 小邑으로 平壤을 山을 背하고 南으로는 江西平野에 大同江支流가 그中央을通하야灌漑에利用이多大한名邑으로써 戶數로는 千餘戶를가지고잇다 그러한 이곳에서教育機關으로는 오직 普校와 私立靑年校가잇슬뿐으로 나날이增加하는人口를따라 學齡兒童의數도 해마다늘어 現在의機關으로도저히收容할수업서 아모東西도分別못하는어린아이들에게 入學試驗制를 實施하는 悲慘한狀態이다 그리하야 入學의幸運을엇지못한 남어지多數의 兒童들은 배움을이업서 街頭에헤매게되니 이는果然 누구의責任일것인가？江西邑普校當局과 江西郡有志여 하로밧비 무슨方法으로던지 初等教育機關을 擴充하야 第二世의 무서운 文盲退治에 努力 努力하기를바 란다（江西支局一記者）

幼稚園設立은 今年內實現하자

【金海】 一九三六年새해를 마지한 金海의緊急問題는金海는 古駕洛國王都地일뿐아니라 今日에도 人口 二萬數千餘를가진 都市이다 그러나 아직一個所의幼稚園이업다는것은 地方富豪나 有志의 責任이重하다 아니할수업서敢히 一言코저한다 아직우리네家庭에서充分한 保育을 할수업는境地에 잇는것만큼 버린 이를 指導할 保育機關이업다는 것은 우리들의二世保育上 크게 우갑이라고 아니할수업다 金海人士여！ 여러분의 熱과 誠意만잇다면 幼稚園一個所의設立은 그리 어렵지아니할것이다 勿論幼稚園의 外他問題로 엇지幼稚園問題뿐이리요만은 爲先이적은 幼稚園問題만이라도 今年에는 期於히 實現을 보도록 奮發하기를 新年을마지하면서 一言하는바이다 (金海支局 一記者)

蔚山地方緊急問題 甲種農校設置促進

有志의一層奮發要望

【蔚山】 우리蔚山은 二千六百餘方里의 面積에 十五萬의人口를 擁護한大郡인만치 地方問題도 또한複雜치안타 一面一校制의 完成、蔚山面이 邑으로 昇格되는것 가튼것은 발서 昔日의事에屬하거니와 最近에至하여는 太和江蔚山橋竣工、蔚山產業組合設立、東海南部線蔚山、釜山間鐵道開通、蔚山上水道通水實現等 諸要望을 接하야 多年間 宿望을 達成하고 長生浦築港問題、蔚山甲種農校設立問題만 아즉未決問題로 되여잇다 長生浦築港問題로 產業開發 地方發展上 重要한問題가 아닌것이아니나 그러나 甲種農校設置問題는 現下 農村疲弊의 現實에서 中堅人物養成、農事改良等 緊急한 가장重要한問題이다

此甲種農校設置問題에 對하여는 발서 七八年前부터 緊迫한地方民衆의 要求에依하야 旣存農業實修學校로서는 到底히滿足할수업다는것으로 期成會를 組織하고 積極的으로 運動을 繼續하여오든中이나 當局에서는 甲種農校는 一道一校制를 標榜하고 許可치 안는모양이다 그러나 三千餘萬町步의 耕地面積과 三百五十餘萬圓의 農產額、每年普校卒業生數 各都市와의 距離等의 諸條件은 오히려 甲種農校를 設置하고도 남음이 잇슬것이다。一道一校制는 무엇을根據로함인지 알수업스나 慶尚北道에는 現在 大邱와 安東의 二校가 되여잇지안흔가 그리고 大體로 모든施設은 現實的必要에 應함이 當然할것이어늘 何必 甲種農校에限하야 一道一校制만 그의根據와 理由를 解得키 困難하다 於此間 當局은 特히 洞察하는바잇서 速히 實現이잇도록 願望하는바이며 한편 地方人士에게도 一層奮發을 要하야 運動의 促進을 期코저한다 卽 엇더한 事業이든지 그의 成就를 볼때까지는 非常치안흔 努力과 犧牲을 要하나니 前記 慶北安東郡의 甲種農校設置로 말하드래도 附近七郡이 協力하야 基本金六萬圓을 募集하고 繼續運動은 하여왓스나 그는 銀行에 預金하고 一分도 消費함이업시 利子는 利子에 利子를 加하야 十三萬五千圓의 巨額으로 마츰내 目的을 達成하엿다고 한다 이얼마나 忍耐한誠熱인가 蔚山의 有志도 此에 比하면 遜色을 免치못할것이다 一層努力으로 今年에는 期於히 目的達成하기를 바라는바이다 (蔚山支局 一記者)

라이온치마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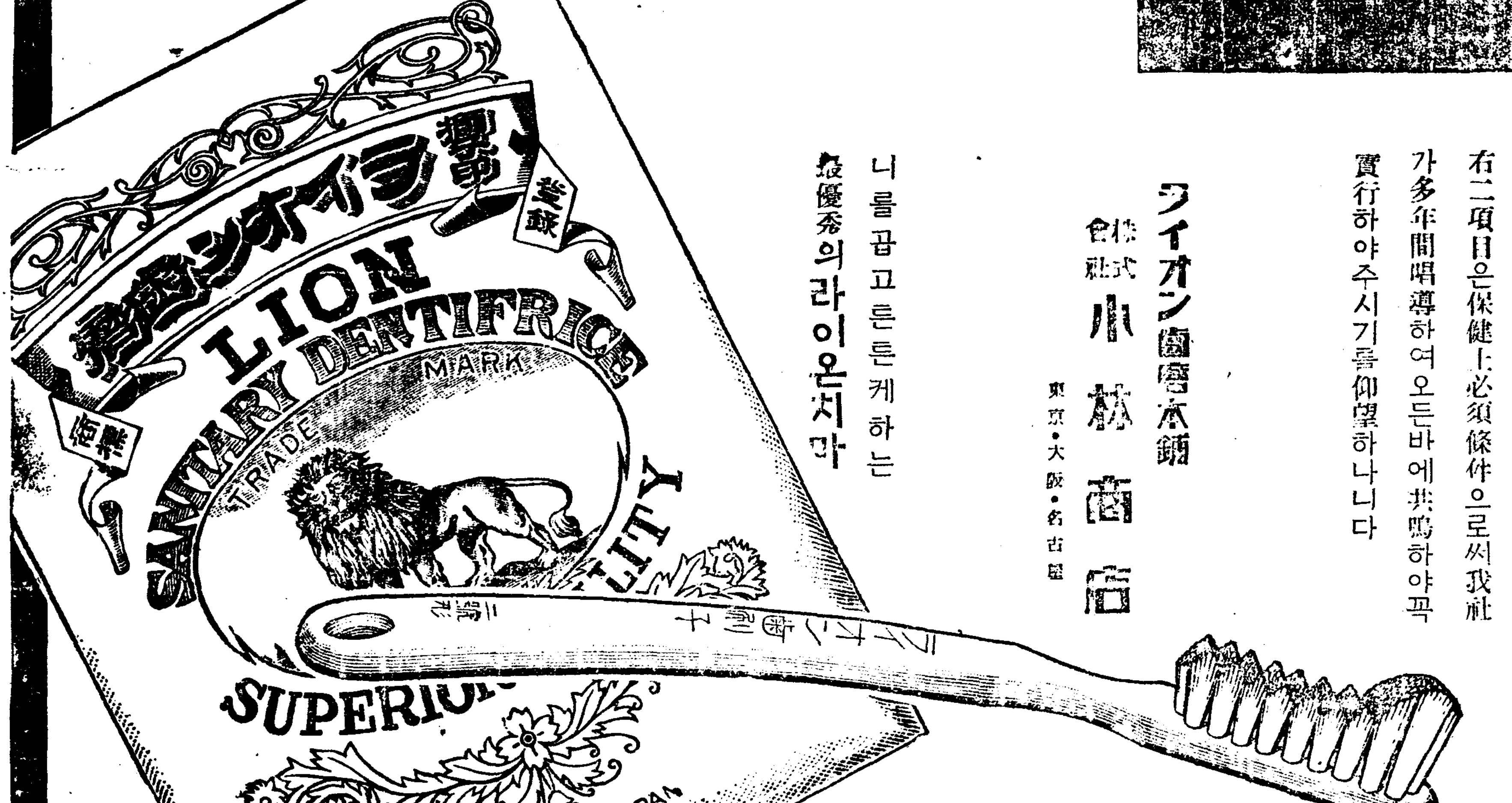
年始를當하야

四海諸位의健康을祝하고
我社製品
라이온齒磨
라이온치솔
을平素에 늘愛用하여주시든것을感
謝드리는同時
今年에는 또한府當齒牙의健康에努力
하시기를祝願하나이다

『虫齒는早期에治療할것』
『優秀한齒磨로每日니를닥글것』
右二項目은保健上必須條件으로써我社가多年間唱導하여오든바에共鳴하야꼭實行하야주시기를仰望하나이다

ライオン齒磨本舖
株式會社 小林商店
東京·大阪·名古屋

니를곱고튼튼케하는
最優秀의라이온치마



JC-1

若草映畫劇場 電本五三五四番
安くて面白い
四日より七日迄特別大公開 大衆席 二十錢均一 晝十二時半、夜六時半開始
大都映畫特作現代劇東京每夕新聞連載漫畫の映畫化 監督吉村操
お好み串差おでん 佐久間妙子、伴淳三郎、主演 藤間林太郎、島田文郎、助演
パラマウト特作全發聲日本版 アルフレッド、ワーカー監督 ジョージ、ラフトベン、バーニイ 主演
ギャング捕物大活劇 ピストルと音樂
大都映畫鳴物超作特輯連時代劇 朝鮮西工新聞連載小說の映畫化 原作 藤多鐵太郎、監督 中島寶三 阿部九州男、木下雙葉、主演
あばれ振袖お蝶 前篇
善璽 龍建太郎、春木藤子、相良傳三郎 大葛惠二郎、森野洋子、助演
剣背卷行錄ので大江戶にその名を 謳はれた遠山左エ門尉、又の名遠山の金さんの大活躍！御期待下さい

團成社
新春第一週의壯觀！ 卅一日부터四日까지五日間 每日三回 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 六時卅分
◆MGM超特作映畫 新銳월리암루뻬監督 체스타모리스主演 라이오넬빠리모어찐아서共演
男性NO一
絕對담버원의聲嘆할白眉篇迫力、凄慘、恐怖、가넘처흐르는담버원의快作이以上의G멘映畫가絕對업다는當業者들의絕讚에뭇치問題傑作品이다
◆코럼비아超大作映畫 巨匠빅터쉘데가監督 名星구레스무어主演
노래의날개
音樂豪華版이다映畫的으로音樂的으로完璧이다本年初頭壓倒的人氣를모을마한뮤직메로드라마의王座篇이다！
◆日活超特作외소타錄音映畫
佐渡情話
池田保 監督 尾上菊太郎、山田五十鈴主演
十二月卅日부터正年朝鮮映畫公開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公開 낮一時 밤七時十五分始映
大京키네마社超特作品 守一과順愛 全八卷 監督 李龜永氏 主演 李夢霞氏 金蓮實孃
綠星키네마社超大作品 社會劇 바다와싸우는사람들 監督 梁哲氏 主演 羅雄氏林齊行氏
파라마운트社特作品 喜劇 結婚商賣 全六卷 監督 후랑크타틀氏 主演 아돌푸만쥬氏

桃花劇場 鍾路桃花洞 電話三三三番
正月四日부터三日間特別興行 新年第二週特別週間 每日三回興行午前十一時午後三時同七時 大衆料金 椅子席二十五錢 階上席十五錢 階下十錢均一
新興키네마超特作品 松崎明也 監督
現代劇 國境の町
山路ふみ子 主演 東海林太郎特別 出演
레코-드界를風靡한東海林太郎主演歌謠！岡田千代子女史의麗筆共演에는岡田靜江ムランルジュ一座에人氣스타！新興精銳를選하야明朗한歌謠를象하名篇그리운故鄕을멀이떠나流浪한國境에밤거리에서일어난사랑의哀話
와ー나부라사ー스社超特作全發聲版
探偵活劇 民衆의敵
울이암와루망監督 젬ー스、캬구어ー 징ー하ー로ー 主演
犯罪都市시카코에서일어난이야기！惡漢이出沒하야民衆의若干가한두가지가안이엿다！警察이出動하야探索！活躍！戰慄한冒險探偵活劇名篇！세실B데밀메로포리당프로덕슌特作品스곳도시도니監督
喜劇 爆笑七日間
리리앙릿지 二랫동헤ー루 主演
여러분의 劇場 第一劇場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八

世界經濟現情勢 (下)

國家對立激化、國際間不安深刻 大領域經濟進展、領土分割運動

前途는戰爭? 恐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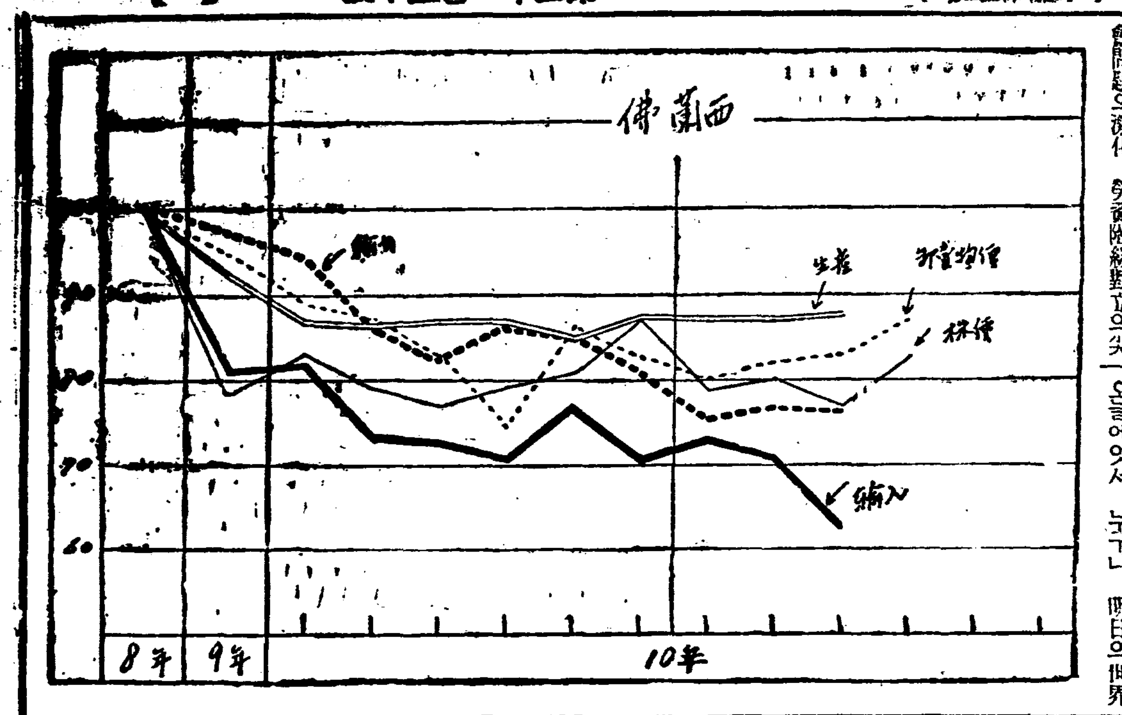
申泰翊

軍備擴張의競爭
伊에戰爭은그前哨

歐洲大戰에있서 勝戰國 即聯合國側에 加擔한나라 이엇스나 實際의勝利所得을 分配함에잇서 그配定이 英佛米에 比하야 僅少하엿든 伊太利、日本等의나라에잇서는 그에對한 不滿이 업지안헛스며 또는 벨사이유條約에 얽매여오든 獨逸의 鬱憤는 結局 英米佛等의 大領域經濟化의進展과 獨逸 伊太利等의世界再分割運動이 正面衝突을 불危機에 直面케되는同時에 그準備로 各國은 軍備擴張競爭의 深刻을 보게되엇다 特히 獨逸은 再軍備의 爆門的聲明으로써 英海空軍의 編成等 世界政局은 實로 一層混亂時代가 展開되야 將次 世界經濟는 어듸로가느냐는 課題를 重大視치안흘수、업는危機가 刻刻으로 切迫하여온다 이와가튼形勢를 보고 米國의 하우스大佐를 비롯한 世界平和論者들은 그危險을 막음에는 무엇보다도 獨逸과 日本에 새로운植民地를 떼여주는것이 가장適切한策이 될것을 提唱하는말까지 생기게되엇든것이다 그래서大領域經濟化의 發展과 世界再分割運動은 이正面衝突을 본것도 잇고 또는 압흐로 보게되라는 危機에 잇는것이 오늘에 잇서 世界經濟의 情勢이다 即 이미 그 正面衝突로 본것은 伊太利와 에디오피아兩國間의 開戰으로 이것은 亞弗利加의 英國大領域經濟化 進出과 伊太利와의 正面衝突의經濟戰으로 볼수가잇다 그리고 極東政局의不安을 함부로 觀測을 어떠한 事態를 招致케할는지 모르는恐怖的 情勢알에 잇다

資本主義의末期
將次그運命은如何

오늘의 資本主義를 가리켜서 그 第三期에 드러온지가 이미 오래되엇다고 말한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그第三期에 드러온지오래이엿다고함은 資本主義의末期에 일흔것을 意味하는것으로 오늘에잇서 그特徵이 어떠한가를보면 即 國內的으로는 永久的經濟恐慌과 그것을 基礎로한社會問題의激化、勞資階級對立의尖化及、및政治不安의 增大等이다 또 國際的으로는 各列强間의殖民地爭奪、再分配、商品市場을사고도는 必死的競爭、그로因한帝國主義戰爭의 逼迫等을 들게되다 오늘에잇서 資本主義諸國이 이미 그第三期의 구렁에 떠러저잇서 將次 第四期의 直前에 잇는것도 不遠한일이다 그러나 오늘에잇서 누구나 明日의世界經濟에對하야 自信잇는 豫見을 못가진다 이것은 달흔때문이 아니라 오늘의 世界經濟는 以上에서 말한바와 가티 世界政局의混亂과 그危機의直面으로 그動向의 갈피를 잡을道理가 茫然한때문이다 그럼으로 오늘의世界資本主義諸國前途에는 戰爭이냐 그러치안흐면 恐慌이냐 하는 두길이 노혀잇서 그中의하나를 取치안흘수업는 運命알에 잇지안흔가 생각하는바이다 (終)



年頭所感

朴興植氏 談

朝鮮의經濟界는 挽近數年間漸次隆盛히 好轉하야 諸般事業界도 活氣를띠우며 新規事業도 接踵勃興하야 財界의本格的好轉의徑路를 밟고잇는것갓다 特히昨年은 鑛山景氣에 이여서 米價地價의 騰貴로 말미아마 農村景氣도자못旺盛한狀態이며 딸아서 一般購買力도例年에比하야 良好한商況을보게되것은 우리商界의人으로서는欣幸함을 마지아니하는바이다

이와가티生覺함에 新春을맞는우리의 環境은모두가 歡喜에넘치리라 하고는잇스아니한다。오히려 好景氣는繼續되야 各業界는 더욱擴張發展할것이다。그러나 世界的不況은아즉도 明朗性을 回復치못하얏고、世界各國의 諸般動策은 一時도 그趨向의 豫斷을不許하는배잇다、만일우리가 目前에迷惑되지아니하고 安에處하야 危를忘치아니하는 態度로써、堅實히事業을 經營하면、好景氣는어느程度까지 繼續케할수잇슬것이오、反動의 到來도 또한어느程度까지 防止할수잇슬것이다。그러므로各業界는 어데까지든지着實을主旨로하야 勤儉히 新年努力하는때에 비로소 光輝잇는一九三六年이될것이다。

더욱히 우리和信의 過去一年을回顧하건대 不虞의 火災가잇슨後、東館의改築等、平壤支店의新設、連鎖店事業의擴張、西館新築起工等、多事多難한中 躍進에躍進을보게된것은 實로欣幸不堪하는바이다。今年은 西館의地上六層地下一層延坪約二千坪의 建築竣工이잇슬것이오、一方連鎖店事業도 더욱發展하고잇슴으로 近近百貨店事業과는 別個의會社로 分離할豫定이니、今年도 昨年에 못지아니한努力과 躍進을繼續하야 微力이나마 各位의厚誼에奉答할覺悟이다

農村振興과 工業의發展

韓相龍氏 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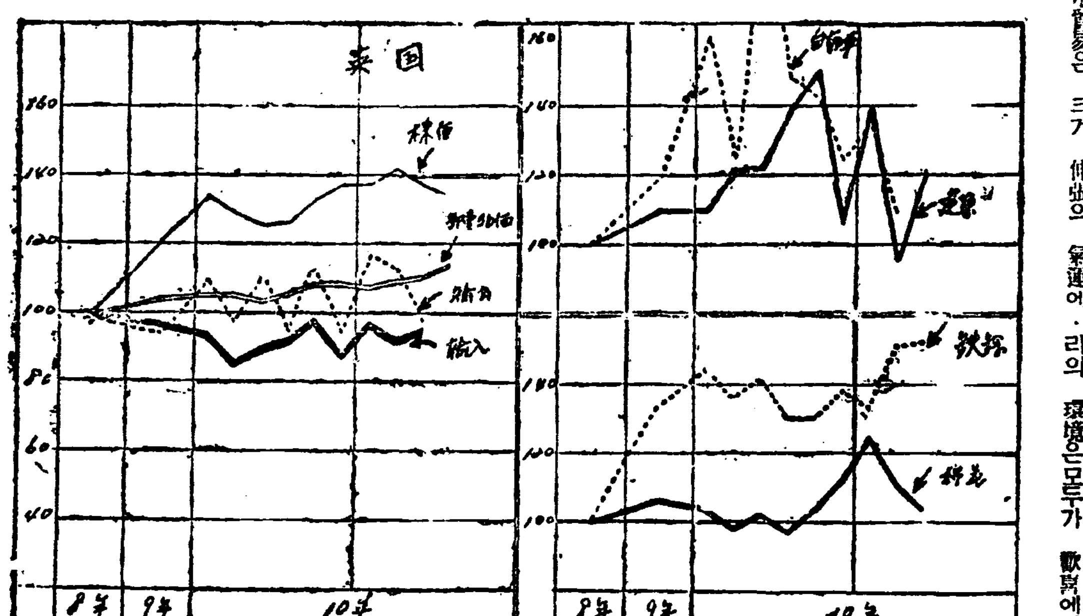
今年의 財界는어더할가함에對하야서는 나는 豫言者가아님으로 함부로 觀測을 加하고십지안다 單只 倫敦의 海軍軍縮會議、伊에紛爭、日中關係等의 重大問題가 如何히 轉變하며 如何히推移할가 그他에도 內外에 重大問題는 山積하야잇다 따라 波浪이놉고 多事多難한 해일은 疑心할것이업다 그와 同時에 大豫算의 執行에 依한 軍需工業의 隆盛、對外貿易의 一層의躍進、低金利의 徹底等에 依하야 前年보다도 活況을呈할해이라고 생각한다 議會의 形勢에依하야 政變이잇슬지나 總選擧는 明春에잇슬터이며 或은 政局에 變化를 招來할지도모른다 그러나 財政方針에는 大局的으로 變化는업슬것이다 아니 變化를 할수업스리라고생각한다 朝鮮으로서는 全面的으로 進一進 特히 農村의振興 工業界의 發展은더욱 顯著하리라고믿는다

積極進出은警戒

閔大植氏 談

昭和十一年에잇서서는 漸次 好轉하고잇는 趨勢에 繼續하야事業界는 相當이 活氣를 띨것이며 新興滿洲國의 資源開發에依한後我交易의 緊密과 相俟하야 益益 其進展이 期待다 또 北中의 時事問題의 好轉에依한 對中貿易은 크게 伸張의 氣運에 잇서 朝鮮에잇서서는 主는輸出貿易의 增進、低金利의 地方的平準化、米價高、地價昻騰에 依한듯하나 今後의景氣를 觀測하야 輸出貿易은 海外各方面의 關稅의 障壁、輸入配當制度의 實施로 자칫하면 減退되지안흘수

업고 國內…도 이에 依하야 明朗…가업지안허 內外의情勢를 보면 其前途는 樂觀을 不許한다 「그러고 인플레政策는 何時까지 持續할는지는疑問으로 原材料와 何時에 突發할는지 豫測할수업슴으로 金融의 調達은 財界의 大勢에 順應하야 適宜 이를 運用할것은 勿論이나 好景氣를 豫想하는나머지 積極的으로 進出함은 가장 注意를 要할것이니 堅實主義를 못토로 財界에 臨하면 우리의압길에는 반드시 光明이잇스리라고信한다



時代相反映
新年證券界

荒井朝取理事長談

證券界는 躍進日本의 姿態를眼前에 보고 此非常한 國力進展을 買하다는 傾向이 明白히 觀取되다 말할것도업시 株式의 市勢는單只 利廻採算만으로 上下하는것이아니고 時代의 様相을 多分히 反映하는터임은 今年도 亦 好景氣이리라고생각되다 今年은 兩三年以來 云晴되어온 所謂 一九三六年의 危機에 相當하야 倫敦海軍縮會議와 中國問題等을 中心으로 國際的으로 種種의 問題가 横하여잇고 國內的으로도 赤字財政의 整理를 비롯하야 諸多의 問題가 持越되어잇다 그러나 新興日本의 意氣는 時難을 克服하고 더욱 一大躍進을 示할것이다

一部景氣에局限

伊森朝銀副頭取 談

朝鮮經濟界의 趨勢를 보면 大體로 日本內地에 追隨한다할지라도 其特異性에 依하야 招來하는 隆替는 적지안허 近年 地下資源의 開發에 依한 鑛業은 產金熱의 勃興과함께 逐年 興隆하고 또 日本內地資金의 流入은 朝鮮工業界를 刺戟하야 大小의 工場이 到處에 出現하게되엇다 또한 米穀의 豊穰 價格의 昻騰으로 漸次景氣의 好轉을보아 朝鮮內經濟界는 顯著히 明朗하여젓다 財界는 兩地를 通하야 漸次好轉하야 一陽來復의 期가머지안흔듯이 看取되는바잇다 할지라도 仔細히 이를觀察하면 樂觀은不許하는바가잇다 即日本內地의產業殷盛繁忙도 主로軍需品及 輸出品工業의 部內에 局限되어景氣의 恢復과上昇은 아직全面的普遍的이라 할수업슬뿐만이 아니라 再昨年의 各地의 風水害旱害等의 損害에 對하야 尙今回復되지안코 또財政에 對하야볼지라도 歲計의不均衡은 依然赤字公債를 發行하고 他面 國際關係에 잇서서도 聯盟脫退以來 幾多의 危機、難問을 남기어 所謂非常時의 域을脫치못하얏다

는材料뿐인것갓호나上述한經濟界의好轉現象은 果然今後도 順理로 發展하리라고만 미들수잇슬는지우리는 잘하리 細心注意를기피하야 다음에올反動에 備함이 업서서는 아니되리라고 生覺한다 나는昭和十一年의 景氣가惡化

產業各部門躍進

有賀殖銀頭取 談

朝鮮經濟狀勢에對하야 年中의生產情況을보면 朝鮮產業은 各部門에亘하야 全面的躍進을 示하고잇다 即各種產業의 總生產額은 昭和九年의十七億圓에서 一躍二十億圓을 突破하기 五千萬圓을 豫測되고 그產業別 生產額은 農產額十二億 八千萬圓、林產額一億圓、水產額一億三千萬圓、

鑛產額 九千萬圓 及工產額四億五千萬圓으로 豫測하고잇다 右豫測計數를 同年의實績이라하고 이것과 現下躍進朝鮮經濟에 그躍進의 契機가된 滿洲事變의勃發及 金輸出再禁止가 잇슨해 即昭和六年의 生產額을 對比하면 同年의 各種產業의 總生產額은 十一億一千萬圓이오、그產業別生產額은 農產額七億圓、林產額六千萬圓、水產額 八千萬圓、鑛產額二千萬圓 及 工產額二億五千萬圓임으로 僅僅 四年間에 總生產額은 九億四千萬圓을 또 產業別生產額은 農產額五億八千萬圓、林產額四千萬圓、水產額五千萬圓、鑛產額七千萬圓 及 工產額一億圓을 增加하얏나 그리고 其增加率은 總生產額에잇서는 八割 產業別生產額에잇서는 農產額八割五分、林產額六割六分、

水產額 六割二分、鑛產額三十五割 及 工產額八割로 產業朝鮮의 飛躍의 자최를 示現하야 이르는바 產業發展의 實勢에對하야 그一端을 말하고잇다 다시 一步를 나아가 產業朝鮮에 關하야 그 朝鮮經濟의 主體인 農業은 이미 停滯되엇스니 農本朝鮮은 모름직이 工業本位의 朝鮮으로 轉換할 必要가잇다는 所謂 一種의 工業立國說을 唱道하는者가 잇스나 그 所說은 아직 充分히 研究를 要한다고생각된다 元來、農業은 他 產業에 比하야 土地가 業 그 自體에 重大한 關係가 잇슴으로 이 農業의 特質에 基하야 農民 特히 農業 經營者가 土地에 對한 執着心이 强 함이 그 共通된 特性이다 그러면 自己가 愛着하는 土地를 버리고 그生業을 他業에 轉換함은 農民이 즐겨하는바임으로

實際上 이를 實行함은 거이 不可能한 것이다 또 朝鮮의 農業은 不採算한가하면 數年前에잇서서는 不問할라도 今日의 朝鮮에 잇서서는 多角的發展으로하야 穀物以外에 養蠶、畜產 及 棉作、果樹의 栽培等도 發達하게되엇스니 이를 合理的으로 經營하면 農本主義로 나가도 採算이될것이다 그러나 朝鮮農業人口는 過多함으로 그 農業過剩人口를 工場 又는 家內工業에 吸收하야 幾分의 農村人口가 工業으로 轉化進出함에는 何等 反對할 理由가업다 그럴뿐만아니라 朝鮮은 從來 日本內地의 農產原料

供給地 及日本內地製造工業品의消費地임에 不過하얏스나 最近에잇서서는 旣述한바와가티 滿洲事變의 勃發과 金輸出再禁止以來 資源의豊富 勞銀의低廉 動力의廉價 及 地理上의 優位에 基하야 工業의 勃興을 보고잇슴은 말할것도업다 勿論 原始產業의 段階에서 漸次 高度의 文化를 意味하는 段階 即 農業的部面에서 商業的部面을 經하야 工業的部面으로 進展함은 經濟發展의 常則으로 產業朝鮮이 現在 걷고잇는 經濟發展의 方面은 이 意味에서 論理的必然이며 이에 依하야 破綻狀態에잇는 朝鮮經濟가 漸次訂正될것이니 工業朝鮮은 어데까지든지 伸長식힐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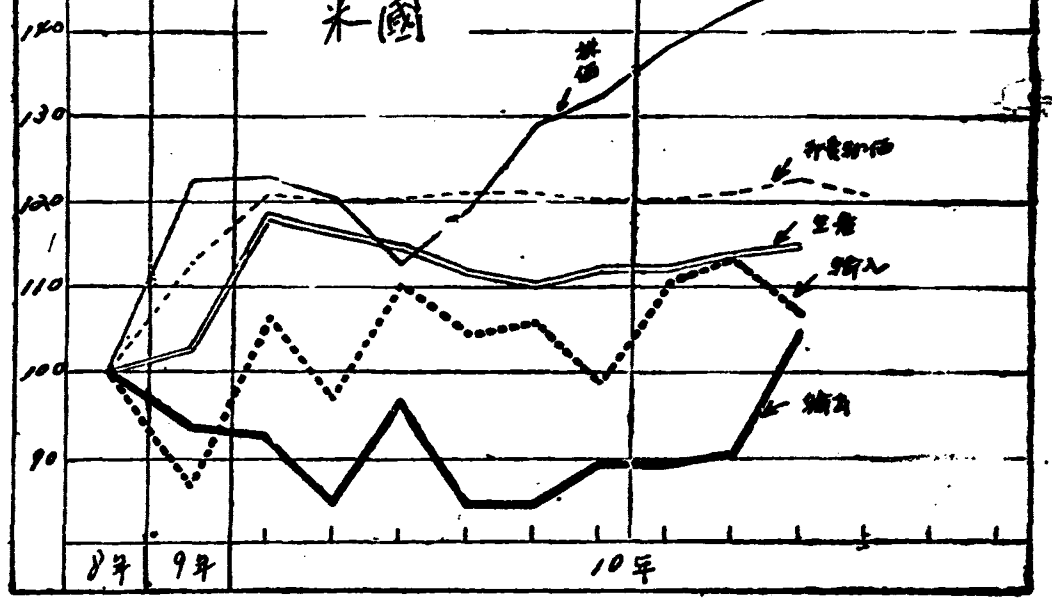
敍上으로、產業朝鮮에 잇서서는一方에 잇서 農業이工業에의轉換은 이를不許하는同時에、他方에잇서 工業의勃興에는 一層

拍車를 加할必要가잇슴으로 此等의二大產業에 잇서서는 그 어느것에나偏倚함이업시 農工竝進에依하야、產業朝鮮은 一大躍進을期할것이다。

朝鮮의 基礎產業中 農業을除한 殘餘의 林業、水產業及 鑛業에 잇서、鑛業이 近時에飛躍을 하고잇슴은 世人周知의 일이다。朝鮮鑛業 一即 朝鮮鑛業이라는 現狀에잇서 朝鮮金鑛產額中 金은 그約七割을 占하고잇스며 朝鮮에 잇서서는 金을 包含하지안흔 鑛업다고하리만치 朝鮮全土에 賦存하야잇고 現狀으로서는 金時價의 下落은 當分 잇스리라고생각되지안흠으로 朝鮮의 金生產高는 益益 增加의 趨勢에잇다 또 其他의鑛物特히 黑鉛을 首位로하는 軍需鑛物 及마네사이트 알미늄의 原鑛인 明礬石等의 稀金屬鑛物도 有望하야 鑛業朝鮮의 前途는 明朗하니 極力으로 이開發에 努力할것이다

다음에 水產業에잇서서는世界第一의 生產高의 稱이잇는 鰮을 首位로 其他漁獲物은 年年增加하는 傾向에잇슴에 加하야 最近에잇서서는 從前의日本內地方面外에 새로

滿洲國 方面에 販路의 開拓이 豫想되는等으로 勃興의氣運이充滿하다



土改事業中止와그實績
銀行資金本位인 低利資金의內幕

② 洪鍾仁

四、資金의運用

事業資金에 關하여서는 前項에서도 略述한바 잇거니와 所要總資金二億八千五百三十三萬四千圓中 國庫補助의 六千五百七萬圓과 企業者調達資金二千二百六萬七千圓을 控除한 殘額 一億九千八百十九萬七千圓은 低利資金으로 融通한다는 것인데、以上三種으로 區別된 資金의性質과 支出方法에 對한 說明이 極히 必要하다、

理由는 總督府土地改良事業計劃上 一種의植民地的 特殊性이 包含되엇이라고 볼수잇는것이기때문이다 即

(一) 國庫補助는 本事業이 國家的使命을 가젓다는 點에서 事業의 性質을가려서 事業費를 補助하는것인데、一、灌漑改善에는 二割 二、地目變換에는 二割五分 三、開墾에는 三割 四、干拓에는 五割(昭和四年度以前는 六割)의補助를 한다는것이다、이것을 한거름 더듬어가 說明하면 國庫補助를하되 水利組合이나 個人또는 會社等의所謂企業者의 經營에 依한것이나를 勿論하고以上의規定에 依하여 國庫補助를 한다는것인데、現在 水利組合을보면 昭和八年末까지의 百九十五個所는 모다 灌漑나 排水를 目的한것이어서 그補助額은 二割程度이나、開墾또는干拓은 모다가

個人또는 營利會社의經營에 依한것으로 그補助額은 三割乃至 五割로되여 잇서、補助의 實際上結果로보면 多數農業을主로한 企業體인 水利組合보다 企業家(資本家)本位인 營利企業體에 國家補助의 利益이 더만흠을 볼수잇스니、이것도 國家補助의 目標가 農民經濟를 主眼으로 하는것보다는 事實本位로 거우러젓슴을 볼수잇는것이다

(二) 企業者調達資金이란 것은 個人이나 會社가 事業目的物에 投資하는 自己資金을 稱함이고

(三) 다음에는 低利資金이란것인데

土地改良事業總所要資金의 約六割을 占領하는 一億九千八百萬圓 으로 이야말로 極히 微妙한 內容을가진 植民地的役割을 하는것이다、이低利資金은 二種의 資金이 配合되는것 인데 그하나는 大藏省預金部에서 融通되는것과 또 하나는 朝鮮開發의 特殊使命을 가진 東洋拓殖會社及 殖產銀行의 資金이다、그리하여 低利資金은大藏省預金部에서 引入하는 數와 同額으로 前記兩會社의資金을 配合하여 水利組合에 限하여 貸出되는것이다 이에前記와가티 兩種의資金을 配合하여 貸出하게되며 當然히問題되는것은 利息의 配合이다、이것을 다시 解剖하기爲하여 事業當初의利率關係를 說明하면 아래와갓다、即 預金部資金의年利五分九厘에 銀行會社資金(普通資金이라함)의金利八分九厘를合하여 平均利率七分四厘로 前記銀行會社를 通하여 貸出하엿든데 이것을 다시살피면 本是 預金部資金을 引入할時는五分一厘이엇고、普通資金은七分七厘의

社債에依하여 調達되는것이엇스니 그間의利鞘는 預金部資金에八厘、普通資金에 一分二厘가 생기게되여 이를平均하면 貸出銀行會社는 一分의 利鞘를얻게되는것 이다。이것을 다시昭和八年의 例로본다면 其間金融界變動으로 利率이 低下는 되엇스나 前記銀行會社가 取得하는 利鞘는 一分六厘로 오히려 六厘가 더머러잇다는 怪現象은 아래의 表에 依하여 더욱明瞭하며 또 이러한 低利資金의 融通方式은 日本內地의 土地改良事業에서는 차저볼수도 업는것이다 이리하여 資金運用의 結果는 一段 農土를 殖銀과 東拓에 國家事業의 名義下에 典執하되 多數企業者인 水利組合員 即 農民은 事業上 極窮地에 빠저 잇다하여도 銀行會社만은 이모양으로 安全地帶에 잇서 特殊使命을 다하고 잇는것이다。(此項은 土地改良資金金利及利鞘異動對照表參照)(續)

◇土地改良資金金利及利鞘異動對照表

區分	比率	調達金利	貸出金利	利鞘	利鞘增加率
	分	分	分	分	分
大正十五年事業當初計畫					
預金部資金	五〇	五・一	五・九	〇・八	
普通資金	五〇	七・七	八・九	一・二	
平均	一〇〇	六・四	七・四	一・〇	
昭和八年度現在					
預金部資金	五〇	三・九	四・七	〇・八	―
普通資金	五〇	五・五	七・九	二・四	一・二
平均	一〇〇	四・七	六・三	一・六	〇・六

恭賀新春

唐津

瑞山郡貞美面余美里 柳承魯
調織市木 和洋雜貨 貞美面天宜市 南昌商會
石門面 印謹植
石門面 印護植
唐津蓮島 三中精米所 李仲烈
唐津精米所 印雲植
本社唐津支局顧問 印仲植
本社唐津支局顧問 安洙京
唐津郡松嶽面 職員一同
唐津邑內 互助會
唐津石門消防組 組頭 文成玉
唐津石門面三峰里 金錫達
貞美面天宜市 芝山醫院 鄭在善
忠南瑞山郡貞美面天宜市 和信連鎖店 天宜商店
唐津松山面美谷里 崔柄稷
唐津松山面道門里 洪瑋裕

000035

唐津郡松山面 職員一同
忠南唐津郡機池市 調織物 和洋雜貨 永信商會 主 姜周永
唐津邑內 鄭行牧自轉車舖
唐津邑內 唐津食堂
石門面 金聖億
唐津石門面三峰里 印章植
唐津郡石門面三花里 精米業 印綬煥

石門面長 金載經
唐津郡石門面三花里 印喆植
貞美面長 徐廷哲
忠南瑞山郡天宜市 華永商店 主 尹華成
貞美面天宜市 春興旅館 柳競魯
瑞山郡貞美面槐所里 張圭煥
瑞山貞美警察官駐在所 木村正雄
唐津郡松山面長 李璥
松嶽面機池市里 中和醫院 醫師 金聖培
松嶽面機池市 菊露釀造場
唐津高大釀造場 孫建學
唐津三日市 德信商會
唐津郡高大面長項里 朴璜圭
唐津高大面長 孫成鉉
唐津邑內 延安醫院院長 宋翊善
朝鮮忠南唐津邑 永信洋服店
忠南唐津邑內 司法書士李奎冕事務所
忠南唐津郡邑內 司法書士李健永事務所
忠清南道唐津郡唐津面邑內里 司法書士金東善事務所
司法書士曺寅煥
日月釀造場 元容泰
唐津邑內 朝鮮料理 泰平館
貞美面天宜市 天宜旅館 南建熙

農城

渼川面長 具命書
シンガーミシン會社唐津分店 李海成
唐津松山面上巨里 李德華
瑞山天宜市 永和興
唐津郡高大面龍頭里 申鼎均
咸鏡線業億驛前 穀物貿易商 九一商會支店 本店城津旭町 電話一一九番
城津郡鶴上面松興溫泉 內湯旅館 靜養館
咸鏡線農城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農城代行營業所
咸鏡線農城驛前 燒酒製造元穀物貿易 城興酒造合名會社
咸鏡線農城驛前 城峴飲食店組合販賣部 許仁炫
咸鏡線農城驛前 綢緞布木 協同商會
城津郡鶴上面 職員一同
咸鏡線農城驛前 綢緞布木 洋靴 商 崔林植
咸鏡線業億驛前 鶴西醫院 金相勳
城津鶴西面職員一同
城津郡鶴中面臨溟市 海星酒造合名會社
城津郡鶴上面松興溫泉 端川旅館 主 金基喆
咸鏡線農城驛前 食料品及木炭販賣 金洙珍
咸鏡線農城驛前 藥行醫院 李鉉泰
咸鏡線業億驛前 食料品雜貨商 京城商店 主 金俊興
朝鮮咸鏡線業億驛前 海陸物產委託販賣 貨物取扱 內外運輸業 ㊍荷主運輸組
城津郡鶴上面長 趙重鼎
城津郡鶴中面臨溟市 金聖瑀
城津郡鶴中面臨溟金融組合 理事 鄭元鳳
城津郡鶴中面臨溟市 臨溟金融組合 李杜鐸
城津郡鶴上面松興溫泉 松興旅館 主 安昌璽
城津郡鶴上面松興溫泉 海東旅館 主 方東八

朝鮮三大景氣打診

土地、鑛山、米價高로 表面에나타난活況
裏面은果然어떠하냐

土地篇 李健赫
鑛業篇 張元俊
米價篇 崔晋夏

新年朝鮮은 表面에나타난 數字로보아 日土地景氣、日鑛業景氣、日米價高景氣、日工業景氣等을 들수잇는데 工業景氣만은 다른것도 그러치만 特히 外來大資本의 進出에 依한것으로 朝鮮人의 事業이라고는 거의볼만한것이업슴으로 이에는土地、鑛業、米價、所謂三大景氣에 對하야 지금까지얼마나 活況을呈하얏스며 그것이 朝鮮人에게 무엇을주엇고압흐로 어떠한코ー스를밟어서 그波紋되는바 影響이 어떠할가 三部門으로 난우어 回顧와 展望을草하야 參考에供코저한다

土地價格暴騰!
朝鮮人에게富를增進하얏나
續騰은疑問、警戒時代

全朝鮮的으로 畓、田및市街地의 昂騰은 자못顯著한것이잇서 아즉도農業經濟에依存하는 朝鮮에 잇서서는 看過치못할 重要現象으로서 이제 土地가얼마나올랏스며 土地昻騰으로因하야 어떠한影響이잇섯스며 新年에도 이土地景氣가滿續될것인가 概括的으로 살펴보기로하자!

耕地

耕地賣買價格을 百坪을 單位로하고 期間은 昭和九年七月부터 昭和十年六月까지의것을 昭和十年分으로하며 賣買價格은 耕地賣買가가장旺盛한 舊正月前後부터五月頃까지의賣買를 主로하며 其他의時期의것을 斟酌하야 査定할것으로서 中等畓田의 百坪當 全朝鮮平均은 畓이四十三圓 田이 十五圓으로서 畓、田이얼마나올랏느냐하면 昭和三年以來의調査에依하면 昭和六年이 最低로서 爾來昂騰步調를 取하야 오다가 十年에는 그騰幅이커서 六年에比하면 畓은 五割 田은 五割五分强 昭和四年의 高價를肉迫하얏다 이제畓田의耕地가왜올랏는가하면 그原因을 들로 大別할수잇스니 하나는『인프레金』景氣란 一般的影響에依한것이오 또하나는 米價高라는 不可分의 直接影響에因한것으로서 九年十月下旬부터시작한 騰勢가 十年七月에까지繼續된것이다.

耕地價格을 말함에잇서 一般的影響인 인프레金 關係를 綜合한 物價와 直接的影響인 米價關係를 示하는 正租價格과의三者는 그騰落이 平行線으로 正比例하고잇슴은 左表에 依하야 明瞭히알수잇다●

耕地賣買價格累年對照表

	畓	田	正租	物價指數
昭和三年	四七圓	一八圓	一三圓〇九錢	一三七
同四年	四五圓	一六圓	一二圓六八錢	一三三
同五年	三八圓	一四圓	一二圓〇五錢	一二六
同六年	二七圓	一〇圓	八圓〇二錢	一〇〇
同七年	二八圓	一〇圓	八圓七三錢	九〇
同八年	三〇圓	一一圓	九圓一四錢	九八
同九年	三五圓	一二圓	九圓四〇錢	一〇一
同十年	四三圓	一五圓	一二圓二七錢	一〇九

【備考】(一) 畓田의 賣買價格은中等畓田의 百坪當全朝鮮平均
(二) 正租價는 仁川商工會議所調査에依한 中等正租一石(一七〇斤換算)當年平均市勢
(三) 物價指數는 朝鮮銀行調査에依한 京城重要物價 指數로서 昭和六年度를 一〇〇으로한것

以上表示에依하야 耕地價가 正租價格騰落에 依하야 直接으로 左右될을 알수잇고 一般景氣(物價)表示에如何에依하야는 感受性이 적은것을알수잇다。

即 九年의物價指數는 一〇一인데 十年은 一〇九로 八分의 微騰이나 正租價格은 九年中에 九圓四十錢이던것이 十年은 十二圓二十七錢으로 三割强의 暴騰이엇기때문에 畓은九年에三十五圓이던것이 十年은 四十三圓으로 二割三分의 昻高이오 田은 九年에 十二圓이던것이 十年은十五圓으로 二割五分의 暴騰을輸出한것이다。

市街地

그다음 市街地關係를보면 市街地는 統計數字가업서 詳述할수업스나 大體에잇서 亦是 昭和六年서부터 賣買價格이 昂騰키始한것이라던가 그時期에잇서 九年秋부터 十年春頃에 亘하야 올른것은 모다耕地와다름이업스나 昂騰原因에잇서서는 인프레、米價高外에 特殊한關係가 添加하얏스니 그는即滿洲關係에잇서 朝鮮이 工業地帶로서 登場된때문이 크게作用함을 이저서는안된다.

滿洲國建國以來 日本內地의各事業이 滿洲國內에서 勃興되어氣運이잇섯스나 여러가지 關係에잇서 滿洲와距離가가까웁고 모든工業條件이 有利한 朝鮮에 工場을 新設擴張하게된때문에 工業的都市化함에따러 市街地의騰貴를 招致케되엇것이다

그러나 市街地昂騰은 耕地昂騰과 가티普遍的、全般的이라할수업고 工業的色彩가업는 都市例하면 群山가튼곳은 올느지안는곳도 잇스나 京城가튼곳은 大體에잇서 昭和六年에 比하야 四割高는 틀림업는모양이엇스니 南大門通은 普通坪當五百圓이던것이 七百圓內外로되엇고 郊外는 場所에依하야 相異한 騰貴의 勢를보이엇다.

即市街地는 農業的都市는 騰勢가鈍하얏고 工業的都市는 投機的色彩로 騰勢가 顯著하얏다

影響

以上과가티 土地價格이 暴騰됨에依하야 朝鮮人의 影響이 어떠하얏는가? 中小地主層에게 價格이올른만큼의 富를增進식히엇는가는 자못疑問에 屬한다。所有名義가잇다드래도 大多數의中小地主는 金融組合 銀行等金融機關에 抵當權을 設定하고빗을사람이비록統計的으로 퍼센테ー지를 따질수는 업슬지언정抽象的으로라도 相當히만흔 數字를 示하고잇슴을 否認할수업는限 土地價格暴騰에 依하야 積極的으로富를增大케 하얏다할수 업슬것이다.

이土地暴騰의 好響을 그대로享受한것은 大資本農業投資會社와其他個人大地主이나 金組、銀行等에도 絶大한業績內容充實을圖하얏섯스니 그는即 不動産擔保의不良貸付가 意外로 良好히整理된것이다.

殖銀、東拓을 비롯하야普通銀行및 金組에서 永年不良固定貸로 되어끌지를 알코 억지로損益計算書를 꿈여作成하던 苦痛에서 解放케된것은 十年春節의不動産高價處分에因한것이니 全體를 通해보면 處分益이 巨額에 達하얏슬것이다.

그럼으로 이런 金融機關의債務者이던 中小地主層은 비록富의增進은 되지못하얏스나 얼는處分도되고 졸녀내려오던 빗을 淸算할 조흔機會는 되엇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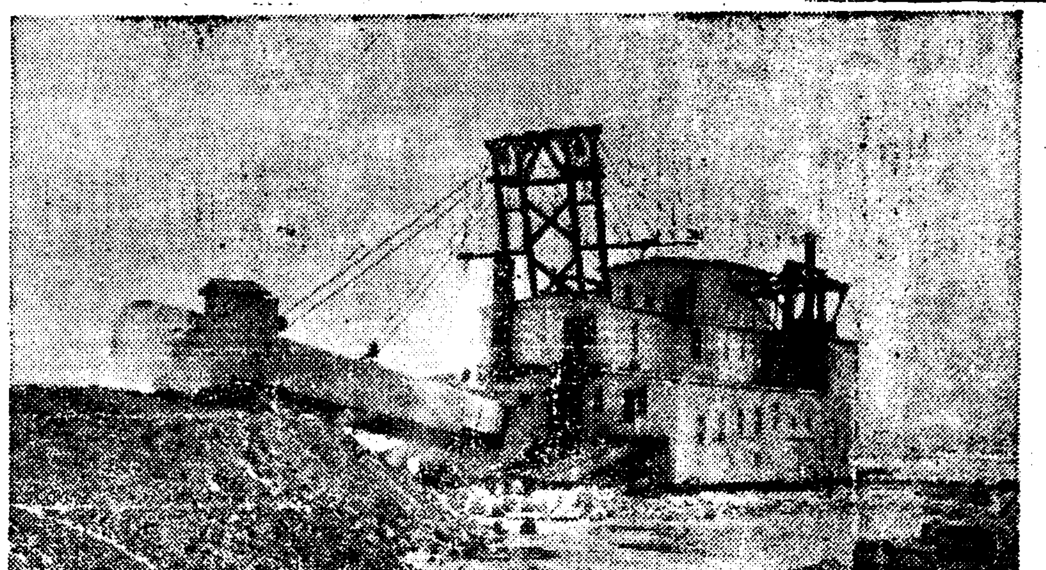
市街地關係에 잇서서는 堅實한 騰勢가아니오 散機的部分的이오 또 投機賣買가 만엇기때문에 巨利를 得한사람이잇는反面에는 뿌로커에게 속아 損失본사람도 만엇섯다.

展望

그러면 新年에도 이土地騰貴가 繼續될것인가? 이것이 關心을가지게하는 原因인데 大體로 論하면 十年의 高價로서 絶頂에 가까웟던것이 아닌가한다.

첫재 耕地에잇서서는 騰落의主因이 米價動向에 잇는지라 米價에對한 正確한 推測이서기까지는 急激한 反落이 업슬것인同時에 價格도疑問이라겟다. 米穀界에잇서 需給狀態、米穀自治管理案議會 通過與否에 依한影響等으로 米價의 前途가 어떠할것을 注視할必要가 잇는데 不動産貸付를 主로하는 殖銀가튼데서는 新規貸出에잇서 그鑑定의水準을 낫추이고 벌서警戒的態度를取코잇슴을보면 무러대고土地景氣의 續騰을 밋을수업슬것이다

둘재 市街地關係에잇서는 米價動向=如何보다는 그場所그場所의 特殊한關係即工場地帶로되느냐 안되느냐에依한 投機的賣買가 新年에入하야도 大資本進出이 [illegible] 續行하야 相當[illegible]



三菱經營의金堤砂金鑛浚渫船

米價波瀾裡騰貴
朝鮮經濟를支配하는米價事情
大體로高價維持可能?

米穀이란 一日이라도 우리의日常生活에 떠나지못할重要商品으로서 對內對外의經濟事情과 隨時變遷되는 一般的物價指數에도 多大한 連鎖的關係를가지고잇거니와 무엇보다도 直接關係를가진 需給狀態即米의 數字如何가 大勢를 左右하게되는것이다

過去 乙亥年은 日本內地米作의 三十年以來에 처음되는 大凶作의 年으로서 米價의値幅은 仁川先物을 標準으로하야 三百五十丁밧게아니되엿스나 騰落의 波瀾은 자못激甚하야 投機師와 中國商人又는까지 活躍을 하여왓섯다 압호로의 丙子年米價는 또한 如何할모양인가? 只今으로부터 六十年前丙子는 朝鮮有史以來의大凶作으로 今日에至하기까지 丙子年이라하면 누구나 凶作을聯想하게되며 따라서 六十年前凶作을또만나지나안흘가하야 丙子年을 마지하는 今日에自然傳統的의한話題꺼리가되엇다 그러나丙子年이라고 반드시 凶作될理가업스며 또凶作이된다 할지라도 此는 偶然의일일것이다 實로豫斷키難한 豊凶問題는 未知數에 [illegible]經濟大勢와 昭和十年度産米의現實數字를 土臺로하야

米價 의趨移如何를 打診하는것이 原則的일것이다 그러고日本商品으로서의 滿洲와如한 消費市場을 어든後부터 事業熱이 膨脹하여지며모든工場이 進出되어 産業의 發展을 보게되며 又는 地價의 昂騰을비롯하야 諸物價의 騰貴함을보던 一般經濟의 趨勢가 얼마큼好轉되엿슴을 如實히 알수잇스며 從하야 모든物價가 찰아리一步라도 向上될지언정 當分低落할 兆朕이 업슴으로 米價亦 果然低落을 告할理가 업슬것이다 그러고 米穀의 需給狀態로본다 할지라도 米穀統制法을 適用하는政府가 發表한昭和十年度 産米의 新公定價格을보면最低公定價는 二十四圓八十錢인前年보다 五十錢을 引上하고 最高公定價格은 三十三圓二十錢인 前年보다 一圓七十錢의引上을하엿다 實로生産者에對하야는 生産費에依한 最低價格을米統法의

規定 그대로 適用하면서 消費者에對하야는旣히設定된家計費調査를 四年이나 經하기까지 實施하지안코 最高公定米價를 一圓七十錢이나 引上하야 消費者로하야금 不利不安의 地位에 陷케하야 家計米價의 至文化에 露하게함은 要컨대 政府가 前年의 米價가 最高公定價를 突破하엿슴에 鑑하야 此를 引上하지안코는 今後米價의 昂騰으로 統制法의 破綻을 見하기가 十常八九임으로 豫期하고 多少라도 價格을 高히하야 그公定價의 突破될 機會를 緩和케하려는 即米穀統制法의 救濟策이라하지안흘수업다 그러나 數年來의 米價는 모든環境으로보아서 當然히 暴騰할 餘力이잇슴에도 公定價의 威壓으로 容易히 그高價를 上廻하지못하엿든만큼 公定價를 引上하는대로米價가 딸아올을것을 足히알수잇스며 從하야 本年은 前年보다의 一圓七十錢程度의 高米價를

維持 할수잇는해라 할수잇다 그러나 一考를 要할것은 昭和十年度는 日本內地米實收高 五千百八十三萬 九千六百 二十九石과 朝鮮米의 移出九百萬餘石 臺灣米의 移入百四十七萬七千百七十石 及日本內地의 持越米 一千三百餘萬石 合計七千八百三十一萬七千餘石으로 堂島先物三十一圓七十四錢의高價와 仁川先物二十九圓八十錢의 高價를 示하엿스나 本年은 日本內地米作第二回豫想五千七百五萬石、朝鮮米의移出推想九百萬石、臺灣米의移入推想四百五十萬石、持越米九百九十四萬二千石 合計八千四十九萬二千石인 前年보다의 二百十七萬五千石의 增加를 示한만큼

需給 上多少 樂觀을 묵할수잇스며 市勢도 前年보다의低位에잇서야할것이다 그러나 最高公定價格의 引上은 前途米價의彈力을 養成함이나 無異한即高米價政策이라하여도 過言이아님으로 容易히 暴落을許하자아니할것이다 政府의方針에잇서서도 米統法에依하야 決定한 最高公價格을 維持하게하라면 米價를 調節하기爲한 季節買上인 三百二十餘萬石買上도 하여야할것이며 又는 旣히買換남어지 九十五萬石도 買上하여야 할것이다 그러치안코는 今後 最高公定米價를 突破하려 할때에 高價를 防止하려야 防止할수업시될것임으로 政府는 어떠한 時機를利用하든지 買上을 斷行하게될것이오 딸아서 米價도 暴落될機會를 엇지못하게될것이다 그러고 産地農家의 態度로본다할지라도 賣惜方針이 例年보다又一層鞏固할뿐이니라 正租共同販賣組合으로부터

農家 의 賣惜을 激勵하는한便으로 平均賣出의 方針을取하여옴으로 正米의 賣勢減壓으로 市勢의 瓦落을 招致하기까지에는 至하지안흘모양이다 今後天災에 入하야 市勢가 如何히展開될지는몰흐나大體昭和十年度産米로의需給推算으로 보아서는政府로서의 推定한바와如히端境期의持越이 九十五萬石이 되다할지라도 民家在米의 稀薄으로境遇에 依하야는 近年에보지못하든 破天荒市勢를

演出 할지도 몰을것이며 그러한 市勢가업다할지라도 前年보다의 二圓程度의 高價는 잇슬것으로 觀測하는것이 妥當할것이다 (完)

躍進된朝鮮鑛業
探鑛時代지나서採掘時代로
眞正한景氣는누구에게

朝鮮의鑛業은 近年非常히 活況을呈하야 所謂『鑛山景氣』謳歌의時代를 演出한感이 업지안타 우연직하면 標品石개나들고 단이는것이 一種의流行이오 談끄레는 鑛山이야기가 話題에오르고야마는 것이 今日의 鑛業에對한 現狀이다

이와가티 一般關心이 鑛業으로 集中함을보아 그들이 有形無形의 未練을 가지고 活動을하게되는 根據가 무엇인고하면 첫재로 朝鮮에는 金、砂金鐵、黑鉛、石炭等主要鑛物을비롯하야 銀、銅、鉛、亞鉛、水鉛、重石、硅砂、高嶺土等의 資源이豊富한것이오

둘재로 大正七、八年頃부터 數年에亘하야 世界大戰의影響을바더 자못活氣를띄우든 鑛業熱이 大正九年을中心으로한 財界의恐慌으로因하야 鑛産物市價의暴落을보아 一時沈滯狀態에잇섯스나 金輸出再禁止와 인풀레政策實施로 一轉期로하야 金價와如함은 暴騰을示하얏고 一般事業界의『好轉』輸出貿易의好轉、國際事情의 變化에依한諸種工業(主로軍需工業)의勃興等事情은 그가 單히 金鑛業에만끗치지안코 一般鑛業에도 好影響을 밋치게된것이다

셋재는『猝富』가 間或이루어지는것이다

果然 그들(主로朝鮮人)을 指稱함의 活躍은 決코 無根虛構한것은 아니다 이미 말한바와가티 그들은 첫재로 天然資源이 豊富한 朝鮮에낫스며 둘재로 今日과가튼 鑛産物에對한 需要增과 市價高를 目前에 보고잇슬뿐만아니라 셋재 그들의『猝富』에 對한憧憬은 날이갈수록 鑛業熱을 熾하게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經濟의 原則에基依한 景氣論 即 여긔서말하려는 鑛業景氣에잇서 그景氣左右하는 支配的存在는 그들이가지는傳統도 아니오 또活動그것만도 아닌同時에 그에伴하야 膨大한 資本의進行、活動이 그條件으로必要하게되는것은 否定할바가아니다

이제 朝鮮鑛業의 最近의趨勢를 數字的으로 打診하여볼때 採掘方面에잇서 鑛業權의 出願狀況은 昨年一月부터 十一月末까지의累計가 九千六百七十二件(朝鮮人 七千三百六件 日本內地人 二千三百六十六件)에達하야 十二月分을 合한다면 萬件突破는 確實하야 이것을 累年으로比較하면 如左하다(單位件)

	日本內地人	朝鮮人	計
昭和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十一月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이것을보면 昭和六年十二月金輸出再禁 翌年인 同七年부터今日에 이르기까지 鑛業出願이激增되고 特히 同九、十年은 激增을示한바 이는 主로産金景氣에 依한것으로 昨年十一月末現在 總件數九千六百七十二件中 金鑛 五千三百八件 金銀鑛 五百九十四件 金銀銅鑛 五百八十六件等 金關係의合計 六千四百八十八件 總件數의 約七割을 차지한點으로 보아 明白하거니와 最近새로운 現狀으로는 鐵鑛出願이 增加되야 同十一月末現在 五十二件、黑鉛 其外 特殊鑛物인 [illegible] 九十七件에 達하며 [illegible] 石鉛 [illegible] 出願이 增加되고잇는것이다

이統計에서 보는바와가티 比較的資本을 要하지안는 出願探鑛方面에 잇서서는 朝鮮人이 多數를占하야 昭和九、十年과如함은 日本內地人에比하야 約三倍에 達한다

그리고 許可件數의 累年比較를보면 (單位件)

	日本內地人	朝鮮人	計
昭和元年	一〇一	九七	一九八
同二年	一一三	七九	一九二
同三年	八九	九二	一八一
同四年	九九	一〇六	二〇五
同五年	二〇九	一三二	三四一
同六年	一三七	二〇六	三四三
同七年	一七八	二九一	四六九
同八年	二四五	四八三	七二八
同九年	三六二	七七〇	一、一三二

그리고 鑛區面積은 昭和七年 十六億一千六百五十七萬六千六百四十九坪 同八年 二十億五千九百四萬四千八百八十三坪 同九年 二十八億二千百七萬五千八百二十七坪으로 同八年은 七年에比하야 四億四千二百四十六萬八千二百三十四坪、同九年은 八年에比하여 七億六千二百三萬九百四十四坪의 各其增加를 示한바 그中 金銀鑛面積이 首位요 石炭鐵鑛其他의 順으로되어잇다

그다음 鑛業景氣觀測에잇서重要條件이되는 鑛山採掘狀況累年比較를보면

	日本內地人 作業	日本內地人 休業	朝鮮人 作業	朝鮮人 休業	外國人 作業	外國人 休業	合計 作業	合計 休業
昭和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인데 休業數는 昭和元年이나 九年이 그다지差異가업스나 作業鑛數가 昭和七年부터 激增을보아 九年은 金再禁止前의 六年에比하야 四倍餘의增加를 示하얏고 採掘所有別에 잇서서는 日本內地人이 首位요 다음 朝鮮人、外國人 順으로 되어잇다 그리고 鑛種別에 잇서서는 金銀鑛이 가장만코 石炭、鐵、黑鉛等이 그다음에잇다

그런데 鑛産額 累年比較를보면(單位圓)

	日本內地人	朝鮮人	外國人	計
昭和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以上의 增加를보앗스며 다시九年은 八年보다 約二千萬圓이나 激增되엇는데 이는 同六年末의 金輸出再禁止와 其後 인풀레政策의 本格的實施로因한 鑛産物의 市勢高와 그와아울러 生産高의 飛躍的增加를 보앗기때문이다 總督府鑛山當局者의 談에 依하면 十年度도 九年度보다 一層增加될 豫想이라고한다 그러고 이를鑛種別로보면 金關係의 鑛産額이首位로 石炭、鐵、其他의 順序로되여잇다

以上에서 말한바와가티 探鑛方面에잇서서나 鑛區數新採掘、또는鑛産額에잇서서보면 昭和六年十二月 金輸出再禁止即後인 七年을轉機로하야 今日에至하기까지朝鮮鑛業의 全般的景氣는 向上의一途를 示하고잇다 그런데 最近二三年間에 探鑛方面이 曾有의 高勢로示하고잇슴에도不拘하고 採掘方面이 엄청나게뒤떠러저잇슴은 今後發展의餘裕를充分히남겨논것이다 이때까지를 探鑛時代라고 假定한다면 다음에 오는것은 堅實한鑛業景氣時代로볼수잇는것이다 그런데 이鑛業景氣의 行進은 누구에게로 向하고잇다가 오즉彈力性이 豊富한 大資本에로 쏠려지고야말運命에잇는것(?) (完)

人絹은大勢不良
目前一段高

五十圓臺人絹業界의 恐慌人絹이던 人絹界가 伊에和協案 失敗에依한 英國의 變化로 英伊間一戰不可避로 보이게됨을따어伊에紛爭解決後의 伊太利人絹의東洋市場進出을 念慮가 一掃된 反面 英伊一戰相及하면 日本人絹界가受할好影響이 相當히 크리라는것 新春三月까지의 增産이大數量에 達치안흘리라는것、現在需給과輸出好調로보아 一二三月의 供給過剩을 過大評價하얏든것 輸通績의過剩이 最近緩和되어 在荷漸減傾向인과 相俟하야 一部會社가福井으로부터 市價取引되고 新春行하는點等으로 考慮하야 新春의增産은 大部分 特殊系에 代替되리라는 觀測이 잇는等의好材料로 反撥되거나 하얏는데一氣로六十圓關門을 恢復할가?는 疑問이다.

×

四一六月로부터 下半期에 至한旣設新設 會社增産이 적어도 五、六萬七八萬圈에 達할것갓고 聯合會가 對策을 잘못하면 下期의 人絹界는 大混亂에 陷할危險이 잇는만큼 目前高價가잇다드래도 그는警戒할일이라겟다.

新春景氣展望 ③

한波瀾을 呈케될것으로서 뿌로카跳梁에 膨脹하야 서두른 投機는 모름지기 愼戒함이조흘가한다(終)

恭賀新年

善山

善山穀物商
金華默商店 徐丙熙商店
嚴炳卓商店 金定東商店
金泰默商店 保科商店
石川商店 張敬在商店
全海柄商店 景閏光商店
小野田商店 金允培商店
金炯哲商店 金東煥商店
金敎稷商店

龜尾酒造場 文星酒造場 高牙酒造場 泉源酒造場 善一酒造場 安谷酒造場 舞乙酒造場 海平酒造場 善山酒造場 新豐酒造場 松山酒造場 山陽酒造場 林泉酒造場

善山郡廳職員一同

善山十五日會

龜尾公普校職員一同 山東公普校職員一同 海手公普校職員一同

朴愼道司法代書所 金鍾漢司法代書所 沈載完司法代書所 金光鉉司法代書所 馬鎭河司法代書所

龜尾 和信連鎖店

高牙面元湖洞 金宅敎

善山邑 金敬龍

京釜線龜尾驛前 光線洋服店

龜尾 李東雨 李英雨

京釜線龜尾驛前 九神運輸社 電話六番 振替釜山四三九五番

京釜線龜尾驛前 大正倉庫運送部 主 金秉翊 電話七番 振替釜山五四〇五番

龜尾 慶北精米所

海平面所 高漢植 朴瑋夏 金文煥 李聖源 南哲鉉

龜尾面事務所 職員一同

海平 全海寬 全海龍 全富元

舞乙 水多寺 海平 桃李寺

文星 金秉鎬

高牙商會 朴泰雲

善山印刷所

慶北善山邑西門通 日信洋靴店

碧松寫眞館

善山 和信連鎖店

善山砂防所 職員一同

善山面竹杖洞 崔仲洛

善山邑內 尙州旅館

善山邑內 金東泰

喪中欠禮 古物商 劉南烈

達谷 朴棋

龜尾驛前 中村出張所

善山龜屋 黃海寫眞館 朴耕一

龜尾 李在和

龜尾市 藥種商 金亨奎

龜尾洋服店

京釜線龜尾驛前 綢緞布木 日用雜貨 고무신 安文出商店

京釜線龜尾驛前 金輪社 マチレス號 富士覇王號 ラーヂ號 マイルオイ號 ケンネツト號 附屬品一切 各種機械修繕 琴春福

龜尾 亞一藥房

龜尾 大平堂藥房

慶北善山邑內 高麗人蔘社代理店 善山土人蔘 各種藥種 賣藥 郡山貿易 開善堂藥房 主 林春浩

慶北善山邑內 同和藥房 大一藥房 代理店 藥種 賣藥 有名賣藥 化粧品 新生堂藥房 主 金亨燮

京釜線龜尾驛前 永華商店 主 金永華

京釜線龜尾市場 綢緞布木 日用雜貨 各種織物 朴貞堂 主 朴貞昌

龜尾驛前 龜一旅館 朴月任

龜尾市 新興料理店 主 黃鎰洙

蓮谷洞 朴達夏

龜尾驛前 大成商會 運送部

善山玉城面 職員一同

舞乙面 職員一同

善山郡高牙面 職員一同

善山郡山東面 職員一同

善山郡長川面 職員一同

京釜線牙浦驛前 李甲

牙浦面大聖洞 金鍾益

牙浦松川酒造場 崔秉夏

牙浦驛前 金晋容

舞乙面院洞 池世乾

高牙面 金是默

高牙 卞相漢

高牙 金鍾萬

玉城面 權泰文

慶北善山邑內市場 製菓商 雜貨商 崔用萬商店

朝鮮慶北善山市 歐米新式 各種製服 京橋屋洋服店

蓮谷洞 朴喜重

龜尾 醫生 李源鎬

龜尾 龜尾七星會

龜尾 金相鎬

龜尾驛前 日鮮鐵工所 主 林學

大成自轉車店 朴壽

京釜線龜尾驛前 龜尾輪業社

善山邑中央通郡廳前 東亞自轉車

善山邑內 尹命壽

善山邑 李容基自轉車店

善山邑內 各國自轉車 販賣及修繕 善一自轉車店 (威力自轉車)

喪中欠禮 朴喜

朝鮮産業全般을 大資本進出支配 ②

朴用來

工業 好條件의具備로 近年에急激히進出

—承前— 또한가지 殖銀에서 調査한 朝鮮에 本店을둔 拂込資本金 五萬圓以上의 株式會社 百七十社(外國人經營의 二社除外)中 調査資料가 入手된 八十二社에對한 數字를 드러 日本內地 大資本의 朝鮮工業進出狀況을 엿보기로하자 同調査에 依하야 株主의 居住地別로 拂込資本金의 構成을 보면 總拂込資本金 一億二百六十八萬一千五百十圓中 朝鮮外(大部分 日本內地로 滿洲國及 關東州若干包含)에 居住하는 株主의 拂込金은 八千四百三十七萬七千六百六十五圓五十錢으로 그八割二分二厘에 該當하는데 朝鮮內에 居住하는 株主의 拂込高는 一千八百三十萬三千八百四十四圓五十錢으로 二割七分八厘에 該當하야 이것이 비록 株式會社에 局限한調査라할지라도 이로 朝鮮의 大規模工業이 如何히 日本內地로부터 들어온 資本勢力下에 잇는가를 推察할수잇다 다시이 比例를 資本高別로보면(千分比)

	朝鮮外	朝鮮內
五萬圓以上	二七二	七二八
七萬圓以上	四五	九五五
十萬圓以上	一一二	八八八
十五萬圓以上	一一五	八八五
二十萬圓以上	四三〇	五七〇
三十萬圓以上	四〇一	五九九
五十萬圓以上	四四四	五五六
百萬圓以上	四五七	五四三
三百萬圓以上	六八七	三一三
一千萬圓以上	九八一	一九

로 三百萬圓未滿의 會社資本은 그 過半이 朝鮮內居住株主의 拂込金으로 構成되어잇스나 三百萬圓以上의 **資本**은 朝鮮外即 日本內地居住株主의 拂込金으로 構成되어잇서 彪大한 資本을 要하는 巨大한 工業은 朝鮮本土의 微弱한資本力으로는 그 힘이 이에 밋지못하고 結局 日本內地로부터 흘러드러온 大資本으로經營되고잇슴을 알수잇스며 이 資本高別比例를 前記 資本拂込高와 對照하야볼때 一般으로 日本內地資本의 進出이라하야도 特히 大資本의進出임을 깨다를수잇다 以上으로도우리는 日本內地大資本이 微微하다고는할지나 從來朝鮮工業에잇서서 壓倒的勢力을잡고잇슴을 알수잇스나 特히 滿洲事變을 一轉機로 前記한바와가튼 工業勃興의 好條件을 마지하야 日本內地資本의 朝鮮工業進出은 本格化하게되엇스니 昭和八年以來 日本內地人大資本會社는 簇出하게되엇다 다음에 資本金五萬圓以上의 相當히規模가 큰 會社의 數를 設立된 年度別로 드러보면

	日本內地人社長會社	朝鮮人社長會社
▲昭和八年		
株式會社	一一	一
合資會社	三	一
計	一四	二
▲昭和九年		
株式會社	八	三
合資會社	二	一
合名會社	—	—
計	一〇	四
▲昭和十年八月末까지		
株式會社	一五	六
合資會社	三	三
合名會社	一	—
計	一九	九
總合計	四三	一五

로 昭和八年以來 昨年八月末까지에 朝鮮人會社는 十五社가 設立되엇는데 日本內地人會社는 四十三社가 設立되어 昭和八年以前에 設立된 拂込資本金五百萬圓以上의 朝鮮人會社數와 거이 對等한 數에 達하얏스며 그中 拂込資本金百萬圓以上의 巨大資本會社만도 十一社를 算하야 日本內地大資本이 얼마나 急激한 形勢로 **朝鮮工業**에 進出하고잇는가를 보여준다 더구나 그 拂込資本金額을보면

	日本內地人社長會社	朝鮮人社長會社
▲昭和八年		
株式會社	九、九五〇、〇〇〇圓	二五〇、〇〇〇圓
合資會社	四〇〇、〇〇〇	八一、〇〇〇
計	一〇、三五〇、〇〇〇	三三一、〇〇〇
▲昭和九年		
株式會社	一三、六〇二、一〇〇	一六九、〇〇〇
合資會社	二五〇、〇〇〇	—
合名會社	—	一〇五、〇〇〇
計	一三、八五二、一〇〇	二七四、〇〇〇
▲昭和十年八月末까지		
株式會社	一六、一五四、〇〇〇	一、一五五、〇〇〇
合資會社	六二〇、〇〇〇	二〇〇、〇〇〇
合名會社	一〇〇、〇〇〇	—
計	一六、八七四、〇〇〇	一、三五五、〇〇〇
右合計	四一、一一六、一〇〇	一、九八一、〇〇〇

金堤郡金溝面月川砂金鑛作業狀況

로 朝鮮人會社에 拂込된 資本金은 一百九十八萬一千圓밧게 안되는데 日本內地人會社에 拂込된 資本金은 四千一百十一萬六千百圓으로 會社數에 잇서서는 三倍가못되는것이 資本金에 잇서서는 二十餘倍나되어 그 **會社規模**가 큼을 알것이며 이 短時日에 投下된 資本金 五萬圓以上의 日本內地人 會社資本이 벌서 昭和八年以前에 投下된 朝鮮人會社總資本을 凌駕하고도 數倍에 達하게되엇다

그러면 다음에 昨年八月末現在 拂込資本金 百萬圓以上의 巨大工業會社만을 드러보기로하자 朝鮮人經營은 京城紡織株式會社 單하나뿐이요 그밧게 米國系資本을 主로하나 이 亦是 三菱資本의 投下를본 日本鑛産株式會社를 除外하고는 全部日本內地人會社로 이를 列擧하면 如左하다

社名	設立年月
京城電氣株式會社	明治四一·九
朝鮮瓦斯電氣株式會社	明治四一·二
朝鮮紡織株式會社	大正六·一〇
大興電氣株式會社	大正七·八
株式會社石崎商店	大正九·一
南朝鮮電氣株式會社	大正一三·三
龍山工作株式會社	大正一四·九
朝鮮窒素株式會社	昭和二·五
東洋製絲株式會社	昭和四·五
南朝鮮水力電氣株式會社	昭和四·一〇
長津江水力電氣株式會社	昭和八·五
朝鮮麥酒株式會社	昭和八·八
朝鮮油紙株式會社	昭和八·一〇
昭和麒麟麥酒株式會社	昭和八·一二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	昭和九·一
朝鮮送電株式會社	昭和九·五
日本마그네슘金屬株式會社	昭和九·六
朝鮮石炭工業株式會社	昭和一〇·三
北鮮製紙化學工業株式會社	昭和一〇·四
大豆化學工業株式會社	昭和一〇·四
朝鮮電力株式會社	昭和一〇·七

이밧게 朝鮮外會社로서 朝鮮에 進出한것도 不少한바 그中 日本內地에 本社를 가지고 朝鮮에 支店 또는 工場을 設置한 **工業會社**의 重要한것만을 드러보드라도 棉花를 目的으로하는 東洋紡績、鐘淵紡績 產繭을 目的으로하는 郡是製絲、片倉製絲 亞麻를 目的으로하는 帝國製麻 木材를 目的으로 하는 王子製紙 石灰石을 目的으로하는 小野田세멘트 製鐵을 目的으로 하는 日本製鐵 金屬製錬을 目的으로하는 日本鑛業 精糖을 目的으로하는 大日本製糖 等等이잇는데 此等은 殆半이 大資本進出로 同業者間에서도 脅威를 늣기고잇는터로 朝鮮工業에잇서서 그 勢力을 決코 업수히녀길수가업다 이로 **朝鮮人**은 在來로 副業的家內手工業 또는 現代的企業形態를 갓추엇다고는할지라도 一部 小規模의 工業을 經營하고잇슴에 끗치고 現代的 大規模의 工業은 日本內地人資本 特히 日本內地로부터 흘러드러온 大資本의 獨舞臺로 되어잇는觀이 잇슴을 알수잇거니와 끗트로 朝鮮工業協會에서 調査한 表에依하야 朝鮮에서 事業을 經營하는 大工業會社의 資本系統을 보면

▲三井系
(1)紡績工業=鐘紡、朝紡
(2)纖維工業=東洋製絲、朝鮮生絲、南北棉業
(3)大豆油工業=北鮮製油
(4)製紙工業=王子製紙 北鮮製紙
(5)麥酒工業=大日本麥酒—朝鮮麥酒
(6)製粉工業=日本製粉
(7)세멘트工業=小野田세멘트—朝鮮小野田
(8)電氣工業=五大電力共同出資
(9)鑛業=三成鑛業 義州鑛山

▲三菱系
(1)麥酒工業=麒麟麥酒—昭和麒麟麥酒
(2)製粉工業=日本製産
(3)鑛業=三菱鑛業 朝鮮無煙炭

▲野口系
(1)空中窒素固定工業=日窒—朝窒
(2)硬化油工業=日窒—朝窒
(3)카—바이드工業=同前
(4)카—본工業=同前
(5)骨粉加工工業=同前
(6)大豆加工工業=日窒—朝窒大豆工業會社
(7)石炭液化工業=日窒—朝鮮石炭工業會社
(8)火藥工業=日窒—朝鮮窒素火藥會社
(9)輕金屬工業=日窒—日本마그네슘金屬
(10)精錬工業=朝鮮鑛業振興南浦精錬所
(11)電氣工業=日窒—長津江水電、朝鮮送電、赴戰江電氣
(12)鐵道業=朝窒—新興鐵道
(13)鑛業=朝鮮鑛業開發

▲安田系
(1)麻布工業=帝國製麻
(2)電氣工業=五大電力共同出資

▲住友系
電氣工業=五大電力共同出資

▲久原系
(1)鑛業=日鑛
(2)精錬工業=日鑛鎭南浦精錬所

▲森系
(1)輕金屬工業=日本電工
(2)鑛業=同前—明礬鑛採掘 알미늄精製

로 이러타할 大工業에는 此等日本內地大財閥의 **資本勢力**이 빠치지안흔 것이업서 그들이야말로 朝鮮의 工業을 一手에 掌握하고잇슴을 알수잇스며 特히 三井과 野口의 資本은 朝鮮에서 두개의 工業王國을 이루고잇다

鑛業 天惠의富源地에 大資閥爭先着手

朝鮮의 鑛物資源은 그 種類가 多岐多樣하야 日本內地에 缺如한것까지도 만히 가지고잇서 例하면 鐵、黑鉛、無煙炭、또는 輕金屬、알미늄의 原料인 明礬石 礬土頁岩 마그네슘의 原料인 마그네사이트 그他 重晶石、高嶺土、螢石、石綿、滑石、水鉛、텅그스텐、雲母、硅砂等 거이 업는것이 업스며 金、鐵、石灰、黑鉛가튼것은 그 埋藏量이 豐富하야 **四大鑛**이라 稱하고잇다 그러나 이에對한 一般의 認識은 아직 薄弱하야 그 開發을 보지못하고잇는바 自給自足經濟計畫의 進展을 따라 朝鮮의 鑛物資源은 漸次 重要視되게되엇는데 特히 金輸出再禁止에依한 金價의 繼續的昂騰과 인플레景氣에依한 一般事業界의 好調 個中에서도 滿洲事變과 延하야서는 國際情勢의 緊迫에 伴하야 軍需工業의 活況은 金鑛뿐만이아니라 一般鑛業界를 刺戟하야 鑛業投資 特히 日本內地大資本家의 積極的進出을 보게되엇다 다음에 最近五年間의 鑛業出願件數를 보면

	日本內地人	朝鮮人	合計
昭和五年	七五五	五六七	一、三二二
六年	六四四	一、一六一	一、八〇五
七年	一、三九八	一、八〇六	三、二〇四
八年	一、九六〇	三、三六〇	五、三二〇
九年	二、九五〇	六、四九七	九、四四七

로 昭和七年부터 出願이 激增하고잇는데 昭和九年 中에잇서서 九千四百四十七件中 日本內地人은 二千九百五十件이요 朝鮮人은 六千四百九十七件이며 또 그許可件數를보면

	日本內地人	朝鮮人	合計
昭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로 許可도 昭和七年부터 顯著히 增加하고잇는데 昭和九年中에잇서서 一千一百三十二件中 日本內地人은 三百六十二件이요 朝鮮人은 七百七十件이다 이를 通觀하야보아도 年年히 **出願許可** 모두 朝鮮人이 日本內地人보다 만흐나 그 所有鑛區數에잇서서는

	日本內地人	朝鮮人	外國人	合計
昭和五年	一、七三三	五〇七	二	二、二四二
六年	一、八九八	六四〇	二	二、五四〇
七年	一、八〇一	八七六	二	二、六七九
八年	二、一九九	一、三〇二	二	三、五〇三
九年	二、九五〇	一、八五五	二	四、八〇七

로 昭和九年末現在 四千三百五十四鑛區中 日本內地人所屬은 二千五百二十七區 朝鮮人所屬은 一千八百二十五區로 외히려 日本內地人所屬鑛區가 朝鮮人所屬鑛區보다 만흐며 그鑛區面積을 볼지라도

日本內地人	[illegible]
朝鮮人	[illegible]
外國人	[illegible]
計	[illegible]

이어 日本內地人鑛區面積이 朝鮮人鑛區面積보다 만허 이를 鑛業出願許可件數와 對照하야볼때 朝鮮人은 **鑛山도팔기지** 못하고 結局日本內地人의손으로 너머가게됨을 알수잇다 그러면 다음에 大規模經營이라고 볼수잇는 鑛業會社의 數를 보면

日本內地人社長會社	四七
朝鮮人社長會社	一八
外國人社長會社	八
計	七三

로 日本內地人會社는 四十七社인데 朝鮮人會社는 十八社이어 大規模經營에 日本內地人이 斷然만흠을 알수잇스며 그拂込資本金額을보면

日本內地人社長會社	[illegible]
朝鮮人社長會社	[illegible]
外國人社長會社	[illegible]
計	[illegible]

로 日本內地人會社資本은 三千六百五十九萬二千五百圓인데 朝鮮人會社資本은 二百十七萬四千四百圓으로 會社數에잇서서보다도 資本勢力에잇서서는 더욱 큰 差異를 보이어 鑛業도 他産業과 맛찬가지로 日本內地人大資本의 進出을 보아 그 **勢下**에 움직기고잇슴을 알수잇다 이외 아울러 鑛産額에對하야보면 昭和九年中

日本內地人	[illegible]
朝鮮人	[illegible]
外國人	[illegible]

으로 朝鮮人은 鑛山景氣니 金鑛景氣니 떠들기만하고 그 實益은 日本內地人이 把握하고잇슴을 可히 알것이다 在來 朝鮮人이 經營하고잇든 鑛山도 有數한것은 모다 日本內地大財閥의 손으로 넘어가고잇슴은 너머나 衆知의 事實이다 昨年十一月末現在 拂込資本金百萬圓以上의 **鑛業會社**만을 드러보면 朝鮮人會社로는 昨年七月에 設立된 南陽鑛山株式會社 單하나와 外國人會社 四社를 내노코는 모다 日本內地人會社인데 이를 列擧하면 如左하다

社名	所屬鑛區數
鳳泉無煙炭株式會社	九
東拓鑛業株式會社	四
東邦鑛業株式會社	一一
朝鮮無煙炭株式會社	四九
朝鮮鑛業開發株式會社	六〇
朝鮮合同炭礦株式會社	一九
利原鐵山株式會社	七
小林鑛業株式會社	一一
三成鑛業株式會社	二〇
鍾淵金山株式會社	二
成歡鑛業株式會社	一
朝鮮製鐵株式會社	七
日鮮鑛業株式會社	一
平壤無煙炭株式會社	九
濟和鑛業株式會社	一

이밧게 日本內地에 本社를 두고 朝鮮에 進出한것 **朝鮮鑛業**에 만흔데 그中 二十鑛區以上을所有한 會社만을 드러보아도 ▲三菱鑛業株式會社九一 ▲三菱合資會社三〇 ▲東洋拓殖株式會社三二 ▲日本鑛業株式會社五二 ▲內外鑛業株式會社三〇 ▲明治鑛業株式會社二八 ▲輪西鑛業株式會社二六 ▲藤田鑛業株式會社二二 等으로 特히 三菱의 朝鮮鑛業進出은 注目할만하다

이밧게도 日本內地 大資本의 朝鮮產業進出의 全貌를 그려볼려면 水產業、林業等 아직 重要한 部門이 남어잇스나 이지음 떠드는 所謂 米穀景氣、工業景氣、鑛業景氣의 三大景氣의 主體인 農、工、鑛業만에 끗치기로하거니와 이 듯기에도 시원한 景氣의 昂進 朝鮮產業의 躍進은 果然 누구를 爲한것인가 이 對答은 自明할것이다(完)

內外經濟動向 (一)

前途一層波瀾豫想

朝鮮銀行總裁 加藤敬三郎

世界經濟는 一九三二年을 最底點으로하야 恢復過程에 드러왓는데 아직全般의 好調를 보지못하고 참된恢復과 再建은아직보기어려운 實狀이다。 이는主로 國家對立이 解消되지 못하고 國際間의 不安과 動搖가 繼續되기때문이다。

昨年中 國際的規模에서 發生한 經濟上의 重大事件으로는 米國의 金約款破毁、벨기貨의引下、中國의 新幣制採用等을 들수잇는데 此等은 經濟的國家主義의 表現이다。 政治的事件은、二回에 亘한 獨乙의 再軍備宣言、英獨海軍協定、英國建艦宣言、伊에戰爭의 勃發等으로 不合理한 平和機構에對한 改革 又는 國際對立의 激化에 基한 軍備擴張을 意味하며 새로 世界의 再分割을 期하려는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新事件의 發生은 世界를混亂에 빠트리는 動因이되는것으로 決코 平和와協力과를 招來하지 안흐며 따라서 各國의協調를 重點으로하는 世界經濟의 本格的恢復은 도리어 前途多難하게되는것이다。 此間日本은 어데까지던지 東亞의 安定을 保持하는同時에 國力의 充實發展을 期하기爲하야는 一段의 緊張을要하는터인데 過去兩三年來의 政治地位의 確立과 經濟的躍進은 一般의自覺과합게 困難한 環境을克服할수잇는것이라고밋는다

米國

米國의 經濟狀態는 昨年上期末을 基點으로 極히良好한 推移를보아 其好調는 一九二九年以來의 現象이라고한다。 루즈벨트大統領은 昨年初 뉴·딜에代하야 뉴·오데政策의 採用을宣明하야 國家的景氣恢復을 企圖하엿는데 其後N·R·A의 違憲判決이 頻發하야 景氣振興策에 暗影을남겨 財界는人氣的으로 一時逆轉하엿다。 그러고 政府는 極力그善後策을 講究하는同時에 N·R·A延長에成功하야 他方財政支出의 增力를圖하야 漸次時局을 拾收하야써 根本的惡化를 防止하엿다。 그런데 間斷업는 歐洲金뿔럭의 動搖는 米國에의 金流入을 誘致하야 昨年九月까지의 入超는 十億二千三百萬弗의 多額이며 未曾有의 新記錄을 지은反面財政인플레와 相俟하야 金融의 大緩慢을보앗다。 財界가急好轉하야 最初에 證券界의 沸騰이일고 월街는 一九二九年來의 活況을呈하얏고 또株價의上昇은 極히着實한足跡을 나타내어 그와同時에 一九三三年下期來의 財政인플레는 農村을비롯하야 各方面에浸潤되어 漸次 效果를나타내어 一般購買力의 新規創造를 보앗스며 數年만의好景氣를 示現하엿다。 그러고 物價는 前年에比하야 顯著히 騰貴하고 軍工業은 顯著한 恢復을보이어 一方貿易은 느럿스며 各國이 輸入制限에 汲汲한此際 其好刺戟은 大大한것이엇다。 그런데 르—大統領은 目下出園에 都市에 實質的 景氣恢復의 徵候歷然하다고하나 이好景氣의 裏面에는 赤字及 對外經濟와의 調整如何의 苦惱가잇다。 그러면 이것을 如何히 解決할것인가는 米國經濟를 左右할뿐만아니라 世界經濟의 動向에 多大한影響을 주는 것으로보겟다。

英國

英國財界는 自力更生의 効果가잇서 健實한改善傾向은 注目한일이다。 昨年六月上旬 內閣의 更迭이 잇섯스나 其政策을 踏襲하야서 特히 健全財政과 財界의 自然的 恢復政策에는 變更이 업섯고 景氣上昇은 繼續되엇다。 貿易은 十月까지 前年에 對比하야 輸出 二千八百萬磅의 激增、輸入 九百八十萬磅의 增加이다 顯著히 改善되고잇는데 이는 帝國經濟及 保護主義의 採用에 基因한바 만흔것이 事實이며 事業界도 旺盛히 活動을 繼續하고잇다。 그러고 物價는 漸騰되야 失業者는 漸減하엿다。 産業改善의 顯著를 말하는것이다 그러나 如斯히 産業及 貿易의 好轉도 伊에 戰爭及 歐洲各國의 軍備工作이 그遠因이 되고 잇는것과 綿業이 依然 不振狀態인 點으로보아 반드시 好調의 持續이라고 밋기 어렵다。 金通貨의 不安은 依然 潛在하야 만약 이것이 崩壞하는 일이잇스면 危險한일이다 아직急速한 前途樂觀은 不許할것이나 政府의 軍備는 더욱 實行되는 形勢임으로 軍事工業을 中心으로 國內景氣는 持續되리라고본다

佛國

佛國은 脆弱한 政治組織과 金本位擁護의 事情에基하야 아직 不況의域을 버서나지 못하얏슬뿐만아니라 經濟的으로 惡化하고잇다 頻繁한 內閣更迭의 後를니어 라발內閣은 昨年十一月末 下院에서 信任을 어덧는데 財政問題 其他로因하야 危機에 瀕하고잇다。 産業狀態는 依然不振狀態로 萎縮一途를 示하야 去十月까지 輸入은 一一%、輸出은 一三%로 前年에比하야 各其減少되고 特히 法貨高에 基하야 貿易外收入의 著減으로 國際收支의 改善을 볼수업다。 赤字財政은 歲出의 激增이 그 主要原因인데 失業者數는 減少되지안코 公債는 下落하야 社會及財政의 不安은 內外政局의 動搖와 相俟하야 國家의 基礎를 動搖하며、그對策은 唯一한 金本位의 離脫에 求하든지 內閣은 金本位擁護에 邁進하야 다른모든것을 犧牲에 供하고잇다。 그러나 法貨의 崩壞는 時期의問題이며、資金의 逃避가 만히 佛蘭西銀行의 金準備는 急速的 金利引上에도 不拘하고 十二月五日 六、六八九千萬法으로 一九三二年來의 最低로 低落되엇다。『法貨替의 先物은 데스카운트』를 示하야 金뿔럭盟主의 顚落도 不遠하리라는것이다

獨逸

獨逸은 獨裁的超國家主義의 規鋼이되어 그經濟狀態도 極히異色이다 말하자면 計畫經濟下에잇는데 軍事景氣를 謳歌하고잇는 點은 他國과 다를이업다 貿易은 極端한 國家管理에잇스며 그決濟制度는 此種制度의 先驅가되엿다 貿易制限은 多大成果를 어더 去十月까지의 貿易尻는 二千四百萬馬克의 出超로 前年同期의 二億五千萬馬克의 入超에比하야 好轉되엇다 産業界는 再軍備方針에 依하야 軍事工業을 中心으로 活躍을繼續하는데 纖維工業과如한 平和的産業은 不振狀態이다。 金融은 公債發行으로 緩慢되야 證券界는 活況을 呈하얏는데 公債政策의 破綻이 念慮되며 前途는 波瀾을豫想한다。 要컨대 힛틀러政權이 繼持되며 民衆의信任이 繼續되면 右狀勢는 變化하지안는다 依然 好景氣를 享有할것이나 그가世界經濟에는 好影響을 주지안코 도리혀 惡化와 逆轉을 促進할것임을 注意할바이다

伊太利

伊太利는 거의戰時狀態에 잇는것과가티 一切의經濟는 完全히 戰時的統制가 되고잇다 對에開戰以來 爲替管理가되고잇슴에도 不拘하고 資本의逃避가甚하며 伊太利銀行의 正貨損失이 顯著하기때문에 드디어金買上을 斷行하야 事實上平價切下의 一步를 걸고잇다 貿易은戰時貿易管理令及各國의 對伊經濟制裁에 依하야 萎縮될念慮가잇스며 따라서 自給自足經濟는 더욱徹底하야 消費制限令의 發布 食料品의 擧國的節約이되엇다 石油、鑛物等의 重要軍需品은 專賣制가되야 政治的으로 四面楚歌의現狀임으로 멀지안하서 엇더한轉向이잇스리라고본다

如斯히 歐米主要國은 內外의 情勢에依하야 經濟狀態는 好惡二面으로 나니어 國際經濟의 有機的連絡을缺如하엿다 그러고 그 匡正은 各政治體制가 整備되어 新編成을 實現하기까지는 不可能하다 世界經濟의 前途는依然 樂觀을不許하야 各國間의 經濟對立과 國家主義經濟와는 此後 더 强化되리라할것이다。 —(끗)—

◇……香塘白潤文氏試毫

驪州 名古屋

驪州病院 院長 兪興鎭

山葵東種苗販賣 寅和齊·寅和蛔虫散·發賣元 寅和堂藥房 振替京城一三、九五五番

驪州警察署

驪州酒造場 電話二四番 李鳳九 韓錫奎 金孝鎭

京東線驪州驛前 驪州釀造株式會社

驪州穀物商組合

驪州 安昌煥

驪州 崔秉純

朝鮮料理 驪州 白雲館 主 李康濟 藝妓 李仲仙 姜雲心 尹玉子 高小月 鄭弄玉 柳山紅

京東線驪州驛前 醬油味噌 南一醬油釀造場 電話一八番 振替京城一三九一八番

驪州郡廳

漢城銀行驪州支店 支配人 洪哲杓

驪州 穀物貿易 協信商會

京東線驪州驛前 正光精米所

驪州郡州內面上里 司法書士 徐丙郁 徐廷虎 電話三四番

東京線驪州驛前 東興堂時計舖

京東線驪州驛前 各種雜誌 取次販賣 會文房 主 李命

名古屋市東區山田東町三丁目 實業家 明桂秀 同 明桂香 同 明桂安 電話東局五七七八番

本籍 慶南昌原郡鎭田面西里一、三六七 現住 名古屋市東區山田町三ノ六八〇 精米所 主 具然愚

名古屋市東區道東町 共信貯蓄組合 組合長 洪象東 理事 洪元保 監查 權寧義 監查 洪在浩 評議員 金鍾生 評議員 金泰元 評議員 鄭泰旭 評議員 崔三文

名古屋市中區牧野町村前二七 唐草粉商 西山萬一

岐阜市長 松尾國松 同助役 東前豐 同秘書課長 成瀨勳 同市會議員 一同

愛知縣一宮市松井町一五 新興組合長 曺相國 副組長 權寧祿 總務 柳遠槃

名古屋市東區平安通 綿織布木商 安東習

名古屋鐵道株式會社

名古屋市中區白金町五丁目二 朝鮮織物問屋 協同商會

名古屋市東區大曾根町上三ノ九七九 花柳病特效藥 回生堂大藥院 金洪澳

愛知縣東春日井郡守山字瀨吉 事業家 崔順永

名古屋市東區山田町四丁目一二六 寶昌堂朝鮮藥局 主 姜信昌

名古屋市中區堀江町一ノ二四 精米所主 洪善圭 電話南六七二六番

名古屋市中區堀江町 朝鮮織物問屋 花山商店

名古屋市東區車道町

名古屋市中區白金町三丁目八 保元堂漢藥房 主 許龍秀

名古屋市東區車道町 鮮滿通信社 社長 李玟漢

名古屋市東區千種町字豊前 日鮮コンクリート工業所 主 木村公太郎 電話東七三六六〇番

名古屋市東區石町 商 永川一郎

名古屋市南區野立町 崔柄錤

名古屋ガゼット社 韓世復

名古屋市東區上飯田町七二四 金禹錫

神野金之助

青木鎌太郎

東邦電力株式會社 名古屋支店

名古屋東區大曾根町本通一ノ六〇 金振

名古屋南區八熊町 漢藥商 田仕澤

愛知縣 商 朴來一

名古屋東區芳野町二ノ二二 陶磁器雜貨向一手製造販賣 江原商店 朴石憲

謹賀新年

永登浦

金浦郡陽東面 **陽東殖產株式會社**

永登浦演藝館 主 太田寬 電話一一五番

永登浦邑事務所 邑長 森高源藏 外職員一同

永登浦邑內 精米業及酒類釀造土管製造 **李昌云商會** 電話五四番 五五番 三九番

永豐精米所 新豐釀造場 大陸荷物自働車部 主 白寬永 電話永登浦驛前三八番

京城府外鷺梁津 **始興釀造場** 李康灝 電話龍山九七八番

永登浦邑內 **柳新成商店** 柳鴻

第一醫院醫師一同 電話一一一番

永登浦醫院 醫師 洪承喆 電話一〇五番

府外鷺梁津 **馬相文百貨店** 電話龍山一三九二番

京城紡織株式會社 永登浦工場長 **尹柱福**

現代式社交場 **永登浦會館** ◎新年宴會는特히割引합니다 ◎和洋一品料理도迅速調達합니다 撞球部、食堂部 電話一三七番

始興郡廳

永登浦警察署

京釜線永登浦驛前 綢緞布木 各種雜貨 和洋藥種 都散賣商 **朴聖勳**

京城府鷺梁津 **閔泳鎭百貨店** 電話龍山八七三番

永登浦邑內 **安國鎭商店**

鷺梁津料理屋飲食店組合

永登浦邑內 米穀肥料精肉 **金龍根商店**

京城府外鷺梁津 綢緞布木 織物雜貨 精米業 **韓仁祿** 電話龍山一四八五番

永登浦驛前 **崔鍾琇商店**

永登浦洋服店 主 **朴忠燮**

株式會社 **東一銀行永登浦出張所**

永登浦驛前 精米業 **林聖澤**

始興郡君子面去毛里 **蓮城釀造場** 丁吉燮

始興郡秀岩面章上里 **安山釀造場** 柳箕燮

永登浦邑內 **大塚宗三郎**

軍浦場驛前 **軍浦釀造場** 尹茂榮

安養驛前 **安養釀造場** 尹啟燮

金浦郡陽東面楊花里 **大興釀造場** 主 金大演

始興郡果川面官門里 合資會社 **富林釀造場**

京釜線永登浦驛前 合資會社 **永一釀造所** 代表社員 崔俊永 電話三七番

永登浦驛前 **申得成商店**

始興郡秀岩面陵谷三里 **三興釀造場** 朴敬善

朝鮮京城府外永登浦驛町 北京料理 **麒麟閣** 電話一三八番

永登浦東仲町 **鴻盛樓** 電話一一六番

京釜線永登浦驛前 **明眞堂時計店** 黃鎭旭

日用雜貨 綢緞布木 米穀商 **日新商店** 日新湯

住宅月賦年賦斡旋 **永登浦住宅組合**

始興郡新東面盤浦里 **永泉釀造所** 韓大欽

京釜線始興驛前 **芝泉釀造場** 趙斗熙

京畿改良甕指定販賣所 **永登浦土器商會** 鄭寅煥

永登浦邑內 中國料理 **永登閣** 電話三七番

永登浦邑內 **龍一釀造永登浦支店**

永登浦驛前 活版石版 **活文堂印刷所** 電話一二五番

京釜線永登浦驛前 **清一堂藥房** 主 金亨坤

永登浦驛前 **李萬春商店**

永登浦驛前 **相信材木商** 主 李憓同

永登浦邑內 司法書士 **權寧浩**

始興郡學校評議員 **梁在軾** (軍浦場驛前)

ペンキ看板業 各種塗裝 看板製造 ペンキ塗 カベ塗 **銀河堂** 永登浦驛前

永登浦驛前 中華料理 **永興樓** 電話永登浦一〇二番

始興郡新東面盤浦里 **李英燮**

京釜線始興驛前 **李癸薰**

朝鮮日報永登浦支局 南廷彩 金敏植 電話一〇九番

鎭川

梨月面長楊市 **玉露釀造場** 主 方德元

長春館 金松竹 金牧丹花 朴雪中梅 金玉珠 崔一點紅 金月仙 金松玉 金彩玉 孫明花 李香心

迎樂館 吳彩瓊 金花仙 金彩玉 李明玉 孫山月 文松月 李水晶 金瓊玉 簡月仙 金玉蘭

愛人病院 院長 徐丙守 外職員一同

絹布雜貨穀物 **海金商會** 主 金智煥 外店員一同

藥種貿易 **東華藥業社** 主 郭春榮

大同社德山支部

米穀組合

和洋雜貨文房諸具 **一都散賣具敎夏商店**

梧谷面石溪里 **長壽釀造場** 主 金仁善

鎭川 **ふじ屋旅館**

間島

昭和生命保險株式會社 **鎭川代理店** 金亨起 外社同員一

穀物貿易 **崔今福**

東滿農事株式會社
荷主運輸株式會社
間島穀物株式會社
龍井貿易株式會社
間島興業株式會社

間島省龍井商會長 **韓雲陸**

間島龍井市 朝鮮料理 **興樂館** 主 金貞益 妓生 林山紅 外九名

間島龍井村 **下條法律事務所** 電話五一番

間島省龍井市吉勝街 大興電燈股份有限公司 主任 **武秀田**

間島省龍井市 **銀河カフエ** 電話三三三番

間島無盡株式會社 龍井支店

間島龍井市 **中央精米所** 張景翼 金龍洙

間島龍井市中場里 穀物貿易 精米業 **中本武一** 電話三六番

間島省龍井市 朝鮮料理 **平壤館** 主 金雲麒 妓生 二十名

朝鮮平壤府東星製藥社 滿洲總支店 **四象堂藥房** 金熙盛

間島龍井市 咸北道立 **龍井醫院** 職員一同

龍井商埠局長 **楊嗣讓**

間島省龍井 **盈德號藥房** 主任 王子政

間島龍井文廟

叺子購買組合

龍亭市 **李貢萬**

間島省龍井市海蘭街 **龍南商店** 主 朴東旭 金榮化

間島省龍井市 **吉順石廠叢文林** 電話三五四番

間島省龍井市 貿易商合名會社 **東興號出張所** 電話三〇七番

和龍縣明新社 **金精**

間島省和龍縣勇化社 社長 **丁泰和**

延吉權運局 三道溝辦事處

間島省和龍縣三道溝市 綢緞布木 和洋雜貨 **辛鳳林商店**

和龍縣外六道溝承審員唐鳳閣

和興湧

和龍稅捐局三道溝分局主任 **柳約東**

和龍縣三道溝市 **滿洲人商務會**

朝日洋服店

春日和主任 **薛殿吉**

張明一

延吉縣第五區警察署長 警正 **穆成卿**

稅捐分所 **李光五**

間島省龍井市 **殉國善**

間島龍井市 上木建築和洋家具 **三友工業所** 周應俊

間島龍井市朝日街 金銀細工 美術彫刻 記念メダル 分析鎔片 **成光堂** 主 成亨福

滿洲新興商會 主 方基燮 電話一四三番

間島龍井市 **啓文堂印刷所** 主 李伯範

間島龍井 **平壤洋襪織造商會**

間島龍井市 **中央旅館** 電話一六七番

間島省龍井市 **得賢利**

間島省平崗大五道溝 海星文校校長 **崔承旭**

間島 **洋品店** 金時烈

間島龍井市 **朝鮮洋靴店**

間島龍井市 **北道紹介所** 金光浩

間島龍井市 中央 **全寅烈**

間島省龍井市 天安屋主 **趙正元**

間島省龍井市 **周興鎭**

間島省龍井 **和泰信藥局**

門德昌

平壤東星製藥會社 和龍縣三道溝代理店 **韓仲欽**

和龍縣三道溝貨物商

和龍縣勇化社私塾校長 **張[illegible]田**

和龍縣勇化社 **王占山**

忠信商店

間島龍井市 金谷堂菓子店主 **朱元澤**

間島省龍井市東山下 **信昌商店**

間島省龍井市 **龍源恩**

間島省龍井 會僑旅館 經理 **王國棟**

間島省龍井市 **吉融商店**

間島龍井市 **東和商會**

間島龍井市下場里 穀物貿易 **李斗福**

間島龍井市下場里 **四海旅館**

三省醫院 醫師 金聖吉

天台

黃海線天台驛前 肥料農具穀物運送 合資會社 **大昌貿易社** 代表社員 林陽燮

黃海線天台驛前 綢緞布木 和洋雜貨 食料品一切 **姜益聲商店**

黃海線天台驛前 **天榮商會** 主 吳龍錫

黃海線天台驛前 龍道面長 **任錫宰**

黃海線天台驛前 **東興商會** 主 崔東振

喪中缺禮 黃海線天台驛前 崔義淳

黃海線天台驛前 **濟生醫院** 醫師 林正燮

黃海線天台驛前 金融組合理事 **近藤朝喜**

黃海線天台驛前 **永信自轉車商會** 主任 李宰

黃海線天台驛前 **張天洙商店**

黃海線天台驛前 **金延式**

黃海線天台驛前 **玄鎰精米所**

黃海線天台驛前 天迎商店 主 **黃永祿**

黃海線天台驛前 龍道普通學校長 **須永次郎**

黃海線天台驛前 綢緞布木 **千光弼商店**

黃海線天台驛 職員一同

黃海線天台驛前 **自轉車商會** 主 [illegible]

黃海線天台驛前 **海東醫院** 醫師 朴[illegible]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九

春川唯一의生命線 京春鐵道敷設促進

그리하야서道廳을死守하자 春川人士여! 努力하라

【春川】 乾坤이一轉하여 陰盡陽來한 新年元旦에 前途의 希望을 包含하는曙光을 바라보고 大夜將明을 豫報하는鷄鳴聲을듣으며 두렷이소사오를 太陽을 기다리면서 나의敬愛하는 春川人士에게 一言을 보낸다 春川은 關東山河에君臨하야 江原道二十一郡의 當當한首府로서 만라고는할수업스나 現在一萬五千의人口를 擁有하고잇스며 年前江原道廳移轉問題가 導火線으로 活火山가티 일어나는 春川郡民의 事業熱과 奮發力에 떠들처일어나는 春川의 加速度的成長發達은 躍進春川의 全貌를 雄辯으로가르치는 것이다 筆者는 春川을 말하기前에 爲先

江原道 의眞相을 暫間말하고자한다 江原道는 面積二千七百三十方里 人口百八十萬을算하며 道內가 殆히山脈이 起伏하야 平野는 僅僅二割餘에 不過하다 그리하야 世界의名山金剛山脈은 海岸에沿하야 버처잇서 恰似히 屛壁과 가트며 南方에 잇는 五台山은 亦是이 山脈中에잇서서 林野面積二百二十萬町步千百의 處女林이 蜿蜒長蛇를 일우고잇스며金銀石炭等 地下의 財寶가 幾十億이되나 이天然의 寶庫는 아즉도 開發될날이 머러다 또海岸線의延長은 實로 一千二百餘里에達하야 屈曲이別로업스며島嶼의 惠澤이 업스나 東海의長箭 注文津 庫底等地는 旣爲築港을하야 設備가整然된 良港이 되여잇다 小道로서의 本道는 到處에 山紫水明하고 風景이佳麗한中 더욱이 海水가 淸澄하야 所謂關東八景의

勝地를 일우엇다 特히 金剛山은 世界名山으로 有名한것으로 다시贅言을不俟하는바이다

그러면 이道의 心臟인春川은 果然얼마나한活力을가지고 現在各部門으로 血液을循環시키며 그動脈과 靜脈의狀態는 어떠한것이더가?

筆者가 말하고자하는것은 交通에對한問題이다 보라! 朝鮮十三道道廳所在地로서 鐵道의敷設이업는곳이 어느곳인가를! 山岳道로서의 本道는 元來天險에阻止되여 陸上交通이 發達되지못한關係가 만치만은 半島에冠絶한 天然財寶를包藏하고잇스면서 언제까지나 長夜의꿈을 꾸고잇스랴는가?

山林道로서의 本道에 잇서서는 治山治水도勿論 産業、經濟上至大한 關係가잇지마는무엇보다도

本道의 時急한 當面問題는 交通問題이다 春川의人士여! 하로밧비京春鐵道를 敷設하라 그리고江原中部 橫斷線을 促成하라 그리하야 海陸의無限한 財寶를 開拓하라 京春鐵道는 春川의生命을 左右하는生命線이다 京春鐵道가 敷設되지안는限 江原道廳은 春川에安住하지못할것이다。晋州와 公州의實例가 春川人士에게산標本을 보여주지안는가? 總資本 六百萬圓의 京春鐵道株式會社 設立期成會는 모든難關을 突破하고 初志를 貫徹하라 그리고 春川의人士는 이目的을 達成하기爲하야 寸分의 努力을앗기지말라! 鐵道期成會의意氣가 沮喪되는날 春川은寂寞한 一寒村으로쓸쓸한 雰圍氣가떠돌것을 吾人은公然히 豫言한다 (春川支局 一記者)

한地方 한問題

社會施設篇

會寧의當面問題는 무엇보다公設運動場

너무도창피, 심히緊要

【會寧】 會寧邑은 現在人口延三萬에 達하는 數字를 抱擁한 國境의 一重要都市라고 稱할만하다 그러면 邑民이 共同的으로 需用될만한 諸般機關이 施設되여 잇는가를 생각하여 볼때에 第一로 邑民의 共有한 運動場施設이 한아도 업는것을 筆者는 一大遺憾이오 當面問題라고 생각하는바이다 웨-그런냐 하면 每年全會寧市民大運動會를 發起한때에 運動에 제일 要素되는 運動場의 施設이 업기때문에 運動을 發起할때에는 첫재로 會寧市內北便한모퉁이에 잇는 鐵道局所有에 係한空地 몃평을 交涉員을 보내여 鐵道局에서 承認이 잇게되後에야 運動準備를 하게되고 만약 鐵道當局者가 不承認하게되다면

全會寧 市民大運動會는 有意莫遂가 되고말것이아니가 그러나 鐵道當局에서빌여주되 鐵道官舍가 갓가우니 大小便을 絶對注意하라는條件附下에 年年이 어더使用하여왓다 그러하나 個人生活에는個人에 限한살임 준비가 잇서야되고 團體生活에는 團體에 限한 살림 준비가 잇서야되고그 以上 一社會나 一國家에 나아가서도 各其該當範圍內에 限한 準備가 잇서야만 날날이 새로워 지는文明의 前途를 남과가티 行進함을 따라서 落伍업시 到達할것이아닌가 다른地方을보살펴보게되면 아무리 적은民衆이모혀 사는 部落이든지 또는 아즉 작은市街일지라도 그곳民衆이 臨時場所를定하고 一二月間使用하는 場所設備에 木材商에게서멋십개식 어더오고雇傭人夫 몃사람 使用시기고 設하야 一大恨事라 아니할수업다 이에筆者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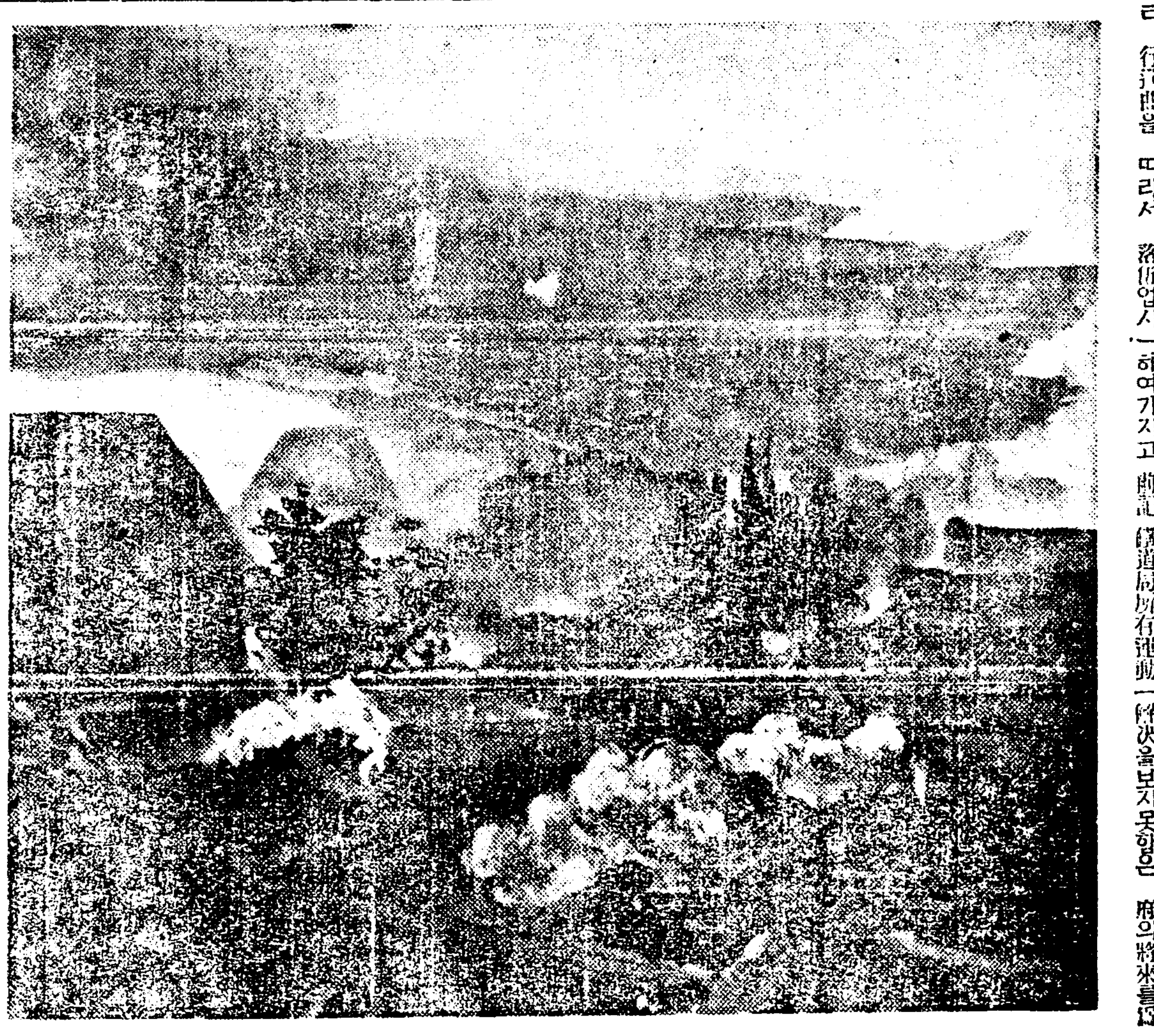
이 問題 의大綱을略述하야 府當局者에

業이 一定하게 運動하는場所는 豫定되여잇고 會寧처럼 全市民이 運動할때마다 交涉員을 보내여 運動場所가그

所有者 의承認이잇서야 運動하게되는것은 會寧이아니면 보지못할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이다른地方 보다 落伍되는緊急한 當面問題가 那邊에在한가를 筆者는 다시한번 생각하여 보는同時에 이未備한 責任이 市民의無能力한것보다도 全會寧의 繁榮策과 全市民共存의 指導機關을 가지고잇는 邑當局이 아닌가하는 늣김을 가지게된다 다시 뒤처 생각하면 邑當局으로서 誠力이 不足되여 未備한 責任을 지고 잇는가 또는 一個運動場이 一般市民에게 何等必要가 업는줄로알고 不爲也언정 非不能也로 지내여오는가 또는 市民一般으로서 邑當局에 對하야 간절한 要求가 업서서 至今까지 無意하야 지내여 오는지 이點에對하야 再三考慮되는것은 단지

누구의 責任이라고 指摘할수업고 全會寧社會가 文化向上에 落伍되여 잇는것이라 할수밧게업다 다시말하자면 年年이 市民主催로 大運動會가 發起되는때에 運動會로 千條圓에達하는 金額을募集하여가지고 前記 鐵道局所有運動場 費用으로 二三百圓의巨額을 消費하군하니 一二年도 아니오 二十餘年을 내려오면서 그모양으로 濫費하여 업선것이 얼마가 되는가 그러는동안에 一般市民에 나아가는 大會寧의 筆者의 共有한

運動場 設備가되여잇는 것이 一個所가 업스니 이것이 날날이 發展되는 眼目으로볼때에 第一當面한 緊急한 一問題라고 아니할수업다 (會寧支局 一記者)



◇……尹氏喜淳試筆

貧民을爲한施設

共同住宅、就業方法等等 此亦釜山의緊急問題

【釜山】 釜山府는 近年 民口의 發展을 遂하야 現在戶數가 三萬八千餘 人口가 十八萬餘名에達하며 府의 歲入歲出의 豫算도 各各百九十八萬餘圓을 突破하야 外觀上으로는 朝鮮第一位의都市로서 面目이 顯如하다 그러나 其內部를 解剖해볼때 許多한重要問題가 未解決이란 꼬리표를붓친채로 放置되여잇서 識者로하야금 慨嘆을不禁케하는現狀이다 그런데 其許多한重要問題中에 特히時急을要하는것은 貧民을爲한施設問題이것이다 이問題는 數年前부터 府民間에論議되든바이나 아즉까지 解決을보지못한것은 府의將來를爲하야 遺憾이다 解決을促하는同時 一般府民의 參考에供코자하는바이다 現在釜山府에는 當局者의調査에依하면 年收入三百圓未滿의戶數가 一萬八千餘戶이여서 總戶數의約半數에達하며 또其中에는 飢餓線上에서 彷徨하는 極貧者가 二千七百餘戶에 人口一萬三千餘名이라한다 이들의 大部分은 交通의 不便이 莫甚하고 飮料水井戶가 不潔한市街附近의 山麓及山腹에서 움집을짓고 文字그대로 慘憺한 生活을 하고잇서서 이대로 放任하야둔다면 不測의不幸을 招來할것은 明若觀火의일이라 이들의 救濟方法을 時急히 講求하지안흘수업슬것이다 그런데 府當局者의 이問題에對한 態度를보건데 無誠意하기 짝이업다 救濟의

一方法 으로서 各勞働市場을 中心으로 數處의地를 選擇하야 簡略한 共同住宅을 建築하고 極貧者에게 無料又는 極廉한料金으로 提供하야서 寒暑와 風雨를 避하게하고 또府內各勞働市場에 就業의方法을 講究하는同時 適當한家內手工業其他簡易한事業을 일으켜서 그들의 一部를 此에 從事케하야 生活의一助가 되게할 助産地區를 設置하고 其他의 貧民이 住居하고잇는 山麓 山腹地帶에 簡易道路를改設하야 交通의便利를 謀하고 飮料水井戶를改修하야 衛生保健上危險이업게하는等의 施設이必要할것이다 이施設에對하야서는 이미府民의識者間에서 累次論議한바이며 府當局者는 財源捻出의方法이 업다는口實下에 아즉까지

其施設 의實現에 誠意를 가보이지안는다 그러면 이施設의經費가얼마나 所用될것인가 各關係者의意見을 綜合하야보건데 助産地區設置에는 爲先約五萬圓이면할수잇는데이施設은 作業上國庫及道地方費의補助를 바들수잇슴으로 府의負擔은 約二萬五千圓에不過하리라하며 簡易道路改設에 約四千圓、飮料水井戶改修에約千圓等總經費 三萬圓이면 할수잇다한다 府當局者여! 一個年에百九十八萬餘圓의歲出豫算을編成하면서 三萬圓의財源捻出方法이업다할것인가 다시反問하노니 前番의消防組不正事件과 汚物淸潔事務所不正事件으로 數萬圓의損害를當할만한 財政上餘裕는잇서도 飢餓線上에서 彷徨하는 府民을 救助할數萬圓의 財源捻出方法을 講究하지못한단말인가

一官吏 의榮轉에 二千圓記念品代를贈呈할財源은 捻出할수잇서도府民의生命을 威脅하는 不潔飮料水井戶改修費를 捻出方法이 업는것이 아니라 施設에對한 誠意가업다는것을 再三質問하고자한다 府民의幸福을 爲하야 大釜山建設의 百年大計를 爲하야 爲政者의 責任을 遂行하기爲하야 하로밧비 施設에 着手하도록要望하는바이다 (釜山支局 一記者)

沙里院發展의癌 上水道建設急務

『時期尙早』說은認識錯誤 그리고야發展이잇다

【沙里院】 新興都市沙里院은 그施設에잇서서 緊急한 問題가 한두가지가아니다 日 上水道、商校、公設市場、紡織市街貫通線移轉、市內廢河川整理、市街道路改修 市場整理等이 모다 沙里院施設에 當面한課題라고 할수잇다 그러나 이여러가지 緊急한問題中에도 一層 急務로하는것은 上水道建設問題라고 할수잇다

上水道의建設은 都市發展에 基本要素라고 할수잇스니 沙里院이 아무리 地理的 經濟的으로 發展할 要素가 具全하엿다할지라도 內的施設에 가장

重要한 上水道가 建設되기전에는 大沙里院으로서의 進出은 期待키難한 理想이라할것이다 都市發展은 만흔人口를 吸收하는데잇다 만흔人口를 吸收하라면 大企業 大工場이 設置되지안흐면 아니되는만큼 大企業大工場을 誘致할하야 不可缺의 施設을 하여야 할것이다 最近沙里院의 急激한 發展에 따라 外地의 資閥이 大工場을 計畫하고 數次沙里院을 視察하고 간일이잇으나 그들은 沙里院에上水道가 建設되지안흔것을 云云하야 沙里院에 大工場經營은時期尙早라고하엿다한다 勿論이것을 單純한 理由로 計畫을 留保하는것은 아니겟지만 如何든 資閥誘致에 한缺陷이라고 아니할수업다 뿐만아니라 上水道는 沙里院三萬人口의 衛生問題에도 重大한 問題이니

專門家 의鑑定에依하면 沙里院井戶七十餘處所에 飮料水에 適當한것이不過五六個所라하니 듯기만하여도 當場에 病魔가 곳달려붓는듯한感이 업지안타

이上水道延設問題는 이미 邑當局에서 三十萬圓의 豫算으로 總督府에認可願을 提出하야 累次 總督府에서 技師가 沙里院의上水道延設의 緊急함을 視察하고간일이잇는데 沙里院은 어데든지 鑿井하면 水量이 豊富하야 上水道가 그다지 必要치안타는것이 氏의調査에의하야 結局 沙里院은 아즉 上水道延設이 時急한것이아니라는 結論이 내려그實現이 漠然하다아니할수업스니 이것을 보면 氏의調査가 綿密을 缺한것보다도沙里院의市民의

上水道 建設에對한 積極的運動이업는 關係로 要急한實情이 總督府에 反映되지안헛다는것을 自認하지아니할수업다 問題와는 좀다른 길이지만 沙里院은 그發展의 程度에 比例하야 施設이隨伴하지못한다 이 原因은 여러가지 客觀的 事情이 만켓지만 그보다도 沙里院은 內在的으로 沙里院의 發展을 爲하야 犧牲을 奉仕하는 民間有力者가 極히적다는것을 附言하지안흘수업다

都市의 施設經營에 잇서서는 當局者의 行政的 手段에 依하는바가 만치만 그럿타고 해서 民間側에서 거긔에對하야 全然 放任의態度를 取한다든가 無關心하는바가 업서서는 往往이 閉塞하는問題가 看過되기 쉬우매 더욱이 그實現을 보기어려울것이다、三萬市民의 衛生上으로 重且大한 關係를 가지고 잇스며 大局的見地에서 都市經營上 唯一한

要素인 上水道問題가 遲延하게되는 것은 實로 行政當局者의 認識不足의 由因이라는것보다도 沙里院市民의 積極的運動이 缺如함을 切感하는바이니 沙里院市民은 此를 龜鑑으로하야 今年은 모든施設中에도 上水道建設實現에 邁進하기를 促하는바이다 (沙里院支局 一記者)

年魚産百萬圓의 三湖築港을絶叫

一萬三千住民의死活問題로 一般의聲援이잇기를

【三湖】 온갓方面으로보아 無上의落伍된 우리의 處地로서 事의緩急을 論할배아니나 우리三湖에잇서서는 全住民의 死活政路에處한問題가 잇스니 是卽本報를通하야 大書特筆된 漁港修築問題이다 三湖는 東海岸에 有數한 漁港으로서 一千三千餘戶의 戶數와 一萬三千餘의 人口를 收容하고 잇는바 純全히 鰮魚와 明太魚로서 年産額百萬圓에 達하야住民은이로서 生活을 保障하고잇스며 全般經濟를 左右하고잇는 것이다 우리의

生産物 로서 國家의 世界先進中央市場을 風靡하고잇스며 經濟를旨히고잇는 鰮漁業과 歷史的으로 朝鮮水産業의 首位를 占領하고 잇는 明太魚業은 우리三湖를中心하야 漁撈陣을 느리고잇스며 漁場을 設置하고잇는것이다 그리하야 鰮魚期에 잇서서는 定置網漁業者及 巾着網漁船들이우리三湖에 總集中하고잇스며 明太漁期에 잇서서는 江原、咸北各漁津의 揚網底角網漁船들이물미듯 쏘려드러 一大混雜을 演出하고 잇는것이다 그뿐아니라 온갓漁船들은

作業中 에 風浪의 襲來를 當하면必히 最短距離인 三湖港을 차저드는것이다 그런故로 三湖는一種의 避難港의 役割을 하고잇는것이다 이와가튼 有利한 條件을 차지하고잇는 三湖港의施設을 一觀할진대 寒心千萬으로되여잇다 人爲的 施設이라고는 開港以來에 업섯고 天惠의 港灣으로서 僅僅 生産을 扶持하고 잇는것이다 그러나 桑田碧海는 變化의 原則임에야 엇지하랴 흘러나리는 長江의 힘으로서 海底는 나날이 沙壁이 생기고水深은 해마다 淺瀨化하야 濱丘를 일우엇슴에

船舶은 繫留할수 업게되엿스며 漁船出入의 自由를 喪失하야 住民의 生活張本인 漁業을 發展할수업게 되엿스니 이엇지 一萬三千住民의(部落人口)死活問題가 아니고 무엇이겟는가 이現象대로 不過數年內에 住民의——生命線인 漁業은 根本的으로 破綻될것은 明若觀火의 事實이니 그런故로 前次 住民은 蹶然히 蹶起하야 築港期成會를 組織하고 所期의 目的을 貫徹하려는 것이다 우리三湖에는 目下 二大急務로서 漁港修築과 子弟敎育機關充實인바 이 二大問題中에서도 먼저 經濟的

重大性 을 內包하고잇는 築港이 最急先務다 生活이 動搖되는곳과 生産이 업는곳에는 무엇이든지 存在의 必要를 늣길수업슬뿐 아니라 또한存在할수도 업는것이다 그럼으로 우리 三湖에잇서서는무엇보담도 漁港修築의 必要를 痛感하는바이다 요새 各層의 人物들이 蜂起하야 自己系統의 事業을 宣傳하고 我田引水式의 工作을 꾀하고잇스나 이는 偏私한 考慮인즉 우리는 大局에 着眼하야 事의先後 緩急을 分別하는同時에 將來 萬一 遺憾이 생기지안토록 行事하기를 바라며 築港期成會幹部諸氏의 健全한 努力으로서

全住民 의生命을蘇生케할 築港이 可及的으로 速히 實現되기를 바라며 갓흐로 社會一般人士의 積極的聲援이 잇기를 眞心으로서 비는바이다 (三湖支局 一記者)

有名한白川溫泉場 公會堂이업서遺憾

有志들이여! 努力하자

【白川】 白川이라하면 海西의 小都市요 또 오래前부터 여러가지方面으로 손꼽아오는곳으로서 現下에만 놉흔사람의 입에오르내리는곳이다 더욱이 近年溫泉의發見과 土海線鐵道의 開通其他諸種의 企業施設로말미암아 長足의發展을 보이고 따라서 比較的 文化施設의 完備를보이는곳으로서 여긔에 아즉까지 公衆集會場한아이 업다는것은 우리住民의遺憾뿐이아니라 남이들어도 驚愕할만한事實이다 一年에 몃번아니되는 會合이라도 普通學校에서 拒絶을當하면 갈곳이업고 또조고마한會合에도 이집저집으로 도라다니게되는것은 非便도 그러커니와 實로한地方의羞지아니한體面問題이다 그야 이公會堂建築問題가 아즉 不問에 잇섯거니와 提議가 안된바아니요 年來로 機會잇슬때마다 論議해온바이요 더욱이 靑年會에는若干의基金까지 맨드러 잇는바이나 엇지하엿든 今日까지 此의實現을못본것만은 남에게붓그럽고 우리로서 無悶을不禁하는바로서 우리白川에잇서서 가장急하고 緊要한問題이다 그런데此의建築에는 그리큰金額을要치안켓스매 여러의分分도 조흐나 그러나 더욱이 한두분의 篤志를바라는바이다 또位置나工事에關한問題야 輿論할바도 못되는바로서 當事者(靑年會幹部)의努力과 地方富豪의 誠意如何에 잇슬뿐이다

一九三六年에는 나라마다軍艦과飛行機가 만히도생길것이오우리白川의公會堂도 한채솟치도하지안흘가

이에서 다시금靑年會幹部의活躍과篤志家의喜捨 그리고大衆의聲援밋해서 반드시 此의實現을期待하는바이다 (白川支局 一記者)

高原

高原金曜會

高原驛前 殼物運送貿易 ㊄ 丸王運送店 金弘周 申泰銀 電話二一番

000037

高原驛前 三元醫院 院長 徐才選 徐亨選

咸南高原邑內 綢緞布木和洋雜貨 土鹽原鹽一手販賣 簞子北鮮一手販賣 米油組合支庫保管 新興商店 主 趙昌俊 電話一八番

高原水洞面 八興金鑛 鑛主 金思勳

高原水洞面 水興金鑛 鑛主 金浩鉉

高原郡梁泉寺 住持 金允成

咸鏡線高原驛前 高原釀造所

鑛業 李文圭

高原郡郡內面職員一同

水洞面事務所 職員一同

高原公醫 金亨瓚

高原郡上山面珠塘里 金斗秀

高原德池市 張明河

高原邑內 司法書士 蔡東仁

高原邑內 司法書士 成英軫

高原邑內 金秀精米所

高原邑內 薪炭商 朴鎭圭

高原驛前 シンガー裁縫機械會社 高原分店 主任 朴得默

咸鏡線高原驛前 高級メリヤス 日用品雜貨 東華商店 主 申東烈

咸南高原邑 時計及レコード販賣商 金星時計店 主 金寶俊

高原白蓮庵 住持 裵悟雲

株式會社朝鮮日報社高原支局 月刊雜誌朝光高原支社 支局支社長 金鎭洙 記者 申泰玩 土嶺駐在記者 金永斗 顧問 宋在璿

高原邑內普濟局 醫生 韓愚甲

高原德池市 醫生 文應善

高原德池市 貿易商 金應律

高原郡郡內面 協議員 鄭亨舜

高原驛前 孟泰裕

咸鏡線高原驛前 高原印刷所 主任 梁東原

水洞面仁興里 文昌國

和洋百貨 春澤商店

高原德池市 綢緞布木 李鍾丙商店

高原邑內 司法書士 丁台圭

高原郡上山面 面長 金聲玩

高原驛前 辛榮珠

高原邑內 大昌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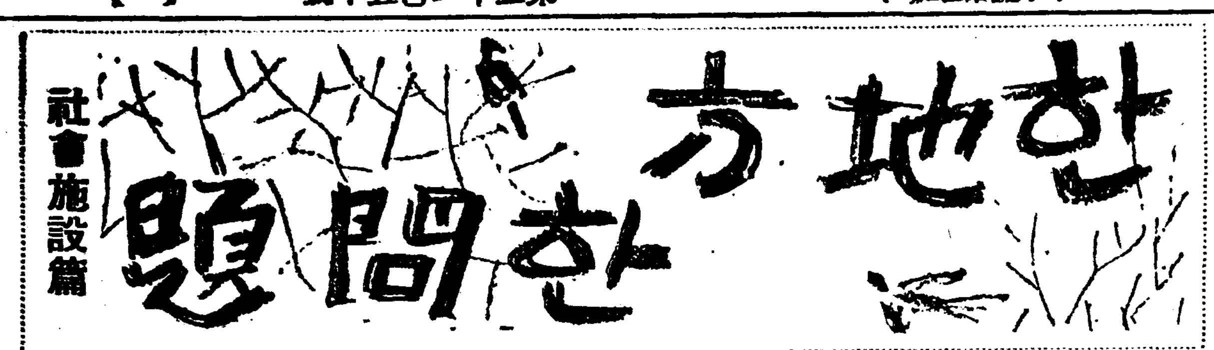
高原郡郡內公立普通學校 校長 菊永純秀 訓導 徐鎬信

高原 道議員 吳錫祜

高原邑內 權鎭烈

咸鏡線高原驛前 東地運搬自動車業鐵山專屬 丸友運輸組 鄭宗三

高原郡鄕校 文廟直員 金昇秀



南北에呼應躍進하는 우리運動界의現勢圖 (二)

嶺南의運動界는 學生軍이主力部隊

大邱의青年軍振作의主條件은 運動場設置가最急務

(大邱支局 記者 李東雨記)

一九三五年은 半島스포-츠界에 燦然한歷史의 한페지를 남겨주엇다 이러한해에 우리南部朝鮮의 스포-츠界를 리-드하는 大邱體育界는 지난一年동안에 얼마나 한成果를 어덧는가? 먼첨우리는지내온 一年동안의足跡을回顧하면서 닥처올三六年의 새舞臺를 展望하여보자 大邱는南朝鮮地에서 首都格인 都市인만큼 教育機關이 相當히整備되여잇다 딸어서 大邱體育界를 論할때는 自然學生軍을 말하게되며 또한 學生軍은各部門의運動에잇서 中央에進出할뿐아니라 全朝鮮의霸權을 잡고日本內地에까지 遠征을가는일이 頗多하나 一般靑年軍은 모든運動部門에잇서 不振하는現狀이다 우리는압날의 飛躍을爲하야 먼첨이不振하는 理由를究明치아니하면 안될다 筆者는 그不振하는 理由로 세가지缺點을 들고저한다 첫재 公設運動場이업는것 둘재 運動選手의 就職處가적은것 셋재 各種運動을 總動指導할 體育機關이업섯든것等이다 選手가運動場이업다는것은 이것보다 더큰苦痛과 打擊은업다 慶北陸上競技界의 不振은 무엇보다 이를如實히 말하고 잇스며 運動選手의 就職處가 적다는것은 庭球界를보면 잘알수잇다 現全朝鮮의 霸權을잡고 日本內地에 遠征하여 全日本庭球界를 席捲한權福仁(殖銀)崔永生(延專)黃基成等選手와 우리球界의 至寶인李榮敏君等이모다 大邱가나은選手들이다 끗으로 大邱에는 體育機關이 하나도볼만한것이업스나 다만大邱蹴球協會가 創立以來六七年동안 嶺南蹴球界를爲하야 每年全朝鮮或은 南朝鮮蹴球大會를 開催하여斯界에 만흔貢獻을하여왓스며 大邱市民大運動會가 約十年이란긴時日에 每年一回式大運動會를 開催하여오는것은 大邱體育界의驚異的事實이며 그功績은 大書特書할바이다 다음에우리는 各部門의一年間의 戰績을살펴보자

姜小光之 金潤 黃仲協

中學部로는 大邱啓聖學校가蹴球王國을 建設하고잇다 지난十一月二十四五日에 大邱서擧行된全朝鮮蹴球大會에AB두組가出戰하야 大邱高普 金泉高普等을 물니치고 同校의AB兩組가決勝케되것을보아도 蹴球啓聖의全貌를 알수잇스며 神宮競技에 出場하여 强豪 一高와海高를 모조리 二對○으로 깨트리고 決勝戰에서 培材에게二對○으로敗北하엿스나 同軍의불타는鬪志는 全朝鮮制霸의 機會가잇스리라고믿는다 그外에도 大邱高普、師範、農林等이 모다地方팀으로서는相當히充實한實力을 가젓스며 少年軍으로는 全朝鮮蹴球大會少年部에優勝한 大邱南明學校를爲始하여壽道、海星、復明、大邱、壽昌等이모다 未來의 大選手가 될

◇…綜合競技中等蹴球에優勝한徽文高普軍

擴賣를 가지고 부스런히 練習을하고잇다

【럭비】 럭비는 朝鮮에輸入되지도 그리오랜것이아니나 京城에서도 養正、京師等이 겨우練習을 하기始作되엿든 七八年前에 大邱商業과 大邱中學이처음始作하엿든바 그後商業卒業生이 中心이되여 全大邱軍을 組織하자 京師를卒業한 申氏가加入하여 大邱軍은 名實이 한가지로 大邱의 代表팀으로서 每年擧行되는 對釜山都市對抗戰에 數年優勝하엿스며 中學部로는大邱商業이 每年南朝鮮代表로 京城에出戰하나 去年에는 養正軍에 昨年은 京師軍에 敗北하엿스나同軍이좀더試合經驗을가질수잇다면 全朝鮮制霸의 날도머지 안흐리라 고믿는다 더욱히昨秋씨-슨에 驚異的出現은 醫專럭비軍이다 今年府內리-그戰에는 三年連勝의 商校를 擊破하고 優勝하엿슬뿐 아니라 京城에遠征하여 對京城醫專戰에는 六-五로 惜敗하엿다 今後商校、中學等 中學팀의 發展과 醫專軍의 進境은 全大邱軍에 큰힘이될것을 밋는바이다

【庭球】 庭球에는 大邱軍이 歷史的으로全朝鮮的强팀이다 現全朝鮮代表選手인 權福仁、崔永生을 輩出하엿스며 全朝鮮制霸의記錄도 가지고잇다 그中에도·더욱히 大邱女高普軍은 神宮競技三年連勝의 偉業을 遂行한 歷史를가지고 昨年은 不幸히 準決勝戰에서 李琴仙、林正浩組가 敗北하엿지마는 昨年度의 모든 南朝鮮大會에 모조리 優勝하엿다 男子 中等部에서는 大邱商業을 筆頭로 師範、高普、農林이 모다 庭球王國 大邱의將來를 직힐 充分한 實力을 가지엇다。

【卓球】 神宮競技에는 每年連勝하니 이야말로 無敵軍이다 今年度戰績을 본다면 準決勝戰에 남은 四人中 京城一高女의 橫山孃을 除한 남어지 三人이 모다大邱女高軍이엿다 準決勝戰에 아래와가튼 스코어로 金丁恩選手가 優勝하엿다

金丁恩(大女)3—0橫山(京一女)
李福喜(大女)——林孝順(大女)

第八回 明治神宮體育大會에 金丁恩 李福喜 二孃이 朝鮮代表하여 出戰하야 日本全國의强敵을 擊破하고 準決勝戰에서 李福喜孃은 東京代表인 黑崎孃에 惜敗하엿스나 全日本女子卓球『랑킹』六人中의 하나로 伏見宮殿 寄贈試合에 出戰하야朝鮮女性의 씩씩한기운을 보이고 萬丈의氣焰을 올리엿다 男子部에서는 大邱農林이 慶北代表로神競에 出戰하여 조흔成績을 남기엇다

【籠球】 啓星、高普、師範等을 擊破하고 慶北代表로京城에出戰한大邱農林은 一高에게敗北하엿스나 그技術的訓練에잇서서는 中央軍에比하여 조곰도 遜色이업다 女子部에서는 大邱女高가 高女와 京城同德軍을 擊破하엿으나 아직도 中央制霸의 境에達하자면 여간한努力이 업서서는 아니되다 同軍의奮發을빈다.

【野球】 野球는全大邱軍의빗나든時代를 지내고 中學部에서 大邱商業이朝鮮代表로 兩回甲子園의 땅을밟엇스나 그後多少沈滯狀態로今年度도 南朝鮮代表로 出戰하야 湖南代表太田中學軍을 準準決勝에 擊破하고 準決勝戰에 新義州商業軍에 敗北하엿스나 同軍의 今後活動은 甲子園出戰의 機會가오기그다지 어려운일이 아닐줄 안다 青年軍으로는 大邱佛敎青年野球軍이 朝鮮사람野球團의 唯一한팀으로서 全大邱野球團의命脈을傳하고잇다

【拳鬪】 最近輸入된 運動으로서 旋風的人氣를 集中하면서 一般에게 센세이숀을 일으키고잇슴을본 大邱嶠南學校에서는學生의 體育을目標로 三年前에同校에링을 設置하고 猛練習을한結果現朝鮮選手權獲得의候補者인 辛玖煥君等을 내엿스며 昨年六月에 大邱 佛敎 靑年會에서는 拳鬪俱樂部를 創設하고 東京日米 拳王俱樂部의 林寅一選手를코취로 招聘하여 三十餘名의 部員을어더 猛烈한練習을하여오든바 지난十二月十五日에 創立記念試合으로 大邱公會堂에서 世界프라이級 十傑의하나인 米人스피리타이君을 東京으로부터 招聘하여 對林寅一八回戰과 嶠南學校拳俱對佛靑拳俱의 아마추어拳鬪試合을 擧行하여 大盛況을 일운것은 지난一年동안大邱運動界의 큰收穫이엿섯다 이外에도 스켓트 排球等이 잇스나 모다揷話의 域을 떠나지못하엿다

★…躍動하는朝鮮의少女들!(同德女高普校庭에서)

◇…南朝鮮蹴球의王座大邱醫專軍

各部門을通해 括目할女學生軍

男學生軍年年長足進步하여 中央制覇氣勢熾熱

【陸上】 大邱運動界에 第一 沈滯된部門은 陸上競技이다 一般과學生軍을 通하여 하나도뚜렷한 記錄을 가진것은 업스나 大邱農林의 金潤根君은 全日本農校陸上大會에 出戰하여 投圓盤 砲丸投 走幅跳의 三種目에 優勝하여 全大邱뿐만아니라 全朝鮮學生界를 爲하여 萬丈의氣焰을올리엇다 女子部에는 大邱女高普軍이 斷然빗날뿐더러 그中에도 投圓盤에 一三米○三(神宮)을낸 李點伯選手의 記錄은 全朝鮮的 大記錄이며 走巾跳와 障碍의 金判邦選手 短距離의金慶達 崔貞浩兩選手等은 全朝鮮女子運動界의 超努級이다 圓盤投 投砲丸의 李點伯 選手의 明年度制覇는 틀림업슬것가트며 大邱綜合運動場의 完成에 딸아 大邱陸上競技界의 進出이 매우 注目되고잇다

【蹴球】 大邱醫專軍은 全朝鮮的蹴球選手인 車晳、李梓傑、李燦雨等 選手를主로한 强力한 攻擊軍으로 南朝鮮地方에서無敵軍의 別名을듯고잇다 不幸히中央에進出할 機會를 엇지못하여 그實力을 十分發揮치 못하엿슴은 遺憾으로 어기지안흘수업다 그戰績을 보다면 東京留學生對全大邱戰에 選手四名이出戰하야五對三으로勝捷하여고 對京城學專戰에는二對一로 敗北、對京城蹴球團戰에도 選手四名이出戰하야五對二로 敗北하엿스나 十一月二十三、四兩日에 擧行된 全朝鮮蹴球戰에는 對全大邱戰에 五對○、對醫專戰에 十一對二의大差로 優勝하엿는바 今春에車晳 將外數名의選手를일허바리나 同軍은中央制覇의 野心滿滿히 더욱精進하고잇다 選手氏名은如左

車晳 金幸德 曹正煥 金潤根 李梓傑 李燦雨 朴夏潤 李永遂 白益守 裵致道 鄭二德

◇…南朝鮮女流運動界를빗낸 選手들

새로히組織된 嶺南體育會

前途가크게企待된다

各部門選手의 三六年度의 健鬪를빌며 지난九月中旬에 創立된 嶺南體育會를 紹介하여 그前途의活躍을 期待한다

嶺南體育會 創立時日 昭和十年九月中旬

幹部氏名 會長尹相泰 總務尹龍基 常務理事 李能植 徐丙彥 宋基寶 金永濤 理事 金俊泰 崔三植 車性鎬 徐丙直 監事 馬英 千申辰 徐文圭

事業槪要 籠球 蹴球 陸上等朝鮮人의 體育을 獎勵할모든競技大會를 開催할豫定

第一回事業 九月二十三、四兩日에全朝鮮씨름大會를開催

第二回事業 十一月二十三、四兩日에 全朝鮮蹴球大會를 開催

先進都市에도압선 新義州의"라"式蹴球熱

中央에도 威名을 날리는 新義州高普軍럭비

아式蹴球도漸次發達

新義州支局 金明奎記

지나간一年間의 新義州、宜川、定州、安東縣의스포-츠界를 돌아보아 그중가장 크고意義잇는 競技와 活動을 적어보자。

第一번저 特記할만한것은 輸入되지 얼마되지 아니하는『럭비』가 平壤가튼스포-츠都市에서도 아직始作되지 아니하엿슴에不拘하고 新義州에서 括目할만한 發達普及을보아 新義州高普가京城에 遠征하야 相當한成績을 올리엇스며 또新義州럭비俱樂部가 經濟的困難을 突破하고 京城에遠征한것이다。新義州에 이가티『럭비』가 隆盛하게된것은 對岸 安東滿鐵『럭비』團의 先輩들이 新義州 高普를爲始하야 新義州 市民에게 손수『럭비』를 가르켜준 德分이며 또이에 間接直接으로 指導後援하여준 數氏의努力의結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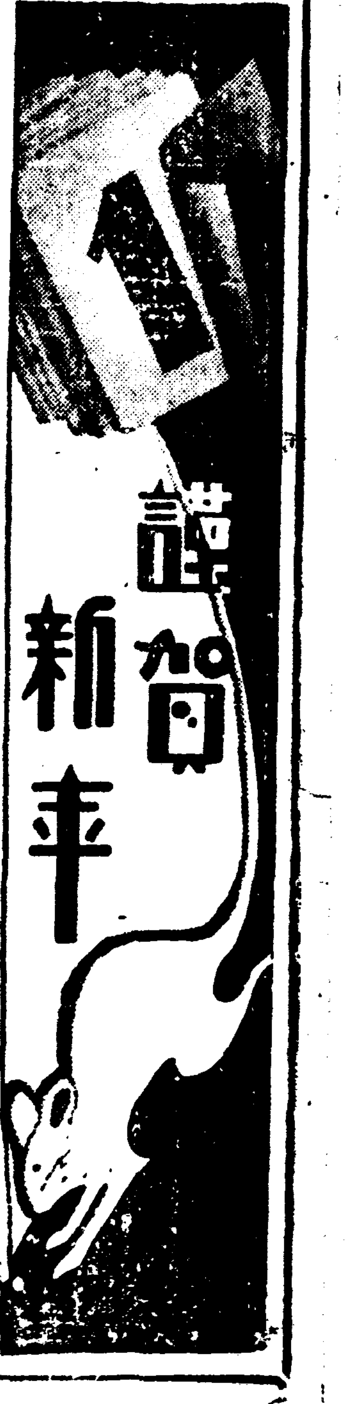
이에잇서서는 昨夏第一回 國境『럭비』大會를 主催한 本報新義州支局도 적은功獻을 남겻다고 自負할수잇스리라고 밋는다。그리하야 只今에 잇서서는 아직規則에 對한理解가 적다고는하나 安東滿鐵『럭비』團을 이기는新義州軍은 臨州의靑의 稱讚을들만도하다 그러나 아직朝鮮制覇에는 前途遙遠하므로 將次로의 不斷한 精進이 必要하다。一方朝鮮의 가장普遍化한競技의 하나인『아』式蹴球도 漸次全朝鮮的 水準에로 躍進하고잇스니 昨秋 定州(五山同窓會主催)新義州(新義州朝鮮人記者團主催)와宜川(宜川體育會主催)에서 열린蹴球大會에 잇서서 平壤蹴球團에 或은 지기도 하엿스나 때로는 손쉽게 물리첫스며 昨年 安東驛、蹴球大會에잇어서 當地朝鮮人蹴球團은 安東滿洲人團을 壓倒的으로 이기는等 그水準이놉흠을 證明하엿다

更一進奮發할 新義州體育會

急速解決해야할것은運動場 企待되는各界活動

回顧를 여기서 끗막고 今年의스포-츠界를 展望하기前에 한마디걱정할것이 잇으니 新義州에 잇어서 가장 큰組織體인 新義州體育會는 運動場問題라는 暗礁에 올라가 數年來 一年에 한번식 脚戰、承鍛大會를 열는同時에 이것은열엇다。)아모活動이 업서 選手指導는 커녕 後援에도 힘을 들이지아니하니 섭섭한일이다 그러나 今年에는 同會에서 組織을 새로히하야 運動場問題를 解決하는 一方各種競技指導와 後援에 盡力하리라하니 기쁜 消息이다。(以下三面에續)

◇…國境럭비界의雄 新義州팀



山淸

山淸郡農會

山淸郡公立學校長會

山淸砂防事業所職員一同

慶尙南道會議員 吳明鎭

崔載業自動車部 主 崔載業 運轉者 崔盛斗 同 全變璨

三五運輸部 主 李鍾潤 運轉者 閔致鏞 同 李鏞洛

梧釜面協議會員 閔祈錫

今西面

生草面

山淸文廟直員 姜鍾爀

司法書士 沈又判

山淸面協議會員 申台弘

山淸面協議會員 姜顯虎

山淸面協議會員 宋金實

山淸面協議會員 宋準元

株式會社 和信連鎖店 互信商會

綢緞布木食料雜貨 朴仁淑商店

山淸金融組合

山淸面

山淸消防組小頭 閔營鎬

車黃面

梧釜面

林慶澤

生草釀造場

山淸金融組合長 朴殷陽

鑛物商 吳致道

新興印刷所主 宋瑋周

山淸消防組頭 趙仁守

山淸消防組副組頭 佐藤金作

公醫 李昭宰

愼允玉

郵便所長 李基鉉

興上

定平郡朱伊面龍江里 輔成金鑛 鑛主 李東烈 本籍 咸興府大和町四丁目九十八番地

定平郡朱伊面歡喜寺 張玆光

咸州郡興上 貿易商 徐景澈

咸州郡朱地面興上里 地境金融組合 職員一同

興上郵便所長 李東壎

定平郡朱伊面所 職員一同

咸南興上驛前 病院醫師 盧鸞奎

咸州郡朱地面富山里 大成宮旅館 主 金陞杰

咸川郡西面事務所 職員一同

定平郡朱伊面歡喜寺 李致英

定平郡朱伊面歡喜寺 姜裕碩

定平郡朱伊面歡喜寺 李炳嚴

咸南興上驛前 丸星自動車運送合資會社

咸州郡朱地面興上 水雲醫院 盧吉壎

定平郡朱伊面歡喜寺 李在尺

咸南興上驛前 朝鮮燒酎製造 海東釀酒所

咸州郡朱伊面歡喜寺 住持 李寶文

咸南興上驛前 鐵物商店 主 韓熄川

咸州郡朱地面興上驛前 興上病院漢醫部

咸州郡朱地面長 朱培柳

咸州郡朱地面項水里 咸興養德醫教員 金衡權

咸州郡朱地面項水里 金炳瑞

咸州郡朱地面 事務所職員一同

咸州郡川西面雲興里 尹應國

咸州郡川西面龍江里 韓仁春

興上驛前 崔斗欽

咸州郡朱伊面新成里 全?瑩

地境購買組合

咸州郡朱地面興上 布木商 徐豊甲

咸州郡川西面雲興里 李敏俊

咸州郡興上驛長

咸州郡川西面鶴峰里 韓炳淪

咸州郡朱地面 申錫濡

咸州郡川西面雲洞里 醫師 韓禎瑨

興上驛前 金在貫

定平郡朱伊面新成里 韓生福

咸州郡川西面雲洞里 韓先國

都市에서農村으로 關北體育界新局面

咸興體育會가主體가되어 果敢한活動을展開

(咸興支局 朱洛瓚記) 해와더브러 飛躍的發展의 한걸음을것고잇는 北朝鮮體育界가지나간 一年동안에는 果然엇더한 발자최를 남기엇스며 將來 얼마나한 飛躍을約束하고잇는가 爲先 머리속에 떠오르는것만도 關北體育界의 支柱라고 할수잇는 咸興體育會의前無한 大活躍北朝鮮最初의 咸興公設運動場의完成 三部綜合競技對抗戰等 實로枚擧하기겨를이 업슬만큼 만타 그러나 이보담도 더욱全般的으로 消消할潮流가 흐르기시작하고잇는 가장깃거운 收穫의 몃가지를 紹介치 안흘수업다 첫재로 農村體育의 活氣는躍進이다 從來體育은 한갓都市의 獨有物인듯한 늣김이잇서 실상體育의 非大衆化에 一抹의섭섭한感을 禁치못하게하든바 近年에이르러서는 農村의體育熱이 漸漸움트기 시작하여 업는餘暇를타서 업는空地를利用하여 靑少年들이 한군데모여 特히農村의 가장適切한 運動인 蹴球를 뛰나게하고잇는 壯快한場面을 어듸가든지볼수잇다 이러한 現狀에感하여 咸興體育會에서는 그主催한 北朝鮮蹴球大會에特히 都市一般部와 農村部의 二部로난호아 農村體育의發興에 힘쓴氣勢에 順應하게되여 昨年第一回에 벌서六個農村團體의 出戰을보게되엿고 永興의咸鏡蹴球大會 定平의三郡對抗競技大會에서도 農村팀의參加가 絶對多數를占하엿다 이러케都市主催의 大會에出戰하는동시 農村과農村間의對抗戰도 昨年中에만 三十餘回나된다하니 果然놀라운 大量現象이 아닐수업스며 압흐로 더욱더욱 農村體育의 躍進할것이 크게期待되고잇다。

燦爛한歷史가진 咸興體育會功勳

再組織後에飛躍的으로活動 昨年中成果도不少

단一年동안 對內對外的으로모다 실로 눈부신만큼한 飛躍的躍進途上에 올으고잇는 北朝鮮體育은 아직그前途가 極히洋洋한바잇거니와 이제이만큼한躍進과發展을 하기까지이르게된 背後에는 實로 피나는듯한奮鬪와 活躍을애끼지안흔 偉大한功勞者가 잇는것을 이저서는안이되다 卽過去十五六年이라는 긴歷史를가지고 春風秋雨에 가진苦楚를 겪거가면서 한결가티 꾸준한애를 쓰고온 咸興體育會다 同會의歷史的功勳은 이미昨年新春에 한번紹介한일도 잇섯지만은 最近數年동안 오래동안의孤軍奮鬪에 力盡하엿슴인지 過去의그빗나는 活躍의 光輝를 全然잃코 다만 無實한 一個殘骸만남기고 잇섯다。 그러나우리體育會의 大元柱가그대로 沈滯狀態로 繼續하고만잇스랴! 再昨年에 斷然奮起한바잇서 新進者들은모조리 招集하여 役員一新事業更新의 旗빨을 놉히들어 捲土重來의形勢로 革新의첫거름을밟게되엿다 昨年은 同會의革新第一年의 우렁찬武步를걸어온 一年이엇스니 昨年中에만 同會에서主催한 主要한 北朝鮮競技大會만도 十一回나되며 體育에 대한講演會 討論會도 二十三回라는盛況이다。 그러나 朝鮮의現狀으로서는 避할수업는 經濟的弱點을 가저오게한다。 經費의全部가 幹部相互의醵出을 밧게되는形便이니 너무도 苛酷한負擔이안일수업다 北朝鮮의有志여! 좀더 體育의重大함에 着眼하여 物質的으로 不斷의援助가 잇기를 苦待한다 좀더우리의 體育會로하여곰 마음노코 活動할것을 열어주기위하여!

◆…새로히 組織된 咸興蹴球團

體育團體一覽

體育會는이미各都市마다 全部다 組織되고 잇스니말할것 업거니와 今年中에 새로組織된 主要한團體만을 紹介하려한다

▲咸興審判協會 四月中創立 役員李成雨 孫棟源 金信圭 洪德洙 金相洙 金茂燮

▲咸興蹴球團(八月中創立) 監督韓相國 部員金壽曾 金基鉉 尹柱元 洪性南 李芳林 韓淮 金鴻普 李長洙 安明俊 金鴻基

▲州西靑年會(四月에組織) 會長韓吉鎬 副會長葛在中 總務 [illegible] 庶務部[illegible]外一名 會計部 [illegible]外一名 蹴球部 金信至外一名 陸上部[illegible]外 [illegible] 體操部[illegible]外二名 水上部[illegible]外一名 [illegible]部[illegible]外二名

朝鮮體育會의綜合競技大會入場式光景

競技는蹴球全盛 中央進出도猛烈

淸津蹴球團의活躍을爲始하여 學生軍追擊도急迫

다음은 北朝鮮體育界의 中央進出이다。 淸津蹴球團 鏡農蹴球團 二回遠征 永生高普氷上團 永生女高普籠球團等等 昨年만큼北朝鮮에서 中央의 京城에서 開催되는 全朝鮮的 活舞台에出戰한 때가업섯다 이것은 그만큼 實에잇서서 發展하엿다는 것을立證하는 것이며 同時에數年동안 潛居하여修練을 싸아둔 技量에 구든自信을가지게되엿다는 反證이다 더욱히 淸津蹴球團은 全朝鮮의 指導者들을 시원스럽게擊破하고 優勝의榮冠까지 어더 北朝鮮健兒들을 爲하여 萬丈의氣焰을 吐한것은 今年度의 最大收穫 이라고 할수잇스며 이로서 北朝鮮體育도 漸漸全朝鮮的水準에 到達하고 잇다는 것을 운 事實을말하고 잇스며 멀지안흔 압날에 朝鮮을휩쓸것을 [illegible]

◆…梨專主催女子籠球大會의壯觀!

◇…女流籠球界의强陣進明女高軍

든 自信을 주게 하엿다。 이리한反面에 京城에서 維續을잡고잇는가장權威잇는團體 卽延專、普專 法專庭球部等의來征도 또한例年과는 比할수업스리만큼 만허 寂寂한北朝鮮體育界에 燦然한빗을더하게하엿다。 이제 明年中各界의活躍의자최를 槪別的으로차저보기로하자!

【蹴球界】 蹴球는非但北朝鮮뿐만이아니라 全朝鮮的으로 가장普遍化되運動競技이라 特히北朝鮮에서는 運動이라면 곳蹴球라고할만큼되여잇스며 이럼으로써競技大會中에서도 蹴球가太半을占하고잇스니 昨年中에開催되는 主要한大會만을보면다음과갓다。

咸興體育會主催의第一回北朝鮮蹴球大會가七月中에開催되여一般部에는咸興 農村部에는州西팀이 優勝하엿고 同月十一日에는北朝鮮最初의都市對抗戰인元山咸興의 第一回 定期戰이잇서 一對零으로咸北軍이 優勝하엿스며 永興體育會主催한 咸鏡蹴球大會도 빠질수업는 큰競技會 그리고八年이란오랜 歷史를가지고 잇는 全北朝鮮의 興味를 集中식히고 잇는 全永生對 全咸高의 定期對抗 蹴球戰에는 一對零으로全永生軍이 優勝하여 連四年制覇의榮譽를 掌握하엿고 蹴球의無敵팀 淸津蹴球團이 淸津港에入港한〃케-푸다운〃號汽船員으로된 英人팀을 四對零으로 快勝한것과 全北朝鮮의 重望을 등에지고 이러난咸興蹴球團의 誕生도 特記할事實이라하겟다

【籠球】 再昨年부터 겨우興味를 가지게되는籠球나 京城等地에서 이름을날리는 權鎭根(崇專)君等數三選手의 熱烈한指導로 急激한進展을 하엿스니 昨年中에만 城津 永興 定平 淸津等 各地에 籠球團이 組織되어 八月中旬 咸興에서 開催된 北鮮籠球大會에는 咸南北道에서 七個團의 出戰을보게되엿스며 一大 接戰끄테 定平籠球團이 强敵咸興팀을 擊破하고 優勝하엿스며 定平體育會主催의 三郡對抗戰에도 亦是定平팀의 優勝으로 籠球界는 完全히 定平팀에게 征服되고말엇다 以外에도 各學校對抗籠球戰도 四、五次나잇서서 크게活氣를 뭇하고잇스니 將次蹴球에지지안흘만큼盛勢가期待된다。

◇…中等柔道界의覇者 中東學校軍

【定平籠球團】

【氷上、陸上競技】 北朝鮮은 氣候와 컨듸슌等 보다氷上競技의 最適地라고하나 이러타할各選手가 아직것輩出되지안흔것이 돌이허疑問되나 最近各學校에서 全力을다하며 스케-팅奬勵에 注力하고잇스며 咸興永生高普에서는 必須로 課目에게까지 定하고 잇다。 一般側으로는 一月中에 咸興 定平 新昌 城津等 거이 都市全部에 大會가잇서서 大盛況을 일우웟스며이狀態로나가면 멀지안허서 氷上朝鮮에 相當할만큼한發展을 豫想케하며 陸上競技大會도 咸南中等學校陸上競技戰이잇서 九個中等學校의 出場으로空前의 盛況으로 咸南高普의優勝으로 돌아갓스며 六月一日咸興市民大運動會、北朝鮮自轉車競技會의一部에도 陸上競技戰이잇서 前年과는 比할수업는 活況을띄웟다

鄕谷에遍滿한 우리씨름熱

名選手를續續輩出

昨年一年中間에 體育界動向은 이러하거니와 다시 北朝鮮體育界의 獨特한 자랑거리를 紹介하고십허못견듸겟다。 자랑이라면 北朝鮮의 가장씩씩한 健兒들의 시원스럽게지여논 모든일、競技마다 자랑이안일것이업스나 그中에서도 가장 자랑거리가 될한가지만을 들고십다 卽朝鮮의唯一한 鄕土體育인 『씨름』이다 씨름은 本來부터 北朝鮮人의氣槪를象徵하는 體育으로 녀름저녁이면 各村落마다 빠짐이업시 시내江邊모래가에 張燈하고 소풍을하면서 終夜씨름에 興을자아내며 어려케 各村落에서 練技한技能을 隣近한 數十村落이모다 다투게되다 그리하여 가진 各樣의재조가 演出되며 實로 귀신도 推測못할 妙技를만드러내게되다。 現在 朝鮮씨름의將軍인 金潤根(延專)李道南 玄常勝力士이며 北朝鮮의 所謂五虎 明浩 朴興植 河永得諸君도 모다이러한 가운데서 자라낫스며 씨름은 벌서 北朝鮮健兒들의敵者가업다고 豪言할큰자랑이다

義州記事 二面에서繼續

事實 新義州에 잇서서는 무엇보다 運動場問題가 가장 重要한 것이니 現在까지 빌려온新義州普通學校運動場은 生徒側(先生側보다도)이 排他的態度를 가지고 잇서 그信用이 거이 不可能하야 府民스포-츠發展에暗影을 던지고잇다。 이제 順序를 따라 各種競技를展望하건대 氷上에잇서서는三務學校、新義州高普에서 指導者가 업슴에不拘하고 生徒들이 單獨으로 精進하고잇스나當分間은 當地가나흔李斗榮、張和植、崔能振、張日弘、安重根等諸選手의 뒤를이을만한選手의出現을 바랄수는업다。 陸上에 잇서서는世界的『마라손』選手 孫基禎選手를나흔만큼하야 昨春에는 朝鮮新聞이新義州-義州間往復마라손大會를 開催하엿는데 淸水의他道팀이平壤이優勝하야 平北의意氣를 꺽것다。今年에는 어떠할는지 이것은平北陸上競技界가 이겨야할新記錄으로 이겨야 할競技의하나일것이다 이러한點을 생각할스록 우리손으로 이러한競技를主催하야 選手들의 압길을열어주고십다 以上의兩種目에 잇서서 急激한發展을 보기힘든데 對하야 이제들려는 蹴球界에 잇서서는今年봄頭부터 期待할만한 計劃이잇스니〃아〃式에 잇서어서는 新義州 宣川을 筆頭로 定州、鐵山等地의 蹴球團과 體育會에서 定期리-그戰을 行하려고 當事者間에 이미計劃이 進捗되엇다고 擴大되며 럭비에 잇서서도 新義州〃럭비〃俱樂部와 京城과 사이에는 定期戰을 戰行하는것이며 또 新義州 高普도昨年의雪辱을 決心하고 잇스며 同校에서는 義州農業學校와 사이에 어떠約束을하고 잇는모양이니 그發展이 자못클것이다 「러고 庭球에잇서서는 宣川이 昔日의盛聲을 다시찾기고 新義州도한 別로보잘것업스니 크게期待되는바 업스나 이것도新義州와宣川 其他諸地方이 定期「리-그」戰을 行하게된다면 復興할수잇슬것이다。 끗흐로 籠球에잇서서는 宣川信聖學校팀이 平北에는 唯一에「팀」이라고 할만큼 籠球界는寂寞하나 昨年安東縣에서열린 籠球大會에서의 同校팀의 活動의 볼만한點등으로 籠球技術普及에 努力하고잇스니 今年內에는 出現할는지 모른다 以上에 잇서서 定州와安東縣에〃스포-츠〃界를 너무輕視하게 取扱한듯한느낌이 잇스나이는同地方의〃스포-츠〃界가其實그리 活潑한活動을못하고 잇기때문이다。 四地方學校에서 가장今年에힘을이려하고 보이는〃스포-츠〃를若干紹介하면新義州商業의〃럭비〃新義州三務學校의〃氷上〃宣川信聖學校의籠球、定州五山學校의陸上等일것이다。

國境의名物인 씨름과鞦韆

宣川庭球도年年盛況

庭球에 잇서서는 昨夏 宣川에서例年과 가티 全朝鮮庭球大會를열어 大盛況을 이루엇스나 숨김업시 所感을말한다면 宣川으로서는 알(卵)까노흔後에 寂寥를 느끼는 암탉과가튼 感이업지아니하엿다 卽宣川은 過去數많흔名選手를 나핫스나 모두京城에빼앗기고(이것은 自然한現象이라고는하나) 이點에 또한〃스포-츠〃가 너무도都會的이되여 一部人의 專有物이되는 弊害가잇다。)但只한대自己가 나흔選手들의 模範競技를 落望과失望의 눈으로 바라보는 處地에 빠지고잇다。

이外에반드시 한마듸써야할것은 端午節을 前後하야 各地方에서 열라는 脚戲와 女子의스포-츠로써 大衆이가진 唯一의것인 鞦韆大會가 잇다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原始的이어서(原始的이라고 그自體가 조타는것은아니다) 가장〃아마타-리즘〃에適合하는 民族全體가즐길수잇는〃스포-츠〃이므로 이가튼것은特히 하로의歸依을 즐기는女性을 위하여서 鞦韆大會를 만히가질은 有意義하다할것이다。

北中國氷上界征服한우리選手들

守山

慶南守山 精米業 守山精米所 李小福 電話五番

密陽郡初同面職員一同

密陽郡下南面栢山里 下南協議員松下春男

密陽郡下南面 下南水理組合

守山金融組合職員一同

守山産業組合 組合長 閔雨植 理事 卞章玉

密陽郡下南面守山里 精米業 下南精米所 野脇貢 電話七番

000038

密陽郡初同面儉岩里 富士野實助

密陽郡下南面明禮里 下南協議員 鄭每龍

密陽郡下南面明禮里 下南協議員 李載寬

密陽郡下南面南田里 下南協議員 全璋浩

密陽郡下南面守山里 下南協議員 蔣晉植

密陽郡下南面守山里 絹緞布木商 李華國

密陽郡下南面守山里 絹緞布木商 鄭萊鳳

樂山齒科守山出張所 主任 朴濱民 技工師 徐判周 〃 朴濱祚

密陽郡下南面守山里 東拓駐在所 原田武祐

密陽郡初同面大谷里 朴秀鍊

密陽郡初同面五方里 松亭醫院 田德實

密陽郡初同面新湖里 新湖酒造場 朴武永

密陽郡初同面新月里 曺善鳳

密陽郡初同面德山里 孔濟琇

昌原郡大山面葛田里 金·奎榮

密陽郡下南面守山里 精米業 曺三奎

密陽郡下南面守山里 山海館主 陳魏亭

密陽郡初同面牛月里 大槻百太郎

密陽郡初同面牛月里 朴熙允

密陽郡初同面牛月里 宋在穆

密陽郡初同面帆平里 金鎬玗

密陽郡初同面大谷里 尹一鉉

朝鮮日報守山支局長 朴海寬

价川

平南价川 榮輪自轉車商會 主 劉炳杰 支店 江界前川市

密陽郡下南面守山里 牟田齒科醫院分院 萬壽

密陽郡下南面守山里 守山材木店 曺斗久

密陽郡下南面守山里 司法書士 金泰潤

密陽郡下南面守山里 守山館

密陽郡下南面守山里 大東酒造場 嘉屋傳

穀物檢査所守山出張所 熊本英雄 金在石

密陽郡下南面守山里 森新太郎

密陽郡初同面儉岩里 李壽敏

密陽郡初同面儉岩里 李根秀

密陽郡初同面大谷里 韓琮錫

滿浦本線价川驛前 同利興鑄物工場 趙箕元

平南价川本町 价川百貨店 電話一一〇 振替京城[illegible] 支店 平北雲山[illegible]

綿絲布雜貨卸小賣 朴潤根商店

漢榮齒科醫院 朴榮光 金昇旭

价川邑內(電話三三番) X光線診斷 外科產科 濟衆醫院 公醫 崔允瑞

平和醫院 院長 崔成鈺 電話二七番

价川鐵道醫務室 朝鮮鐵道嘱託醫院 金庚秉 [illegible]

江界釀造株式會社 价川分工場 電話一八番

滿浦本線价川驛前 李榮奭商店 三成運送店 電話八番

平南价川邑內 綿布雜貨 普信商店 周三鳳

平南价川邑內 軍隅三業組合

謹賀新年

倭館

漆谷郡廳
倭館稅務署
倭館公立普通學校
倭館金融組合 宮本庸三
大邱地方法院倭館出張所 廣畝一三
倭館驛長 大場好
倭館砂防事務所
倭館面事務所
倭館尋常高等小學校
倭館穀物檢査所
倭館郵便所
漆星酒造組合
倭館煙草販賣所

倭館醫院 醫學士 金顯文 電話二九番

慶北漆谷郡枝川面新洞 金秉業

慶北倭館 米穀肥料 食鹽石油 尹哲炳商店 電話二三番

慶北倭館 海岡印刷所 倭館穀物貿易商會 李綱鎭

慶北漆谷郡 道會議員 入山昇 電話一一番

慶北漆谷郡梅院 李萬煥

倭館穀物商組合 電話一九番

倭館金融倉庫會社 電話一八番

倭館酒造組合 電話八番

漆谷郡倭館面倭館洞一三六 株式會社慶尙合同銀行倭館支店

京釜線倭館驛前 ㊂荷主組運送店 鄭福景 電話二七番

漆谷郡枝川面新洞 成台慶

京釜線倭館驛前 洋品雜貨 文房具 食料品 化粧品 學生服 帽子各種 鮮一商店 文達坤 電話一二番

慶北倭館 綢緞布木商 權道鉉
慶北倭館 綢緞布木商 孫實敬
慶北倭館 綢緞布木商 金文吉 商務 張守機
朝鮮料理 洛東館
漆谷郡倭館面鳳溪洞 面協議員 李道源

慶北倭館 料理屋 鶴乃家 電話二五番
慶北漆谷郡北三面吳太洞 學校評議員 張憲相
慶北漆谷郡若木 李海哲
倭館和信連鎖店 朴東植
慶北倭館 綢緞布木 李鍾律商店
慶北倭館 金城鎭
漆谷官公吏一同
倭館宿屋兼飲食店組合
漆谷郡石積 漆溪酒造場 李逢春
漆谷郡枝川面新洞 孫承鉉 (改名前) 世鉉
朝鮮料理 大邱館
漆谷郡石積面城谷洞 張敏植
慶北漆谷郡若木 西牟田一夫
漆谷郡枝川面新洞 姜信采

漆谷郡仁同面鶴浦洞 學校評議員 朴明洙
漆谷郡倭館 金壬述
米穀商 朴魯源
米穀商 三共商會
米穀商 李義和
漆谷郡枝川面新洞 新洞酒造場 金秉駿
漆谷郡石積 城谷農村振興組合
漆谷郡若木面永洞 砂防事務所 主任 文錫默
漆谷郡若木面永洞 面協議員 張斗震
漆谷郡若木面鳳山洞 酒造業 張曉相
漆谷郡若木面角山洞 張一相

慶北漆谷郡若木面 面長 申鉉九
漆谷郡若木面觀湖洞 面協議員 洪洙賢
慶北漆谷郡若木面觀湖洞 [illegible] 吳昌穆
若木金融組合 理事 金永漢
慶北若木 驛長 權大燮
京釜線倭館 朝日土管工場 朴在同
慶北漆谷郡若木面觀湖洞 崔鳳煐
漆谷郡枝川面達西洞 李基聖
漆谷郡枝川面錦湖洞 尹昌遠
慶北漆谷郡若木面福星洞 金顯八
漆谷郡北三面崇烏洞 酒造業 李明烈
慶北倭館 李相祐
京釜線倭館 荷車製造 木工製材業 朴海壽
京釜線倭館 日新理髮館 朴李大
京釜線倭館 大邱理髮館 李質壽
京釜線倭館 日進雜貨店 李綱鎬
慶北漆谷郡仁洞 仁同酒造場 張炳暉
漆谷面長 柳河秀 外職員一同
東明面長 李相龜 外職員一同

枝川面長 李承弼 外職員一同
石積面長 張炳兆 外職員一同
架山面長 金鎭球 外職員一同
仁同面長 張承澤 外職員一同
南一精米所 電話一六番
慶北倭館 米穀商 蔡允植
慶北倭館 陶磁器硝子器 金物及漆器 伊藤支店 主 李[illegible]
京釜線倭館 精米雜穀商 孫善珌
京釜線倭館 雜穀精米商 張宅龍
京釜線倭館 精米雜穀商 黃聖道
慶北倭館 賣藥商 廣濟堂藥房
慶北漆谷邑內 學校評議員 金慶鎬
京釜線倭館 海陸物産 運送委託 仝運送店 玄佑相
架山面多富 多富酒造場
東明酒造場 李琡一
東明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漆谷酒造場 蘇鎭浩
新洞公立普通學校 細添久道 增原一[illegible]
仁同面仁義洞 張炳玉
仁同面新洞 張文杓
漆谷郡架山面下板洞 金台永
漆谷郡架山面下板洞 張準鉉
漆谷郡仁同面新洞 [illegible]根植

漆谷郡仁同水利組合 張炳林
慶北仁同 尹巡錫
仁同面鶴山洞 張滄植
仁同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漆谷郡枝川酒造場 尹丙雄
京釜線倭館 雜貨商 徐泳鎭
漆谷郡架山面 鶴下酒造場 張世明
倭館青華洋品店 李[illegible]正
漆谷郡石積面協議員 安奇植
仁同面協議員 張相元

慶北倭館 醫生 蘇鎭達
漆谷郡石積面協議員 金兌黑
漆谷郡石積面協議員 張龍牧
漆谷郡石積面協議員 趙常源
漆谷郡石積面協議員 鄭文植
慶北若木 宇都木辰七
慶北若木 東生理髮館 朴明時
慶北若木 金禹燮
京釜線若木驛前 寫眞館 申彥鳳
京釜線若木 崔德言
漆谷郡北三面崇烏洞 洪聖祚
漆谷郡北三面崇烏洞 金炳九
漆谷郡北三面普通學校 金興珠
倭館 吉富製菓舖

延安

黃海線延安 宋善日精米所 電話 一四四番 一〇四番

黃海線延安 共榮商會建築材料部 內外材木、建築材料、建築請負 主 張命昌 常務 李澤求 電話六七番

黃海線延安 活版 和洋諸紙 石版 文房具 印章彫刻 カレンダー 鮮一印刷所 蔡鎭默 洪淳甲 電話一一八六番

黃海線延安 廣德醫院 院長 吳範泳 電話五五番

黃海道延安邑內 延安齒科醫院 院長 邊鎬鐸 電話六四番

延安邑東門通 藥種貿易 處方調劑 黃海堂藥局 電話一一一番

黃海道延安 穀商 崔承潤 電話一一番

黃海道延安東門通 原木製材 土木建築 內外材木 建築材料 平板浪板 石材各種 合竹各種 セメント 高應權商店 電話六五番 (京城二三〇〇番)

黃海線延安邑 農具 肥料 ...小賣 裵琮錫商店 電話一一一番
黃海線延安 活版石版 文房具一式 啓東印刷所 尹泰英 電話四六番
黃海線延安 延安自働車部 電話四一番
黃海線延安 金物 燃料 金興權商店
黃海線延安 申鉉聲 電話六四番
各種麥粉製粉 打綿 延安製粉所
黃海線延安 張學鳳
黃海線延安 金剛燒酒 各種農具 各種鐵物 延安商會 江華松海醸造 金延世 延白支店
黃海線延安 名妓 金金宋吳李 桑英蘭貞花 姸心香玉蓉
黃海線延安 濟衆醫院 電話五三番
延白郡延安邑 延安醫院 電話十六番
黃海線延安東門通 東一齒科醫院 電話一一番
黃海線延安 司法書士 李炳璿
黃海線延安 司法書士 朴燦然
黃海線延安 司法書士 劉貞夏
黃海線延安 司法書士 張泰永
延白郡 海龍面長 鄭禹弘

黃海線延安 李敬承商店 電話五八番
延白郡延安邑西門外 海産物各種 果子菓子 朝鮮酒釀造 三興商店
黃海線延安 合資會社 延安藥酒釀造場
黃海線延安 和洋家具 土木工業 建築請負 劉漢亭
延安邑西門內 中華料理 龍鳳館 電話一〇八番
延白郡湖東面 金元泰
延白郡 延安面長 禹夏榮
延白郡 湖南面長 李俊在
黃海線延安 孔炳憲
黃海道延安 朴聖章

延白郡延安 趙泰濬
黃海線延安 延壽堂藥局
延白郡湖東面 朴容南
黃海線延安 司法書士 金演衡
黃海線延安 壽樂館

黃海道延安 雙昇館 電話一五番
黃海線延安 永昇館 電話一二番
黃海線延安 會昇館 申斗鉉
黃海線延安 永春館 電話一六番
延白郡道村面 邊英植

珍島

珍島郡廳 各種產業團體
珍島醫院 電話二一番
珍島面職員一同
郡內面職員一同
珍島金融組合 古郡支所
義新面職員一同
臨淮面職員一同
珍島邑內 韓明履
珍島郵便所長 松木管藏
古郡面職員一同
珍一醫院 醫師 許燦

南珍島邑內 蘇井奎商店 電話十五番
雜貨商 康興澤 電話六番
臨淮面石橋里 金融組合 理事 申衡植
臨淮面[illegible]相里 郡長燮
珍島面鬱井里 朴元巨
臨淮面上萬里 朴亨俊

朝鮮日報

新年號 其二十

봄마지

金石松

◇

봄마지 밧붐것가
안마자 안올것가。
오는봄 제오기로
오는가 할다름을。
아히야 뒷문열어라。
겨울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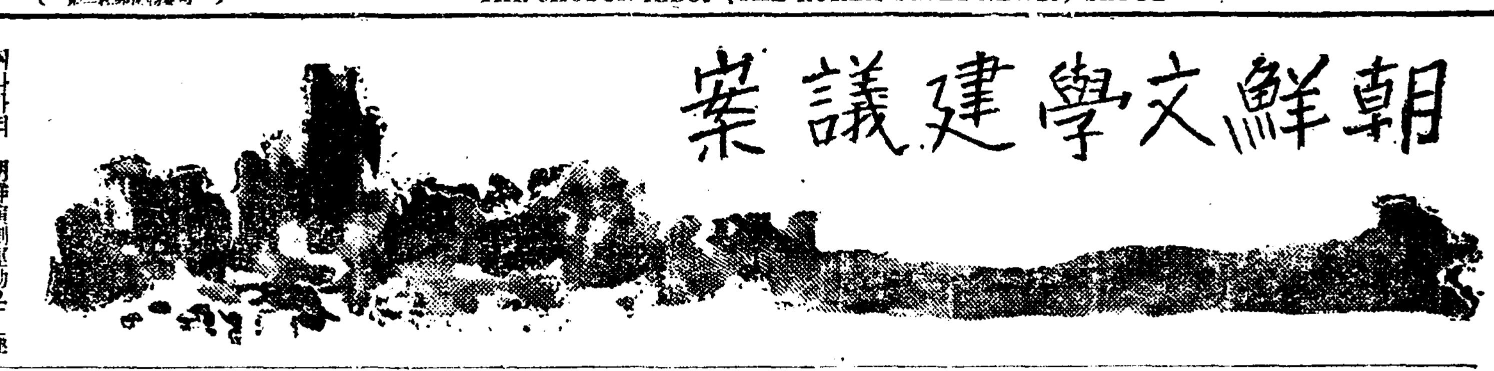
◇

한강물 다풀리면
이맘도 씻어볼가。

북악산 눈녹으면
내한도 삭혀볼가。
다정한 봄이라길내
더욱다한。

◇

푸대접 막하여도
웃는낫 봄이로다。
실타고 버둥처도
껴안는 봄이로다。
봄인들 속업스랴만
사랑겨워。



朝鮮文學建議案

戲曲界 (二) 朝鮮語整理와 人間에對한研究

柳致眞

여와가티 朝鮮演劇運動은 極히 初步的인——아니 演劇以前의것에對한——認識普及에 關하야 一方努力하야온것이다。

이것으로보아도 朝鮮 演劇이 아즉것社會的으로 얼마나 야튼水準에

低徊 하고잇는가를알것이다。이런때에 잇서서 우리戲曲水準이 小學生의그것에잇다고하야 吾人은 무엇을 悲歎하랴！ 勿論自慢은 삼가야한다。그러타고 나는 어느評論家모양으로 長歎息만을 일삼고 십지안타。前進또前進！이런步調로나아가서 五十年後에는中學生程度、그後에는 歐米先進國의 戲曲水準에다가 우리의水準을 上昇할수만잇다면야 무엇을 우리가 悲感하랴！오히려 樂觀할일이다。

그러나 이獨斷은 너무나 獨斷을위한 獨斷이오、獨斷으로서도 幼稚한獨斷이다。

要는 過去에잇는것이아니다。내가 말하고십흔것은 새해의일이오 그다음의일이다。우리가 여태까지 싸워온功은 그것이크든 적든 그功으로써 한標石이 설수잇다。이標石을 밟고 우리가 어떠케 飛躍해야할것인가？이것이 우리에게남는 主題일것이다。過去를 바라보고 悲感을하든 衝突을하든 그것은 그보는 사람의任意로 맥겨두어라！ 우리는 삽가히 우리가 어지려노흔 일자리를 치우고작간터을 밧치고 거러갈길을 가려보기로하자。

나는 이몃해동안 새해를 마지할때마다 우리의일에對한 回顧와

展望 을 거듭해왓다。그때마다나는 극장날그이즘의 또들기는 북소리가 아주그럴듯한 소리를첫다。

『우리는 이러케 해야한다』

『이래야만 할것이다！』

等等… 그熱情만은 조왓다。그 呼呼도 그럴법하얏다。그러나그 呼呼는 結局 空中에 放送한것뿐이오、그熱情도 學生들의 應援歌的效果밧게 안되엇다。

그結果를보라！내가熱을내어서 소리친데 相副할만한 그무엇이 收穫되엇는가？ 실상말이지 社會的인 모든運動이 한두사람의 呼呼人소리로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童話的인 事實이다。

그럼으로 나는 今年에는적은소리로——다른사람헌데는 들니지안흘만한程度로——極히慇懃히말하겟다。그理由는 以下 무슨建議案이란 案을낸대도 그것은 決코社會一般에對하야 呼令하고십흔것이 아니오、오히려 내自身에게——一個 貧寒한劇作家 또는 劇運動者로서의 내自身에對한——警戒로서

獨白 하고십흔까닭이다。나는 建議案이라고 말하얏다。그리고 編輯子도 그런것을 所謂이다。그러나 내가 말하고 십흔것은 그런 어마어마한것이아니오 내가 새해부터 이러케햇스면 조켓다는 極히 적은所望 몃가지를 느려노흐려는것이다。그리고 그것이 내自身에對한 激勵와 鞭撻이되어주엇스면 하는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披露하려는것은 別로 새로운것이아니다。在來로 내가 가지든바 혹은主張하든바에 對해서 조금 修正을加하고 기름(油)을 바르고 모냥을내자는것 뿐임을 告白해두는것이다。

朝鮮劇文學의 發展을 위하야서는——

1、政治的信念

2、朝鮮語에對한整理。

3、人間(社會、人生)에對한研究。

4、劇作法에對한鑽鑿

위선 나는 以上의 네가지를今年에도 建案하야 그의徹底를期하고십다。이建案의 細目에關한 내意見을 다음에 添加하려니와

여기서 내스스로用意하는것은이 建案은 一九三六年의戲曲界만을위한 特殊한 發案은 아니오 오히려 이것은 戲曲作家가 心得해야할 根本課題인것이다。누구나 앎즉한 이런提案을 뻔뻔스럽게내걸고 新年을마지하려는 나는 朝鮮戲曲의 小學年水準을위하야 한번더 擁護해보자는것에 不過한것이다。그것이 우리의 압날의發展을 위해서 賢明한노루인까닭이다。

나는 압혜 (1)에서政治的信念이라고 말하얏다。이말은 決코 劇의이데올로기化 乃至 作品의이데올로기로의 武裝을 말함이아니다。

오늘의時代的恐怖는 作家의精神生活의밋바닥을 攪亂하야 不安의 絶頂에서 解放해주지안는다。그럼으로 作家는 그가 依持할 精神的根據를 剝脫當하며잇는것이다。따라서 構想的 精神活動의貧弱을 招來한다

여기에서 金煥泰氏의 입을빌리면 强烈한 構想的精神活動이업는곳에

性格 과 스토ー리가 잇을수업스며 이리하야 小說이(여기에서는戲曲이)身邊雜記나 小品文으로 墮落할때 그곳에 우리는 强烈한 個性을 엿볼수업다(文學의新年號)(回顧之亥年文壇總觀)는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무슨 政治的色彩라고 그色彩를 구태여 指摘하지 안는다。紅、白、黑、靑 무슨色이라도 조흐니 위선 時代的으로 攪亂된吾人의精神生活을 收拾함을提議하고십다。그리하야 그부지러진旗幟를 더듬어잡고 스스로依據하야 설政治的信念을 가저야하겟다는것이다。

이政治的信念이란말은 作家의世界觀乃至人生觀혹은 宗敎的信念이라고바꾸어 놔보아도 조흘것이다。하여튼 내가 말하고십흔 要點은 갈수록 오늘의客觀的情勢는 우리의精神的動搖를强要하고잇는지라 더욱히 우리는 自省과自鍛의機를 만드러서 그動搖를막으며 밟고설地盤을 든든히하자는것이다。그러지안는以上 뚜렷이 빗나는作品은 바랄수업슬것이다。

批評의精神과 論理의感情 【上】

李源朝

새해를 마지하면서 우리 評論壇에對한 한개의 建議案을 提出하라는것이 이글을 쓰게한 理由이다。

그러나 내일직이 評論家로서 自處해본적도업고 또한 心中으로라도 評論家로서 一生을 밧치겟다는 마음을 먹어본적이업섯스니 내한테는 評論界를 위한 아모런

經綸도 抱負도 업는지라 이러한 내가 이러한種類의 글을쓰는것은 非分의일이지마는 내가 萬若 評論家이라면 이러한 態度는 가지고십다는程度의 告白은 하고십흔것이다。

建議란 본래 採擇을 要望하는것까지는 猥濫할는지몰나도그래도 相對者에게 그러달나는程度는 되는것이지마는 내가 이자리에서 말하고저하는것은 남이야 드러주든지 말든지 全然 無關心한 한개의 獨白에 긋치고저하는것이다。

지금 우리네가 쓰는 用語例로보면 批評이라는것과 評論이라는것은 어느程度까지 區別해서 쓰는것이 事實이다。

批評이라면 直接 作品을對象으로하는 作品評을 가르치게되고 評論이라면 作品을 떠나서 한개의 原理論이나 詩論가든것을 가르칠때가 만타。말하자면 Critic과 Essay를 달니보는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긔에서 批評이라고하는것은 구타여 批評과評論을 갈러서 생각지안코 兩者를 다 批評이란 일홈에 統括해서 보려고하는것이랴。이러한方法——批評과 評論을 갈러서 볼수잇느냐? 업느냐?하는것은 萬若

物 議가되다면 雙方이 다 各各 하고십혼말이잇것지마는 여긔에서 이問題를 解明하는것은 이글의性質과는 全然 無關한 煩瑣事에지나지못하는 것이기때문에다만 한마듸의 辯解만 하고이글에서는便宜上 兩者를 統括해쓰기로하겟다。

우리가 批評의 가장 古典인것을들라면 의례히『아리스토텔레스』의『詩學』을 들것이다。그러나 이것은 成文化한 批評의 古典인것이고 정말 批評의 發生은 人類가 太初에 行動이잇슨 그다음瞬間부터 일것이다——라고하는것은 批評이란 그素朴한形態에 잇서서는 選擇의前提이다。다시말하면 우리가 한개의 事物이나 行動에잇서서그것을 批評한다는것은 우리네의 生活에잇서서 가장 合理的인것을 選擇한다는 것이니 批評의 水準은 價値의 尺度이라는말과 가티 이러한 意味의 批評은질로 우리의 日常生活가운데 늘 싸혀잇는것이다。그러타면 우리는 記錄된 歷史보다 볼수업서버려도 오히려 存在된 歷史를가질수잇슴으로써

歷 史의 法則이나 理念이라는 것을 말할수잇는것과 맛찬 가지로 이때 까지 成文化한批評을 다 이저버려도 오히려 自生的인 批評에서 우리는 批評의精神이라는것을 發見할수잇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批評의精神은 어떠한時代나 어떠한 社會를 勿論하고 人間生活에잇서서 한번도 눈감어본일이업지마는 그래도 批評의精神이라는것이 자못 前面的으로 뚤녀나와서 問題되는時期와 그러치아니한時期가 歷史上으로 區別되는것은 무슨때문일까? 여긔에서 다시한개의『아날로지ー』가 許容된다면 그것은 歷史의法則이란 綿綿한 歷史의 繼續되면서도 오히려 歷史가 밧구어씨여진때가 잇다는것과가튼것이다。

그럼으로 批評이란것을 말할때에 그原語인(Critic)이 語原上으로 (Crisis)(危機)에서 由來한것이라고해서 批評이란 한개의、作品을 對할때에 그作品의危機를發見하는것이라고 말한사람이잇지마는萬若批評이란것의

語 原이 危機이라는데잇다면 우리가 批評의精神이 유달니問題되는 時期를 차지려할때에 무엇보담도 이危機라는말을 거저 念頭에 둘必要가잇지아니할가?

當選小說『寺下村』作者紹介

金廷漢

一、當年二十八歲

一、高普卒業後 六個月間 普校敎員生活、

一、早稻田大學 第一高等學院三年中途退學、

一、以後 農業、薄俸生活로 轉轉沒中

詩人으로서 現實에의積極關心 ②

金起林

技巧派를 다시 精密하게 分類한다면 그中에서 言語에대하야 古典主義的信念을 評論으로한一派와 一群의 尖銳한 形而上學派와 數에잇서서 그보다도더만흔 寫象派로 區分할수가잇다 그러나 그들은모다 現實에대하야 逃亡하려는 姿勢를 가지는點에서 一致한다。

原來『보ー들레르』를 原祖로하고 近年의 超現實派에 이르기까지의

佛蘭西를 中心으로한 近代詩의 特徵은 그것이 一貫해서 現實을 醜惡한것으로 認定하고 그것을 超越한곳에아름다운詩의世界를 想定하려는데 잇섯다

우리自身의 詩의傳統을가지지 못하고 主로 西洋의 詩에서우리들의逃避를 더마히 播求하여온 우리新詩가 그러한影響을强하게바든것은 辨證할수업는일이엿슬것이다。그우혜우리를 에워싼 現實이 詩人을 기쁘게하기에는 너무나 미웟다。

그러나 우리들속의 現實逃避의 思想속에는 얼마나强한 現實憎惡의 感情이 흐르고잇는가? 西洋의 超現實主義者들의 그것에 匹敵하다는自信이 잇슬수잇슬가

지난해六月에 巴里에서 文化의 擁護를위한 國際作家會議가열렷슬때 그들은 어떠한文化를擁護할것인가? 하는問題를 위선考慮하지안으면아니되엿다고한다。그것은 勿論오늘의文明의現實을 支持하는文學은 아니다 차라리그것을批判하고 超克하려는 文化일것이다。

果然우리들의 技巧派的詩는擁護되여야할 文學中에 드러슬가? 그보다 國際作家會議가 敵對하려는勢力이 無害無益한 可憐한『카나리아』로써 放任하거나 도리혀 奬勵할 그러한種類의 文學속에 드지나안엇슬가? 萬若에 그러타면 그것은바로 文詩의名譽가아니고 屈辱일것이다。내가 나의數마혼同僚에게 한개의『도라우뗘아프로』——即現實에의 積極的關心을 提唱하려는까닭도 거기잇다。

國際作家會議의 席上에서『루이 아라곤』의 얼골을 發見할지라도 諸君은 도모지 놀랄것은업다。그는벌서 옛날의 超現實主義者『아라곤』이아니다。

英國의 現代詩에서는『엘리옷』든 作品에 一貫해서 現實의 反映 濃厚한것은 오래전브터의 일이다。오늘에는『휴우·씨그내휴어』『뉴우·컨츄리』에서 出發한 젊은詩人들은 이러한前衛的인 關心에조차 不滿을품고 보다더 急進的인 關心을 가지고 大戰以後의 英詩에 第二의變革을 가저오면서 잇지안는가? 오늘의文化는 바로이러한 새로운意圖와 設計를通해서 來日에로 發展할것이 아닐가? 웨그러냐하면 언제든지 批判者 超克者만이 來日에 參與할權利를 가질수잇는까닭이다。

그러나 내意見은 곳 技巧主義에 대신해서 內容主義를 가저오려는것이라고 理解되여서는 아니된다。內容의 偏重은 벌서 一九三〇年以前의 誤謬엿다。내가 主張하엿든것은 차라리 이內容과技巧의統一——한全體主義的詩論이엿다。

林和氏는 新東亞 十二月號에서 나의 이提案에대한批評을 試驗햇스나 나는 南國의 寂寞한海岸에서

病 을 나스라고잇다고傳하는 이詩人이 내가 提示한 一聯의論文을 忠實히 읽어주일에대해서 기뻐해마지안는다。그의論說에는 만흔承服할點도잇스나또한 承服할수업는點도잇다 假令나의論文이『푸로』詩를 看過한것을 非難한일은 올타。나로서는 내가 詩를쓰고 또생각하기시작한때는 벌서『푸로』詩가 旺盛하지못하엿고 따라서 내思考속에 强烈하게 壓迫해오지안엇든까닭에 그일은 極히自然스러웟다。

그러나 내가말한詩에 대한 全體的見解는『푸로』詩가 卒業한것처럼 말한것은 事實에대한錯覺이거나 誣告갓다。一九三〇年以前의『푸로』詩는 암만해도 內容偏重의 謬」에 빠젓든것갓고 그것이 技巧를 意識하고 內容과 技巧를 統一한 한全體로서의 詩에 到達하는것은 오히려 今後의問題가 아닌가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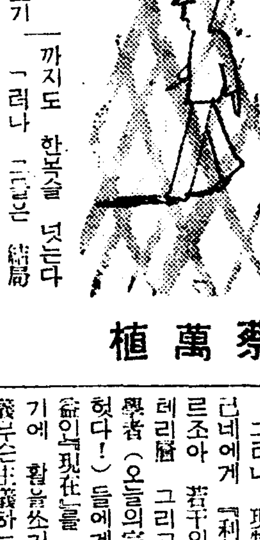
나는 勿論 右로부터 기우려지는 全體主義의

線 을 그러보앗다。『푸로』詩가 萬若에 今後 全體主義의 線을 쪼차서 發展을 꾀한다고하면 그것은勿論左로부터의 組織일것이다。

이 두線이 어떠한 地點에서 서로 맛날가 또는 反撥할가는 이제부터의 課題다。

나는 다만 여기서는 가튼『제네레이숀』에 屬한 同僚들에게 새해에도 계속해서 이 詩에 對한全體主義的意見을 提議하려고한다。

文壇意見



蔡萬植

正統的으로 大別하면——푸로레타리아·이데올로기—를 이데올로기—로 한 푸로레타리아文學派와 뿌르조아이데올로기—를 이데올로—로 한 뿌르조아文學派——의 두流派에 근친다

그中푸로레타리아 文學은以上과 가티比較的單純하게 規定할수가 잇스나뿌를조아 文學은 正確지 못한常識的名稱이부터가지고 얼른보기에家承이 曖昧한 流派가 許多하게 만타

日 뿌르조아文學 派日民族主義文學派日 純文學派 日新自由主義文學派、日新心理主義文學派 日新感覺派 그리고 海外文學派까지도 한목숨을 넛는다

그러나 그들은 結局 民族主義文學派와 純文學派의 두가지로 整理할수가잇다

民族主義文學은 自主國의 國民文學——더 자세히 말하면國家主義文學 即 팟쇼 文學이다

여기서 우리는 朝鮮의 民族主義文學의 領袖인 春園의 文學에서 한與味잇는 傾向을 發見할수가잇다 即 己未를 劃期하야이러난 民族主義文學이 그初期의 民族的××文學이라는 消極的內容에다가 國家主義的積極的 內容을 加味식혀 잇다는것이다

純文學派는 民族主義文學派에서보면 그는確實히 한異論이다

그러나 現制度의 現社會가自己네에게『利益』인 一連의 뿌르조아 君子의 小뿌르조아와인테리層 그리고 二三의 宗敎文學者(오늘의宗敎는 그故鄕을 이혓다!)들에게는 自己네에게利益인『現在』를 支持할지언정 거기에 항거하기 위하야 무슨主義무슨主義하는 文學이야말로도리어敵이요 異端인것이다 萬國의 뿌르조아도團結할수 잇는것이니까——。

그 新心理主義派니 新感覺派니 하는派는 純文學派의 思意아닌邪道、新自由主義 文學派라는것은『新自由主義文學』이나는 글字 일곱字를 그대로 羅列햇슬뿐인 無意味한 內容의 것 海外文學派는 한개의 海外文學(中에도 特히 뿌르조아文學)의 硏究하는 사람들을 가르키는말。

◇

作品은 다른 一般文化水準과 가튼水準에잇되 批評은『혀는 짧은데 침은 멀리밧는』格이다 올케말하면 批評이라는 假面을 쓴 雜文은 잇서도 學的根據에 依한 本格的 批評은——批評家는——一二人에 不過하다

設問

一、文學流派의 槪念規定

二、朝鮮文學의水準은 創作이 더놉혼가? 批評이놉흔가?

無號 李漢福氏畫

青陽

青陽郡化城市 米穀貿易商及貨物自動車業 宋敏會

飛鳳面江亭里 兪熙濬

青陽鄕校直員 鄭雲好

青陽校月里金峯鑛山

朝鮮日報社青陽支局 朴永文 李貞鎬

青陽美堂金鑛 朴用男 梁順京 車龍石 尹明達

青陽郡土曜會

飛鳳面事務所 職員一同

飛鳳龍川釀造場 李俊儀

赤谷面長 金遠信 會計員 任東先

斜陽面事務所 職員一同

青陽化城市 萬春醫院 金容俊

青陽美堂市 李弼浩

青嵎面長金達之外 職員一同

飛鳳公立普通學校 一同

飛鳳徐坪釀造場 兪弼濬

化城面事務所 職員一同

青陽美堂市 大東商會 尹昊燮

赤谷面月山釀造場 任哲淳

青陽面仁良里 韓魯洙

定山面事務所 職員一同

木面事務所 職員一同

定山郵便所長 小島孝一

大峙面事務所 職員一同

青陽美堂市 三共商會 禹箕命

木面華陽里 尹錫勛

大峙面七甲金鑛 金商浩

邑內青陽碾米所 李貞鎬

青陽邑內 トラック貨物業 青武商會

忠南青陽邑內 忠南自動車運輸株式會社 青陽自動車取扱所 電話八番

青陽邑內 田在禧

青陽邑內 朝鮮料理 青松園

クスリ 化粧品 洋品雜貨商 既成服 津田商店 青陽邑內

雲谷面事務所 職員一同

青陽面事務所 職員一同

雲谷市 青雲釀造場 裵錫夏

青陽邑內 [illegible]業 青陽商會

飛鳳面簡易學校 鄭鳳煥

化城市司法書士 李種根

青陽面中山里 尹台遠

木面同春醫院 金泰炳

定山市回生醫院 公醫 李定寬

定山市 崔星植

大峙面酒亭里 卜鎭台

青陽邑內 平和旅館 金相宜

青陽邑內 金禹赫

康津

郡守 朴墉燮 外廳員一同

康津郡海苔漁業組合 組合長 蘇在俊 理事 金生玉 外職員一同

康津郡道岩面項村里 學校評議員 張玟煥

康津面塔小里 營農 朴魯珍

康津司法書士 聯合代書所 石原清三 黃福奎 川上鐵五郎 全奉珍 木村義福 村上赤心 黃鎬根 金鍵富

永田自轉車舖 主 林永鉉

康津面

康津面南成里 康津[illegible] 學校評議員 金鍾燮

康津面南城里 金山釀酒所 主 金安植

康津面東城里 精米業 劉載義

康津面東城里 普仁堂藥房 金正民

康津旭町 金剛屋主 金珉洪

康津面南城里 南城旅館 朴丹草

康津郡大口面項浦里 面協議員 金均

康津郡大口面馬良里 永興館 主 孔孝吉

康津郡道岩面龍花里 學務委員 金南植

普興堂主 金容在

康津屋 日鮮食料 酒類販賣 主 吳昇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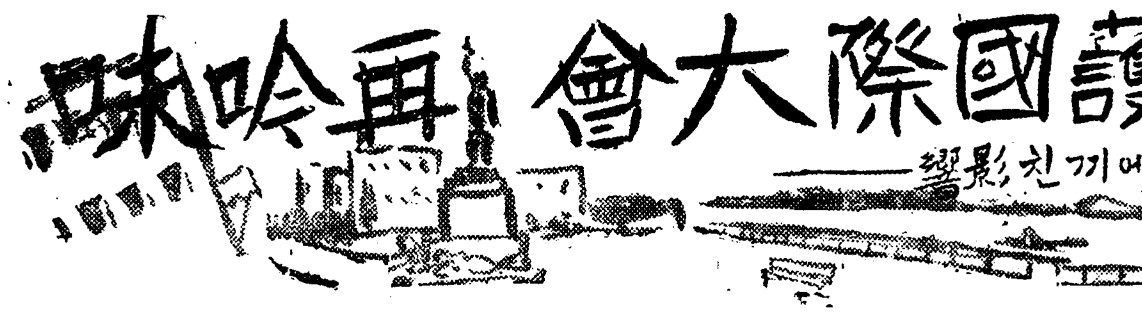
康津面旭町 大島商店 主 韓子義

康津面旭町 陶器商店 趙準浩

康津面東城里 日光商店 主 金奉鎬

康津旭町 食料品商 崔永律

000039



文化擁護國際大會再吟味

— 그것의 世界文壇에 끼친 影響 —

英國의 傳統과 自由 — E·M·포ー스터ー의 演說要旨 (上)

崔載瑞

英國篇

「文化擁護國際作家大會와 英文壇」이라는것이 筆者가 마튼 題目이다。

昨年六月二十一日 巴里에서 國際作家大會가 열린것과 그大會가 文化擁護를 目標로한것은 일즉이 우리文壇에도 報道되엇고 또 그會席上에서한 앙드레·지ー드의 演說 「文化擁護論」도 紹介되엿다고 筆者는 記憶한다。英國서는 E·M·포ー스터ー와 오올더스·헉스레이가 代表格으로 出會에出席하엿다。그의作家的經歷으로보든지 또現在의「펜俱樂部」會長이라는 地位로보든지 當然히出席하리라고期待되는 H·G·웰즈는 事情이잇서서 參涉치못하얏다한다。웬셈인지 이大會에 關하야선 英國新聞에報道가 稀少하고 雜誌도 이事件을 그리重大視하지안는듯한 感을준다。다만佛蘭西쩌ー나리즘은 筆者의눈이 닷치안는곳이니 무어라고 斷言할수업스나 이方面에도 報道의 貧弱을 筆者는 記憶하고잇다。結局이大會는 東洋서期待하는것만큼 저편에선세이숀을 일으키지안엇든것이아닌가 한다。그러타고 이大會의 重要性을無視한다는것은 筆者와는먼ー일이다。

그것은 엇잿든 英國서는 一般이 이大會를엇더케 생각하얏든가? 이亦알길이 漠然하나 다만 『런던·마ー큐리』誌七月號에 실린 스콧트·제임스의 短評은 그雜誌의 性質과 이評者의 地位(그는 이雜誌의 主筆이다)를 아울러 생각할때에 英國의 一般的見解를 어느程度까지 代表하지안을까한다。그一節을 紹介하면 다음과같다。「이運動을 統制하고잇는 機關은左翼一派라는 印象을퍼뜨리기 爲하야 一部의策動이잇섯든것을 나는 잘알고잇다 그리고 勞農露西亞가 이大會에 代表者를보낸것도事實이다 思想의自由에對한 콤뮤ー니스트의態度는 파시스트의態度와 달음업시 有害하다。그러나 이會의重要한 任務를(마텃든사람들의 일흠을보면 이會는 出處의如何를不問하고 모든 理智的專制主義를 攻擊하리라는 保證이될것이다。)이大會의 各國代表者는 佛蘭西의 앙드레、지ー드 빨뷰스 말로ー 와 츄ー르로맹、獨逸의 만兄弟와 포히트왕겔、亞米利加의 또스、파소스 西班牙의 빠렁크랑、체코스로바기아의 카알、카페크、瑞典의 뽀이엘、露西亞의 막심 꼴키 알롤스토이와 쵸룩코프 等이다)

愚昧가 잇슴에도不拘하고 우리의世界가 모든思想의必要와 그思想의德分이다。그리고 思想의 必要를 아는사람들은 새로운國家說이 나타나서 威嚇的으로人類를 野蠻化하랴할때 一致團結하게된다。」

지ー드의 『文化擁護論』과 이短評을 아울러읽을때에 우리는 이번作家大會가 英文壇에서 엇더케 解釋되엿는가를 大綱 짐작할수 잇는것이다。지ー드의論旨는 結局 콤뮤ー니즘下에서個性의自由를 極限度까지 擁護하랴는 것이엿다。그의 모델은말할것도업시 現勞農露西亞의 文學生活이엇다。그러나 스콧드의 評言을 들을때 理智的專制主義라는 말은 左翼에도 잇는것이다。그러키때문에 이作家大會는 파시스트와左翼思想을(專制하는限에서)아울러攻擊할것이라고 그는解釋한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스콧드個人의意見이아니라 英國一般의 意見일것이다。(英國一般이라는것은 英國全體라는 意見은아니다。英國에도 콤뮤ー니스트作家는 잇스닛가。)이것을

證據할만한 資料는무엇보다도 이번大會에서 英國을代表한 E·M·포ー스터ー의演說「英國에 잇서서의自由」일것이다。이講演을 읽을때에 우리는 이번作家大會에對한 英國一般의 態度를 잘알수잇슬것이다。다음에 그의講演을 紹介하는所以이다。

「이會가 나를招待하는 榮光을주고 또講演題目을 選定하라는 말이잇섯슬때 나는 表現의自由나 文化傳統의둘中 어ㄴ것이나 所謂대로골르겟다고 對答하얏다 그러나 어ㄴ題目을 골르든 나는 가튼말을하얏슬것이다。英國사람에잇서선 이것은決코 奇矯한말이아니다。英國에 잇서서 傳統과自由는 密接하게 連絡되야잇다。따라서 이두가지를 한손에다룰수가잇슬것이다。우리나라에서 自由는 數百年동안發達되여왓다。……萬一에우리들現代作家가 이傳統을繼續할수잇다면 밀톤이나 세리나 띄켄스가 그들 時代에 主張한것을 우리들이오늘날 現代的情勢下에서 主張할수잇다면 우리는 우리들의自由에對하야 아모런

恐怖도가지지안흘것이다。「그러나 英國의自由라는것이 얼마나制限되고 얼마나批評의 餘地가잇는가를 나는잘알고잇다。그것은 民族的으로 制限되고 階級的으로 制限되여잇다。그것은 英吉利人에對한自由를意味하나 英帝國의모든臣民에 對한自由를意味하지 안는다 萬一에 諸君이 普通英國人을보고 그自由를 印度나케니아의百姓들과함께 나누라고한다면 保守黨은『千萬에!』라 對答하고 自由黨이면『그들에 資格이잇다고 생각할때까지는 될수업다』고 말할것이다。

다음에 階級에關하야서말하드래도 英國에잇서서 自由는富裕階級의 享有物이다。下層階級에對하야 自由는 한접시의 甘藷料理만한 意味도업다。우리들作家가 그러케重大視하는 自己表現의權利라는것도 남의身勢에지내는 사람에겐 아모興味도업다。自由란 上流階級의 消日거리에서 그들은 充分히 먹고나서批判을 깨트리는것을 滋味로問題삼는다고 그들은 認定한다。自己自身下層階級은 아니나 거기에각갑고또

下層階級에만은親戚을 가지고잇는 親舊분들나는 가지고잇다。그들은우리作家大會와그可能性에 對하야 冷笑的이다。내自身과마찬가지로 自由를미드면서도모든사람의 소리에 귀를열고잇는사람이면누구나 잇다금식 이冷嚴의소리를 듯을것이다。밥이업고 집이업는사람들은 文化遺産에對하야 介意치안는것과마찬가지로 自由에 對하야서도 아모런關心을가지지안는다。그들이 제법關心을가진것처럼말한다면 그것은僞善的放言이다。

「나는 이民族的과階級的의 두가지制限에對하야 率直히말하라고하얏다。웨그러냐하면 나는 이두가지制限이잇슴에不拘하고 自由를밋는다 그리고또 英國에發達한獨特한타입의自由는 우리들英國人에게勿論 世界에對하야서도有益하리라고 생각하기때문이다。내自身의政治思想에 關하야서말한다면 나는 파시스트가아님을 여러분은 잘아실것이다 또 나는 左翼思想家가아니라고 推測하얏슬는지도모른다」(그러나 나는 後者가운데에 [illegible]수잇는以上 내가萬一에 더젊고 더勇敢한사람이엇드라면 그러케되엇슬는지도 모른다。左翼의思想은 내가默이라고 생각하고잇는만은 일을하엿다。

E·M 포스터

『싸베ー트』作家와 國際文學의 連關性 (上)

咸大勳

蘇聯篇

社會主義國家 싸베ー트聯邦作家들이 비록 進步的이라고는하나『各其 哲學的 文學的 政治的傾向을 달리한 作家에 依하여 結成된』文化擁護國際作家大會에 參加햇다는事實은 얼핏보면 그것이 主義上不適當한 態度라고도 볼수잇지만 우리는 그런

偏見에서 解說되어 좀더 公平한 視野에서 이參加한意義가 적잔타고본다。그러면意味에서 나는 이參加한意義와收穫과 今後動態를 한번考察해보고저하는바다。

一種의 독개비가 歐洲의天地를 橫行하든그舞臺에 最近에와서는 一種의독개비 即파시즘이 橫行하고잇다 이리하여 巴里에 文化擁護國際大會는 이濁流에抗하여 그억센逆流의기ㅅ발을 날리게된것이다 그러므로 進步인 싸베ー트聯邦이 손을빼처 구든 握手를한것은 오늘날의 그들로는 當然한 任務라고본바 더구나 싸베ー트의『文學新聞』論說이 主張한것에 依하면 이것의 意味가 더큰것을 알수잇는것이다

『會議의 根本的인 總收入은 파시즘 反動에抗하야 文化를 擁護하려는 積極的觀念이 現代의 科學、文學、美術의 享壽한 機關의 代表者에 깁히 共鳴된것을 봣다는건 속일수업事實이라」고 그러면 이는 恒常 파시즘에抗하는 싸베ー트作家를 이 思想을 달리하는者가 석지안코도

막심、고리키ー

決議文에서 보는것과가티 『傾向을 달리한作家들이 이만흔 이會議에出席하야 파시즘에抗한는 各國代表의 一致한 決議를본것은 그들로서는 一個의成功이라고 볼것이다。

이런意味에서 나는 싸베ー트作家들의 이會에 參加한意義는 初期의 偏見的인 그들의態度에서 얼마나 進步한 態度라고볼수잇는것이다 그런데이 文化擁護國際作家大會에는 「막심、고ー리키」의 病으로因해 出席못한것외에는 豫定대로『알렉쎄이、톨스토ー이』『일리야、엘렌부르그』『루ー포ー르』『판포ー롭흐』『지호ー놉흐』『브세볼로드、이봐ー놉흐』等等十五人이란多數의 作家가 參席하야 그들의 文化擁護를 爲한 獅子吼는 滿場緊張裡에 進行되엿다

이제病으로 出席못하엿서도(文化擁護에寄한다)는一文으로써 이作家大會에 보낸『고ー리키ー』의一文은 싸베ー트의 作家로서 얼마나 그大會가 意義잇다는것을 力說한것인가를 알수잇는것이다 이제그一文의 冒頭를 暫間引用해보면

「파시즘의 發生을 깁히 遺憾으로 생각하고 그思想의 有害한 行動과 그의歲月업는 罪惡의增長을본 사람들은 國際作家會議에 健康上의 障害로 내自身이 出席치 못한것은 甚히遺憾이다」고하야 이會議가 가지는 文化的意義에 참가못하는 그유감과 또한 멀리서나마 그會議에 讚辭를 보내는걸 잇지안엇다 그리고『文化에對하야』란 一文으로써 파시즘이 얼마나 文化를 破壞하는者인것을 넘우도 明瞭히 指摘하엿다。

이리하여 『고ー리키ー』는 그一文에서 파시스트의

橫暴를 絕叫하면서 유린되는 文化、文學者、學者에對한 痛切한 부르지즘을 보냇것이다、여기에서 우리는 고ー리키의 文化의 옹호자로서의 뚜렷한 存在를 차즐수 잇슴을 볼수잇는것이다。

나는『고ー리키ー』의 一文에서 다시 생각되는 것은『고ー리키ー』가 가지는 그 文化乃至 文學的 態度에 잇서서 좀더 國際連關性的意義를 차즐수 잇스니 그것은 그가말한바 巴里에서擧行되는 文學者의 會合은 파시즘의 破壞的追害로서의 文化擁護를 會로ー간으로 組織되엇다 이 國際作家會議에 健康上 障害로 내自身이 出席치못한것은 甚히遺憾이다 한것으로보아 너뎌히알수잇는것이다 더구나『고ー리키ー』의 이말과함께 우리는 作家會議의決議 第三條『뷰ー로는 가장主要한任務의하나로서 當該國에잇서서 發表困難한 優秀한 作品書籍、原稿等의 飜譯及保障方法을 研究하는것으로함』이란것을 連結해서 생각할때 싸베ー트文學은 좀더 國際的으로 유린當한 優秀한外國文學을 培養한 士業가되지 안흘가 생각되는것이다。

더구나 第二條 決定하는『뷰ー로는 各國文學의飜譯의組織化를 保障하고 審査키爲해 提出될 譯의性質을 檢討하는同時 그미치는組織과 公布의性質도 檢討한다』고 햇스니 이것으로써도 넉넉히 文學의國際性을 가질수잇는것이어든 決議三條에나타난『發表되지못하는 作品의保障方法研究』는 한층더 國際文學에잇서서의 進步的인 文學의장한役割을 가질수잇는것이라할것이다。

그러면 싸베ー트作家는 이번 國際作家大會에 무엇을말햇스며 今後의 收穫은 무엇이엿던가?

十餘作家가論한 滔滔한 長廣舌을여기 일일紙面을가지못해거니와 特히 내눈에 注目되는것은『루포ー르』의 文化繼承의諸問題와『브세볼로드·이봐ー놉흐』(一八九五ー)의 싸베ー트聯邦에잇서서의 作家地位란 演說이다。

『루포ー르』는 文化繼承의 諸者들이 過去의 古典的인 偉大한 文學에 對하야 가장『實際的인』態度를 갓고잇다고 하야 그例證으로써『푸ー쉬킨』으로부터 체ー홉흐에 이르기까지 露西亞文學이 가진 糧食과『발작크、유ー고ー、스탄다ー르』等 佛文學이 이가지는 營養을 攝取에 對한 意義가 접은 싸베ー트文學이 最初의 輪廓을 갓는데 잇서서 偉大한遺産의 하나로 커ー다란 힘을가젓다고 다음과 가티 論하엿다

國際作家會議 決議案全文抄

一、二十八個國의 文學을代表하야 第一回文化擁護國際作家會議에 參加한作家는 會議에서부터 給付된事業을繼續할必要가잇다고認定함。

그럼으로 여긔에 國際文化擁護作家協會를 組織함。協會는 今回의會議에 依해서 지어진關係를 維持하기로하고 나아가이것을 擴大할 任務를 가진常設國際『뷰ー로ー』의指導下에잇슬것。

二、『뷰ー로ー』는 各國에잇서서 文學의 飜譯의 組織化를 保持하고審査를 爲해提出될 飜譯의性質을檢討하는 同時에 그밋치는 範圍와公布의 性質도 檢討하기로함。

三、『뷰ー로ー』는 가장 主要한任務의 하나로서 當該國에잇서서 發賣禁止가된 優秀한作品、書籍、原稿等의 飜譯及刊行의 保障方法을 研究하기로함。

四、『뷰ー로ー』는 相互親善을 爲하야 作家의各國旅行及滯在에 際하야는 便宜를보아주기로 努力함。

五、『뷰ー로ー』는 諸國에서 發表된 價値잇는 作品으로서『뷰ー로ー』가 그것及을 要望하는것은 目錄을作成하야 定期的으로公布하기로함。

六、『뷰ー로ー』는 優秀한 現代文學作品을 支持하기위하야 各種의形式과 方法을 考究하되 그러기때문에『뷰ー로ー』는國際文學賞을 設定하기로함

七、『뷰ー로ー』는 必要하다고 認定할때는 第二回國際作家會議招集의 準備를할일

八、모든哲學的、文學的、政治的傾向을 달리한 作家로서 되『뷰ー로ー』는 文化의領域에 잇서서『파ー시즘』이나무엇을勿論하고 文明開化에威脅을주는 一切의危險에對하야抗爭하기로함。

——以上——

左、바벨(蘇) 右、포ー르、늬장(佛)

特殊論文 自由主義의 哲學的解明 ③

朴致祐

實로『市民의自己解放』이라는 이 點을떠난다면 이것은곳 自由主義의本質을 論할資格을 抛棄하는것밧게는 못될것이다。웨인가하면 市民의 自己主義라는 이 歷史的事實을 注視함이 업시는 自由主義의 發生根據를 차즐길이 업슬터임으로서다。어쨋든自由主義라는 하나의『이즘』은 어떠한 使命下에、即 市民의

解放을爲하야 이때로부터 비로서 諸市民의 文化領域에 侵入受容되기始作하여온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誕生과 存在理由를 가젓든 그主義가 웨오늘에와서는 그처럼 悲慘한沒落을 가지안흘수업게 되엿든가?

이것을 解明하기爲하야서는 우리는 于先 市民的自由主義가 主張宣傳하든 그『自由』가 그後 如何한 運命을 밟게되여온가를 살펴볼 必要가잇다。

自由라는 말은 元來다음과가튼 두가지의 意味로 使用될이 普通일것갓다。即『로부터의 自由』라는 消極的意味로 使用될때의 自由와『에로의自由』라는 積極的意味로 使用될때의 自由가 이것이다。前者가 或者로부터 自由、即『解放』이라는 意味의 自由라면、後者는 그로부터 解放될 上典이 存在치안흠에도 不拘하고 純全히 自己自身의 自己完成만을 爲하야 保留또는 行使하는自由、이러한意味의『自適』『自完成』이라는 意味의

自由라고나 부를수잇슬 것이다。奴隸의 自由가 前者(解放)이라면 上典의 自由는 後者(自適또는自己完成)일것이다。그리면 市民的自由主義가 主張宣傳한 自由는 어ㄴ것에 屬하는것이엿든가? 自由主義가 初期에잇서서、即 初期自由主義가 主張한 自由는 實로 純全히『로부터의 自由』即『解放』이라는 意味의 自由이엿다。初期市民層은 于先 舊勢力『으로부터의 解放』이 急先務엿기때문이다。따라서 自由는거기서는 全然 解放이라는 意味에서만 取扱되엿슴에 不過하엿든 것이다。『…으로부터』 貴族僧侶로부터、舊制度로부터 舊習慣으로부터의 解放이라는意味의 自由엿든것이다。

그러나 舊社會形態에對한 市民의 鬪爭이 一段落을지은後 이제로부터는 積極的으로 市民的諸組織의 自己完成을爲하야 方向轉向을敢行한 市民社會의 다음段階에 드러서자、『自由』도또한그의內容을 變하지안흘수업섯든것이니 市民의意欲이

破壞로부터 建設에로 解放으로 떠나서 完成에로 推進됨을따라、只今까지의『으로부터의自由』는 市民自身의 自己完成을目的한『에로의自由』로 轉向하지안흘수업섯든것이다。上典이 업서진以上 그곳에 解放이 잇슬理由가 업지안혼가! 이제부터는自適하게 그러나 所謂의精力을다하야 自由로운 發展과 完成을圖할時期에 드러선것이다。自由는 이에 그의積極面을遺憾업시發揮하야 政治 經濟 其他외갓 市民的施設의 擴大强化를目標로市民의 손에依하야 그야말로『酷使』되여온것이 事實이다。政治形態에 잇서서는『데모크라시ー』經濟組織에 잇서서는 資本主義的自由經濟 宗敎에잇서서는『프로테스탄티즘』等等이 確立또는完成한時期도 바로이때이다 獨乙理想主義의 哲學(이것은 市民哲學中에서도 特히보담 더自由의 哲學이엿다)이 그의 隆盛을 자랑하던때도 이때이다 自由主義의 黃金時代는 이러케해서成熟되엿든것이다。

그러나 모ー든存在는 그自身에잇서 벌서 自身의 否定을內包하는것이다 市民社會도또한이에 對한例外일수가 업섯다 大體이 社會形態의

礎石을形成하든經濟機構는 利潤의追求만이 그의唯一의目的인『資本主義的經濟機構』이엿드니만큼、生産에잇서서의 自由主義(自由競爭)는 그리 처음부터의 要請이든것이事實이다。그러나 오늘에와서는果然엇더한結果를 招來하엿든가。生産과 消費와의 不均衡、價格의 下落、따라서 利潤의減退라는 資本의 本來의 意圖와는矛盾되는 事態에 到達하지안헛든가! 自由主義는 여기서 市民自身에對한 發展形態로부터 그의桎梏으로 變하고만것이다。世界大戰을 轉機로하야 元來『自由』와는 가장距離가 머러야할『統制』라는 새로운말이 웨처지게된도 決코 偶然만은아닐것이다。生産部門에잇서서의 이가튼『自由의桎梏化』는 市民의 自由主義的 政治形態인『데모크라시ー』에反映하야 그의危機를 現出하엿스며、이리하야 畢竟은 自由主義와는 아모러한 緣分도업서야만될『파시즘』的政治形態에까지轉化 또는 移行하게된것이 오늘의現狀이라하겟다。解放을爲하야、完成을爲하야、過去五百年間이나

忠實히奉仕하여온 市民의奴僕 自由主義는 오늘에 와서는 不得不 그가섬기든 그上典의 손에依하야 解雇되지안흘수 업게된셈이다。

放逐作家「그룹」과 獨逸文壇의 現勢 ②

金晋燮

獨逸篇

일즉이獨逸에 對文化破壞政策이 實行된以來로 文化水準이 急速히 低下되엿다는것은 最近獨逸의 情況을보고온者로부터 恒常 듯는 觀察談이지만 事實 우리와가티 獨逸文學을 比較的愛好하는者들에잇서서 크게 恨嘆되는것은 獨逸文壇水準의 놀날만한

低落과 그文學行動의顯著한 寂寥가아니면 아니된다。멧사람의 老大家는依然히 健筆을휘두러 假令最近의 成果만 보다고하드래도『하울프트만』『뷰르츠부르크의합렛』舞臺에 올리고『헤르만·헷세』는『靑春은 아름답다』는小說을『요셉·폰텐』은『불가의나라』와『하이델베르히時代』란小說을 그리하고『토ー마스·만』은 그의三部作인『요셉과 그의 兄弟』의 最終篇을 完成하기에 努力中이다。그러나 獨逸文學의 眞髓는『괴ー테』와『실레ー』와『바그너ー』의 三者에잇든까닭으로『모던』이고『데카단的』이고『俗流에 迎合되는』『猶太系文藝』는 獨逸文化의 참된 精神으로부터 排除되지안흐면 아니되다는것이엿다。이리하야 여기 우리는 이르는바『國家社會主義的文學』이 獨文壇에 形成되며잇는것을 失望의 눈으로 보지안흘수업는者이지만 그들이 얼마나 祖國을노래하고 獨逸精神을謳歌한大家를 過去의文學史上에차즘으로서 그

單調와低俗을 건지랴고잇다하드래도 이獨文壇의中堅地帶를일코 心臟要部를도려낸뒤의 獨文壇이 一朝一夕에 조흔補充者를내세울수업슴은 두말할것이업다。獨文壇의 核心을 一時構成하고잇든 放逐作家로서 우리는 우리의記憶에떠오르는것만 친다하드래도『하인리히、만』『크라우스·만』『알프렛트·케르』『알프렛트·되쁠린』『아르놀드·추바이크』『헤르만·나이쎄』『요한네스·베헤르』『베르트·부레흐트』『빌헬름쥬파이에르』『발테르·메ー링크』『에른스트·톨러ー』『페르디난드·부르크너ー』等等 一一히 枚擧指名하기에만도 힘이들를 늣기는者이지만 그러나 이들不幸한 追放作家의 무리로말하면 獨文壇을 떠난뒤에도 多幸히 外國同好者의 絕大한 庇護밋해 主로 和蘭의『암스테르담』을 本據로하고 獨逸文學을 爲하야 氣焰을 吐하고잇는것은 우리의意를 도두는것이라할수잇다。이번의『文化擁護國際作家大會』가 特히그들이 가저야할

信念에 얼마나한 感動과 氣運을 주엇는가에 對하야서는 讀者諸氏의 想像에 맛길수밧게 업지만 都市『암수테ー담』은 事實에잇서서 나치스 追放作家群의 不少한 作品을 世上에 내노앗스니『토마스·만』의 아들인『클라우스·만』主宰에 關하는 나치追放作家들의 唯一한 雜誌『잠룽크』가 이곳에서 發行된은 두말할것이업고 一九三五年度에 發刊되엇行本만 하드래도 十指를넘더히 꼽고도한 남음이잇슬것이다。그中에서도 더욱히『猶太人쥬ー스』의作者로 아즉도 우리의 記憶에 남아잇는『리온·포이히트밧게르』의『子息들』과『하인리히·만』의『헨리四世의 靑年時代』와『알렉산드리아廣場』의作者『알프렛트·되쁠린』의『助命은어렵다』와 그리고『체코스로바키아』의 一群의 共同詩集等은 文字그대로의『苦心』의 力作으로서 世上에 推獎할만한것에 屬할것이다。或은巴里에 或은倫敦에 或은프라ー그에 或은瑞西各地에 亡命의 외로운몸이 되여 몰내 外國의新聞雜誌에 寄稿함으로 依하야

에른스트、톨러ー

祖國에對한 鬱憤을 吐하고 잇는 그들의 悲境을 생각하면 그들의身勢가 限업시同情되지만 假令 巴里에는『구로수만』編輯의『社會研究雜誌』가잇고 新聞으로서도『巴里日刊新聞』이『伯林日刊新聞』에서 追放當한 有名한 新聞人G·베른하르트 主宰下에 獨文으로 發行되여잇고『프라ー그』市에도 數種의新聞 雜誌가 나치스追放系人의 손에依하야 發刊될뿐아니라 上述한바와가튼 出版物이 續續比肩하야 出現하는것을 目睹하면 多幸히 우리가 생각하는것만큼 人類文化의損失은 크지안흔것 갓기도하다。그러나 勿論 이모든 成果가 文化擁護精神을 常時닛지안코잇는 各人各人의扶助에서 비소로 나타날수잇섯슴은 두말할것이업다。要컨대『文化擁護大會』는 이러한人類擁護者의 意識的行動에 不過할뿐이다。

이와가튼 너무나 常識的인 推測으로부터 한거름 더나아가서『文化擁護國際作家大會』의關係가 獨逸及獨逸文壇과 乃至는 追放作家의 一群에게 果然 如何한

反響을이르켯는가 하는問題에 對하야서는 筆者는 未安하지만 거의아는바가 업슴으로 告白치안흘수업다。그러나 적어도 獨逸國內에잇는者는 獨逸精神에 불다고 또 指導者原理에 服從하는者라야만되고 그리하야 이곳에서는 나치政府를 讚歎하는말以外에는 어떠한 會話도 크게 말할수업는(말한는 날에는 當然에 政治犯監獄行이 約束되는) 事實을 理解하는 사람이면 나의 無知를 責하지는 못할것이다。우리가 獨逸의 情勢를 理解하랴할때 그곳의 出版을 通하는 方法 밧게 가질수 업는 勿論이어니와『힛틀러ー』治下의獨逸의出版物이 이러한 問題에 對한 報道의 自由를 줄理는 萬無키때문이다。나는 일즉이 獨逸의 新聞雜誌가 단한사람의 追放作家의 消息인들 揭載한일을 본일이업다。이것은 實로 一九三三年十月에 新聞統制法이 實施된 以來의 劃一化的指導方針의 好産物에 屬하는것이다。元來 獨逸의新聞으로말하면『뉴ー쓰·프레스』라기보담은 차라리『오피니온·프레스』의 色彩가

濃厚하얏섯다。그리하야 모든新聞은 各其그들獨自의 立場에서서 스스로論壇의 有力한 一翼을 形成하고 잇섯든것이지만 벌서 오늘이란 오늘에잇서서는『그러한特色을獨逸의 어던新聞으로부터서도 찻기힘들것이다。아니、이와가튼 特長이 나타나잇지안흠을 歎할것이아니라 이제 獨逸의모든新聞은 忠實한 報道를 目標로삼는 훗된『뉴ー쓰·프레스』인機能조차도 容赦될수업는 地境에니른 것이다。이리하야 이곳의 新聞에 賦與된 새로운 使命으로말하면『事實의報道』가 아니오 人心을麻醉식히는』宣傳啓蒙大臣『요셉·겝베르스』의 忠實한 手인것에 存在하지안흘수업게되엿다。獨逸新聞은 官報化하얏다 한사람들이말하는것을 確陣툿거니와 獨逸新聞은 이제는 맙서 그러한幼稚한境地를 훨신지나서 그것은 完全히 나치스政府의宣傳機關으로 化하고마것이다。여기서 이러한新聞의政府機關化와 必然히

連絡되는現象으로서는 最近獨逸內에서는 外國新聞의購讀者의數爻가 激增하여가며잇다는事實을우리는 指摘코저한다。이러한現象으로말하면 新聞이가르켜주는『批判』은 姑捨하고 그基礎가되는『事實』까지도 國內新聞에서는 차즐수업다는것을 證示하는것이지만 적어도 이러한獨逸新聞이『나치스政府』를敵으로하고엇던『文化擁護大會』가 報道記事를 낼수업슬것인은 두말할必要가업다。나는 獨逸의 出版物을 가장만히 利用하는點에잇서서는 한사람의 獨逸人이라할수잇다。이大會와追放作家들과의緊密한關聯에 對하야서는 남보담도 더알고십허하는 要求가잇슴에도不拘하고 些少의 仔細한消息을드를수업슴을 前부터 크게遺憾으로생각하든터에 編輯子로부터 이러한 題目의付托을 밧고나는 맛치 獨逸人이 外國新聞購讀의길을通하야서 事實의 正確한 報道에接하고저하는 그와가튼궁거운心理를 여기經驗하고잇다는것을 最後에 告白하는 會뿐이다。나는 모든良心잇는人士와가티 今番의『文化擁護國際作家大會』의意義를確信하고 不幸한放逐作家구룹의 文化史的使命을 限업시 稱讚하고 잇기때문이다。(完)

賀正 元旦 清道

清道郡 官公吏一同

角南面協議會員 崔在馨

學校評議員 李昌基

清道郡角南面新堂洞 韓彰愚

清道郡伊西面鶴山洞 朴在蔓

清道郡大城面元井洞 朴祥睦

京釜線楡川 楡川麵子製造株式會社

京釜線清道驛前 清道酒造株式會社

角南金融組合長 朴漢起

角南面職員一同

清道郡錦川面東谷市場 穀物貿易 古鐵買入 精米製造 山東共公商會 代表者 金大斗

清道郡角南面禮陽洞 崔萬祚

清道郡角南面 會計員 卞敬熙 書記 朴文洙 同 梁衡錫

清道郡 角北面職員一同

華陽面職員一同

角南面協議員 學校評議員 梁慶煥

清道邑 金景坤

清道郡角北面明大洞 鄭在華

清道南省峴 李建春

角南面協議員 卞在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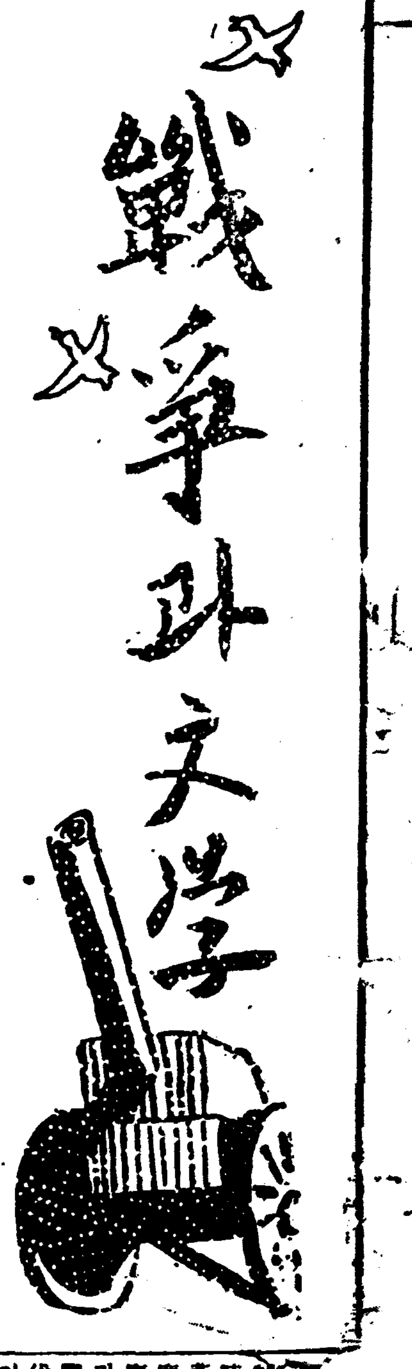
清道郡角北面牛山洞 朴鋌基

京釜線楡川市場通 清川釀造場

角南面德里洞 卞敬熙

華陽面協議員 李庭秀

戰爭과文學



文學에反映된戰爭 特히大戰後의傾向

序言

(寫眞은…筆者近影)

洪碧初

希臘詩人『헤시오드쓰』가 人類種族의 墮落을 슬픈詩가잇는데 그詩內容에 太古黃金種族時代에는 人類가 完全한 平和와 幸福을누리엇고 그뒤白銀種族時代에는 魔法殺人과 復讐鬪爭이간혹 생기엇고 또 그뒤靑銅種族時代에와서는 戰爭이 發生하야 黃金時代의 平和와 幸福이 完全히 破壞되엇다고 詩人은 靑銅時代를 미워하얏다 이것은 詩人의 想像이다 그러나 詩人의 想像이때로는 學者의 硏究보담 正確히 事物의本質을 捕捉하는수도 업지아니하니 戰爭의 起原을 人類社會의起原과 가티잡은 學者가 許多한것을 보라 人類社會初期에 金黃時代잇슨것을 꿈想像한 古代詩人이 卓越하지아니한가 古代戰爭硏究의 權威者인『홀스티』는 그著書『戰爭의 國家起原에 對한關係』中에 野蠻種族이모든點에 平和的인 無數한 例證을列擧하고 人類의野蠻時代에는 戰爭이업섯고 한갓 個人間의爭鬪가잇섯슬뿐이라고 斷言하얏다『모간』의 名著『古代社會』를보더라도 人類가 生産手段을 私有하기시작한 未開時代後期에 戰爭이 비로소 發生한것이 의심업다 戰爭을 人類의 野蠻性殺伐性이라고 本質的으로 平和的인 野蠻人未開人을 誣捏하지말라 戰爭이 文明과가티 시작되고 文明과가티 進步된것이니 말하라면 文明性殺伐이라고나 할까『世界가 너무非文明的인까닭에 戰爭이나는것이아니고 그와反對로 世界가 高度로 文明한까닭에 無比한 殘忍破壞의 戰爭이난다』는『스코트·니아링』의 말이조곰도 비꼬아서 한말이아니다

戰爭은文明의產物 層一層甚해진戰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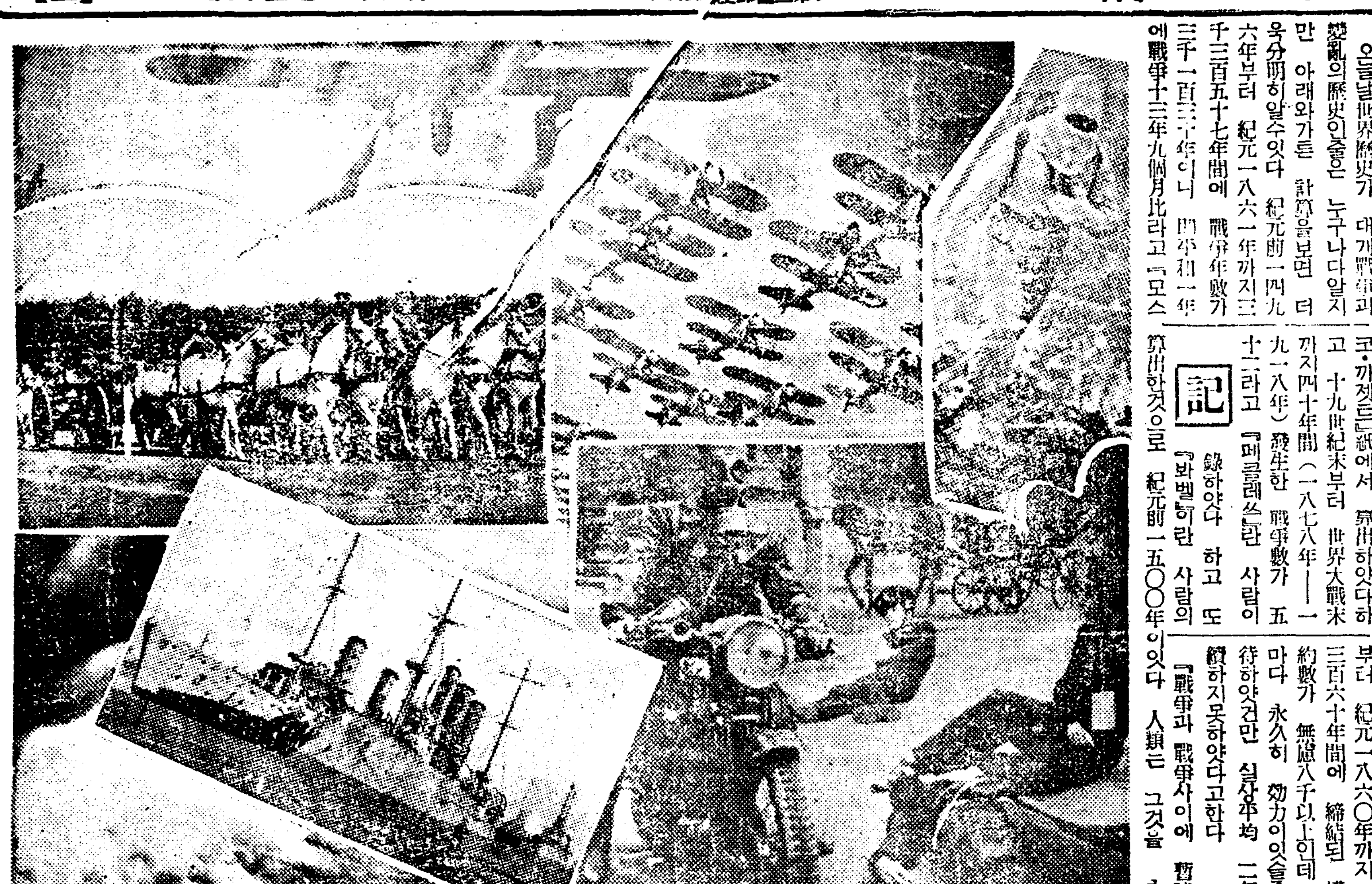
오늘날世界歷史가 대개戰爭과 變亂의歷史인줄은 누구나다알지만 아래와가튼 計算을보면 더욱分明히알수잇다 紀元前一四九六年부터 紀元一八六一年까지三千三百五十七年間에 戰爭年數가 三千一百三十年이니 平和는一年에戰爭十三年九個月比라고『모스코·까젯트』紙에서 算出하얏다하고 十九世紀末부터 世界大戰末까지四十年間(一八七八年―一九一八年)發生한 戰爭數가 五十二라고『메클레쓰』란 사람이 記錄하얏다 하고 또『뽀벨』이란 사람의 算出한것으로 紀元前一五〇〇年부터 紀元一八六〇年까지 三千三百六十年間에 締結된 媾和條約數가 無慮八千以上인데 條約마다 永久히 效力이잇슴을 期待하얏건만 실상平均 二年間持續하지못하얏다고한다

『戰爭과 戰爭사이에 暫時休息이잇다 人類는 그것을 永久한平和다 다시戰爭이업다 생각한다 人類는 眞正한心眼으로 眞理를認識하라고하지안코 또 認識할必要도 늣기지안는다 그 樂觀과는 아무 關係업시 戰爭이 또 시작된다 그러면 人類는 여전히 또 붙으짓는다『이戰爭뒤에야말로 正義와平和가 支配하게되리라…』고 결국말하자면 어느戰爭이든지 다 最後의戰爭이다』이것은『께올흐·뿌란데스』가 世界大戰을 最後戰爭으로 생각하는 樂觀者들을 嘲笑한말이다

未開時代의戰爭目的은 家畜掠奪이요 또 貨物强徵일뿐이라 戰爭이 風雨가티 經過하면뒤는 無事泰平이든것이 文明時代가되며부터 種族이 奴隸로잡혀가고 또土地가 領土로들어가고 戰爭의 禍가 戰爭期間에끄치지안케되엇다 奴隸制度와封建制度아래 넘어난 戰爭도 未開時代戰爭에 比하면 破壞的이요 非人道的이엇지만 그래도아즉程度가 緩和하얏는데 資本主義制度가 確立한뒤로 武器가 發達되고 戰爭技術이進步되고 戰爭의禍가 漸漸慘酷하야져서現代에와서는 破壞的이니 非人道的이니말할나위 조차업게 되엇다

空中의 航空機 陸上의탕크 海底의潛水艇가튼怪物이 人命을 殺害하는 現代戰爭은『알렉산더』나『씨서』나또는『나포레옹』가튼 好戰的人物이다시살어와서본다면 자긔들이아이들작난가티 戰爭한것을 부끄리는同時에 자긔들은 가장人道的으로戰爭한것을자랑할것이다 獨逸의 有名한 藥學者레뷘의말이 世界大戰當時에 百餘種에不過하든 毒瓦斯가 지금은大約一千種에 達하는데 그중의二十五種는 이때까지 알려진 모든『마스크』를 浸透할수 잇고 또 極히 微量의 濃度도 絶對로 致命的이라고한다 航空技術의 進步와 化學兵器의 發達로 戰鬪員 非戰鬪員의 區別이 消滅되어서 將來에 第二世界大戰이 난다면 그때는 여러 交戰國의 出戰軍人이나 戰後平民이나 다가치 戰火의 洗禮를 免치못하게 될것이라 世界人類가 지금 戰爭慘禍의 豫感으로 戰慄하는中이다。世界人類의 大多數는 戰爭이 업기를 바란다。그러나 戰爭이 안날수 업다 왜그러냐 戰爭은 現代文明과 등이 맛붓튼 雙童으로 이것을 떼어 버리라면 現代文明에 大手術을 施하는外에 別道理가 업는까닭이다 偉大한 木乃伊가 大氣中에서 解體되는날이면『뿌란데스』가튼 사람도인제는 참말 最後戰爭이라고 볼수잇게될른지 世界人類는 아즉 더 試練을바더야할터이다

(作品에나온 戰爭으로 繼續)


◇……三元化된 現代軍備……◇

作品에나온戰爭 —汗牛充棟의多數—

世界歷史란것이 戰爭과變亂의 歷史인 즉 世界文藝에 戰爭反映된것이 量으로 宏壯할것은 어림으로도 짐작할수잇거니와 事實로도 그러하다 文藝의 題材로 男女間愛情葛藤外에는 戰爭과 變亂이 가장만흐니 戰爭文藝라 特殊한것은 말하지말고 普通文藝作品에도 多少間部分을 차지한것이 이로헤아릴수업시만타

文藝에 反映된戰爭이란漠然한題目을주고 무엇을엇더케쓰란말인가 文藝우에地域이나年代의 制限을부치거나 그러치아니하면 戰爭을 世界大戰이라든지 日露戰爭이라든지分明히 밝어야할 題目이아닌가文藝에制限을부치지안코 戰爭에名稱을박지안흔것이 아마 우리朝鮮文藝에反映된戰爭을 적어보란뜻인가부다 天心錯莫臨江水。廟算凌虛對夕暉(李好閔龍灣詩)나 孤臣義重心無作。聖主恩深死亦輕(吳達濟瀋陽詩)가튼漢詩句는 들추어도 所用이업고 東國名將傳가튼 傳記를주려적는것은 題目내어준사람의所望이아니려니 舊小說하고 생각하야보니 酒漢傳과 朴氏傳가튼 當時사람의義憤이發露된 小說도或잇스나 作品으로 足히들어 말할만한價値가업고 그外에는 대개다淺薄한理想主義小說로 主人公이出戰成功하랴고 戰爭이나되 千篇一律로 虛無孟浪한 戰爭이라 이것을 題目에맛도록적을도리가 업다 생각다못하야 題目내어준사람에게 題意를물어본즉 大戰後戰爭文學의特徵을 적으면된다한다 世界大戰以後戰爭文學이 가장顯著히過去의것과 달은點은 곳 反戰文學이發生한것이다 英雄名將勇士에對한 讚頌歎이든 過去의戰爭文學을 大戰이淸算시키엇다 一將功成萬骨枯에萬骨이무슨罪냐 여긔에戰爭의成因을살피게된다 反戰文學을적으랴면 戰爭의成因을 먼저적는것이順序일뜻하기에 順序를차리다가 制限된紙數의太半을 허비하얏다 太半은 姑舍하고 全部를다 허비하고라도 끄테가서『이리하야 世界大戰以後에 反戰文學이發生하얏다』한마듸로 結論하면 題目내어준사람은 外題라고 책망하지못하리라(反戰文學의潮流로繼續)

大戰後로旺盛한 反戰文學의潮流

『알버트·쉰쓰』의 著書『戰時佛蘭西文學』中에 一九一四年으로부터 一九一八年까지의 佛蘭西戰爭文學을 三期로分하얏는데 第一期文學은 開戰直後 異常한 衝動과 强烈한感情이 나타난것이요 第二期文學은 대개戰爭의記錄이요 第三期文學은 慘憺한戰禍의表裏를觀照反省한것이라하얏다 第一期文學이란 모다愛國文學이요 第三期文學이란 대개反戰文學도反戰色彩를가진文學이다 이것은佛蘭西文學뿐아니라 獨逸文學도마찬가지다 아니 獨逸文學에 더 잘反映되엇다 大戰初에는 獨逸文學中 愛國心好戰心이發露된詩歌數가 大戰第一年에만 百五十萬이나되엇다하고 獨逸의 著名한思想家文學家九十三名이 署名하고『우리나라가 엇지하야 戰爭을 하지안흘수업는가』라는宣言으로 獨逸의 軍國主義를 擁護하얏섯는데 大戰中及大戰後에는 反戰文學이盛하야 佛蘭西其他諸國보담 有名한作品이 훨신만타 例를들면『하인리히·만』의『愛國者』『버나드·켈만』의『十一月九日』『에른스트·톨라』의『절름발이』、『에른스트·글레써』의『一九〇二年級』『루드뷔히·렌』의『戰爭』·『에리히·레마르크』의『西部戰線에 異狀업다』等이다 西部戰線에 異狀업다는것은 一九二九年에 發表되며 곳一世를 風靡한小說이니『이書는 告發도아니고懺悔도아니다 더구나 冒險은당초에아니다 엇재그러냐하면 죽엄을面對한사람에게는 죽엄이 決코冒險이아닌까닭에、내가 이예기해들리라는사람은 어린사람들이다 그들은 비록砲彈을밧지안헛더라도 戰爭으로 破壞를當한사람들이니』著者의緖言만 보더라도이小說이 眞正한反戰文學이 아닌것은 짐작할수잇다 이小說은平和主義者와 軍國主義者에게 다가티歡迎바덧고 또大戰戰線에서 反帝國主義의 代表的傑作『砲火』를 著作한『앙리·발뷰스』에게『이作品은 相當히 社會의注目을 끌엇스나 새로운맛이잇는 作品이라고는 할수업다 그보담은 十三年前에나온 墺太利作家『안드레아스·라쓰코』의『戰爭하는사람들』이야말로 藝術的價値가優越하다 그것은 보담더完成되고 보담더힘이잇고 보담더明白하얏다……』는 批評을바덧다 反戰色彩를띤것만은 抹殺치못할事實이다 反戰文學으로 佛蘭西에도『로랑』『말르네』『듀아멜』『발뷰스』等의作品이잇스나 獨逸에 比하면 少數이고 其外諸國에도 업지아니하나 戰爭을 가장切實하反映시킨 文學이 獨逸과佛蘭西의 文學이라 獨逸作品을例로들고 佛蘭西作家들을 일음만적고 以外諸國은 略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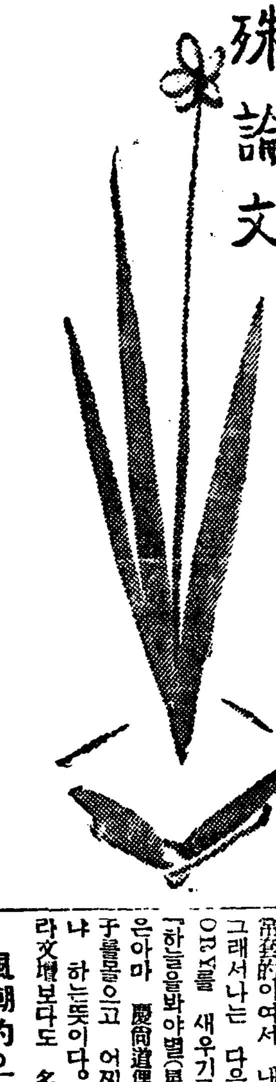
反戰文學作品이 初期에는 人道的色彩가 만튼것이 漸次로左翼的傾向이 濃厚하야지고 昨年六月에는 三十八個國 作家 思想家들이『파리』에 모이어서文化擁護國際作家會議를 열고 그긔에 國際作家協會를 組織하고廣義의 파시슴파에 對하야 文明을 威脅하는모든 危險에 對하야 文化方面에서 抗爭한다고하야 左翼分子아닌 作家들도 모다그리로 기우러지게되엇다 파시슴이 增長할수록 第二大戰이 切迫할수록 그危險을 防止하랴고 國際協會作家들이 猛烈히 活動할것이니 그들의文學이 아포로더욱盛하야갈것은 거의의심업는일이다

世界人類가 아득한녯날에 널어버린平和와幸福을 다시찻는날이잇다면 이는戰爭이 그自體에 死의宣告를날닐것이니 오늘날그들의 反戰文學을 그戰爭의 前哨部隊로 보아도 조흘까

◇古◇代◇戰◇爭◇

特殊論文

東京文壇의近貌 行動主義를中心삼아 ❶



金文輯

一

『스무卷의作品을 내 보려무나 評家는單스무줄로서그를 批評해줄것이니까!『그러고도 이이는것은 언제든지 그스무줄便이라네!——이것이 評論家를致斃하는『쿠날』의有名한 諷刺句은두구나 다아는바이다。

批評家는 스무줄로서解決하지만、나는스무줄은커녕 單一줄로서라도 스무卷을 評斷할배아니다마는、不幸히나에게 맛겨진 行數는두줄도아니고 스무줄도아니라 一言之下에判決言渡를내리는痛快한機會는 逸失하엿스나 **行動主義의 東京文壇을** 批評하라는課題가課題인지라、나亦是스무卷을 스무줄로評하는 慘酷을免할道理가업슬것이니 미리들諒解하기를바란다。

東京文壇에眞實한行動主義文學이잇섯느냐업섯느냐?하면、나는업섯다고結論부터 먼저내여거는사람이다。上半期를 全盛期로한 昨年一年間의 東京文壇의 中心論題가 能動主義엿고 그의延長인 行動主義文學의 具體化理論이엇는데、어째서 行動主義文學이업섯다고하느냐?이러케지퍼파들으면、——主知派를 中心으로한그들 몃몃作家의 智識階級的焦燥는 可憐할만하엿스나、『푸로』文學과가튼 體系的 理論과 實踐의世界觀도업섯고、五千年以來의뿌르文學과가튼 信仰에가깝운 美學的體積도 업섯슬뿐아니라、事實에잇서서 그러다는作品이나지안헛스니 行動主義文學이라는것은 적어도 東京文壇에는 아직出現치못햇다——이러케위선 醬을해볼려고하니 너무나抽象的이여서 내게는재미가적다 그래서나는 다음과가튼ALLEGORY를 새우기로한다。

『하늘을봐야 별(星)을따지!』이것은아마 慶尙道俚諺인가본대、男子를몰으고 어찌子息을 나켓느냐 하는뜻이다。정말世界어느나라文壇보다도 多情多感해서 **風潮的으로 戀愛하기로**만 일삼는 東京文壇이란 女子가 行動主義文學이라는 子息을 나키에는 너무나 男子를몰랐든것이다。

戀愛만으로서는 아이는못낫는다 어머니가되고 어린애엇먹이는快感想像하고 意識할수는 잇서도生理的經驗이업다면 그는永遠의空想 永遠의憧憬에 지나지못한다。

東京文壇(一部)이란 아가씨가 行動主義文學을 나아서 길러보려고 애쓰고 힘썻다는것은 事實그대로이다。

그러나 果然 그것이 產兒해 母性的發育을 다하엿스며 或은 受胎라도 하엿든가 하는것이나의第一의 疑問이요 뿌린씨가樂田에서 發芽하기는햇나 하는것이다음疑問이요 마지막 疑問은 設使受胎한것만은 事實이라하드래도 그러면 流産도 死産도아닌完全分娩으로 玉童子하나를나앗느냐하는것이다。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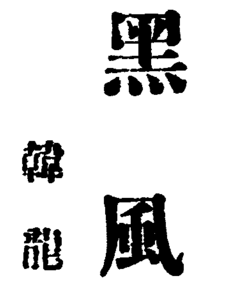
이에對한解答은 임의적은바나의否認이니 再論할必要는업스나『어째서그러냐?』하는過程을展開하기前에한마듸말해둘것은나는嚴正한客觀을자랑해야될 批評家가 아니고 時評에서 表白한바와가티作家——더구나、나의個人的事情으로 **三四年以來 表面的活動**은 비록 中斷하고잇다하드래도 한때는 高踏派의奇怪한 耽美主義作家라는 읽기어려운레텔을 저便사람들로부터 선사바든事實로미루워 或孟浪한 主觀이發動하야 나의評眼을 阻害치는안흘가하는疑慮가 잇다는것이다。그러나 此種念慮는 事實내가行動主義文學運動에對해서 何等反感을 呼吸함이업다가보다 오히려 그에加擔치못함을 스사로원망하느니만치 人間的으로 主義와運動 그自體에는共鳴하는者이라고 告白함으로서얼마간 安心하려고한다。

行動主義文學이란 어떤文學이냐? 이에關한 解答은 李軒求氏가 이미本紙를 通하야 우리文壇에 紹介한바잇섯스니 나는 다만 氏가남겨둔 그理論的根據에對해서 나의同情的 理解와解釋에따라 至極히簡單하게 먼저 말해둘려고한다。

文化的으로나 文學的으로 임즉 世界水準에서 同時的으로盛衰하고잇는 日本에잇서서 그『푸로레타리아』文學은 어너나라의그것과가티 自然主義文學의 社會主義的**再出發乃至 發展이엇다**

그런대로에『맑시즘』이라는 動치안는한줄의世界觀을 빼다면『푸로』文學에서 남는것은 十九世紀初步의 幼稚한 文學的 遺産밧이엇다。『소련』의過去現在、『나치스』以前의 獨逸出版界、『싱크레아』를가진 亞米利加『쩌-나리즘』眞心과 實學을 사랑하는佛蘭西文壇等等을 通해서 본다드래도 五十步 百步의 差밧게는업지마는 그의 全盛期와 今日의 日本文壇을 살피여 果然우리는 在來의 自然主義文學의 水準을 넘은 엇더한 文學的『에스푸리』를 푸로文學에서 發見햇든가? 이는疑問의疑問에 시나지못할것이다。(續)

黑風 【219】



韓龍雲 作
金熊超 畵

참사랑 2

사람은 어떠케 사려야 오른것인가 도학을 닥거서 성현군자가 되는것인가 그러타면 공자와 도척이가 가튼 떠끌이 된것이 아니냐 영웅호걸이 되야서 삼군을 호령하고 천하를주름잡을것인가 그러타면 항우관문을 열고 큰 북을 둥둥 울리면 산동륙국이 벌벌떨든 진시황은 여산의 일부토 이외에 누엇이 남엇스며 전구라파의천지를 말굽밋헤 짓밟으라든 나팔레온은 외로운 섬에서 최후를 마치지 아니하얏는가 그러치 아니 하면 지사나 의인이 되야서 땀을 수정 삼고 피를 홍보석 삼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야 희생할것인가 술을 마시고 기침을 안흘것인가 인간만사를 다버리고 소부허유나 되오게네스가 될것인가 왕한의 생각은 무정부상태가 되야서 갈피를 잡을수가 업섯스나 왕한의 생각은 어느편으로든지 기우려진것은 아니나 그의 인생관에 큼직한 틈이 버러진것은 사실이엇다

달은 서으로 기우러지고 이슬기운은 나리는대 도라가는기럭이는 끈어지고 고기들은 잠겻다 어대로가는 적은 배인지 가다가 닻을주고 스스로 비껴잇는대 아마도 꿈을실은 배듯하얏다 왕한은 술기운이 거치면서 소랭하고 적막한것을 느끼엇다 강사가의 모랫 길에서 발자최소리가 나는듯하더니

『거기서 무얼하서요』

하는 소리를 따라서 머리를 도리키는 왕한은 창순을맛앗다

『어찌 이러케 나오시오?』

하는 왕한은 반갑기도 하얏으나 홀은 무슨일이 잇는가하야서 이상도하나 의심도 하얏다

『아모말슴업시 나오서서 늣도록 아니오시기에 벌써밤이 나온는것이 여기까지 나왓지오』

『그런대 혼자 무얼하서요』

『하긴 무얼해요 구경하지오』

『무슨 구경을 그러케 오래하서요』

『오라다니오 구경을 며칠씩하는 사람도 잇는대 불과몃시간이 오라요 이경치야 좀 조흔가』

하는 왕한은 손을 휘 둘너서 소상강의 상하사방을 가리치면서

『이것이야 아모리 그림을 잘그린들 그림으로 그릴수가 잇스며 아모리 글을 잘짓은들 글로 형용할수가 잇나요 이런 경치는 밤새도록 보아도 실치가 아니할것입니다』

하고 다시 창순을 본다

『참 조흔이오』

하는 창순은 팔짱을 끼면서 왕한의것헤 안는다

『조쿠 말구요』

『참 조키는 조습니다 그러나……』

『조키는 조나 어떠타는 말슴이오 무어이 부족한것이잇나요?』

『소상강이 파족한것은 아니겟지요』

『그럼 무어이 부족하다는 말슴이오 소상강은 부족치안지마는 보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슴인가요』

『하하하 웨 그러케 말슴을하서요 그러면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게요』

『그럼 무슨 말슴이여요?』

『소상강이 부족한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형편으로는 소상강을 볼만한 자격이 업것지오』

『웨요?』

『경치가 부패 하야서 나라가 결단이 나고 백성이 어육이 되는대 무슨 소상강의 경치를 볼경황이 잇것습니까 이런 경치는 사치품이어서 한가한 여가에 볼것이지 그야말로 죽옴나야 겨를이업는 청국사람으로 이런것을 볼여가가 잇습니까 이 소상강은 봉쇄를하야 두엇다가 현명이 완성되뒤에 해방을 해야지오 이런한 경치는 글루어지나지코 술잔이나 먹는것으로 생애를삼는 소방한 사람들이나 차저다닐 일이지 일하는이는 칠혹할것이 아니겟지오 소상강은 자고로 얼마나한 사람들을 버려주엇는지 모를것입니다 소방이라는것은 염세주의자의 변명이니 까요』

하는 창순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슴하다

康山技手 安珙澤

三共物產株式會社

淸道郡角南面 順天醫院

淸道郡伊西面角溪洞 朴在康 喪中欠禮

華陽酒造組合

朝鮮仁川府仁川驛前
海陸物産 委託販賣 出荷代辦 運送貨物取扱業
仁川商會 主 葛亨大
仁川 二共

003040

富川郡富內面富平里 富平郵便所 職員一同

富川郡富內面下里 崔成圭

富川郡富內面下里三七六 趙九鉉

富川郡富內面下里三七五 尹順東

富川郡富內面富平里 長谷嶋堯

富川郡富內面山谷里 池有弼

富川郡富內面淸川里 區長 金成元

富川郡富內面後井里 申鉉台

淸道郡[illegible] 大同商會 主 [illegible]

雲門寺 住持 張虎[illegible] 財務 金守[illegible] 書記 金成[illegible]

李壽基

伊西面職員一同

角南面協議會員 鄭[illegible]浩

淸道郡伊西面梨山洞 丙[illegible]

東倉 李承[illegible]

角北面[illegible] 丙[illegible]

淸道郡豐角面[illegible] 卞[illegible]永

富川郡富內面[illegible]峴里 金元堵

富川郡西串面高棧里 金顯昌

富川郡西串面黔岩里 李敬應

富川郡西串面連喜里 李賢新

富川郡富內面下里 朴泰遠

富川郡富內面下里 石福均

富川郡西串面浦里 朴洪成

賀正 元旦